금주의 법구-〈중아함경〉
악한 사람과 벗하지 말라.
자신과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굳은 마음으로 혼자 살아가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3월 21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094호 2016년 4월 27일 수요일

불교 잡지 부흥 선행과제 '콘텐츠 가공 능력' 배양

[기획] 불교계 잡지 진단과 과제

월간 〈불광〉이 오는 6월 불교잡지 사상 최초로 지령 500호를 맞는다. 〈불광〉 지령 500호란 경사에도 현재 불교잡지계의 상황은 암담하다. 이에 불교잡지계에서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역량 배양에 불교계 안팎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잡지업계 전반 매출 하향세

〈불광〉은 1974년 창간된 이후 휴간 없는 대표적인 불교잡지로 자리매김해왔다. 하지만 이런 〈불광〉 조차 수년째 부수는 정체된 상황이다. 인터넷미디어의 성장으로 출판인쇄업이 전반적으로 쇠락하는 것이 그 원인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월 5일 발표한 '2015 잡지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잡지계 매출은 지속적인 하향세다. 2014년 잡지산업 전체 매출은 1조 3754억 원으로 2013년에 비해 2173억 원 감소했다.

잡지사의 평균 매출액은 2013년 6억 3480만 원에서 2014년 5억 4820만 원으로 8660만 원이 감소했다. 2011년 16억 6,920억 원, 2012년 18억 8,500만 원과 비교 할 때 1/3 이하로 감소한 것이다.

매출감소는 '서점' 판매가 급감한 것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이제 서점에서 예전처럼 잡지가 팔리지 않는다는 말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산업 현황 통계'의 잡지류 도매업 매출을 보면 2009년 3조 1565억 원에서 2010년 2조 9632억 원, 2011년 2조 8836억 원으로 연평균 5%씩 감소했다.

이에 대해 류지호 불광미디어 대표는 "잡지 반품율이 매우 높다. 예전에는 서점에 입점해 많이 배포하면 많이 팔리던 시대였지만 이제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에 대응해 잡지계는 온라인 판매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진흥원 통계에서 온라인 유통 매출은 2009년 682억 원에서 2010년 792억 원, 2011년 1047억 원으로 매년 24%씩 증가하고 있다. 또 디지털 유료화로도 추진 중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 '2015 잡지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잡지업체 중 디지털 서비스를 하는 곳은 53.8%로 이중 23.2%가 유료다. 인터넷신문의 유료서비스율이 0.2%인 것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다.

불교계 잡지, 사보 · 회원지 전환

이같은 잡지계의 환경변화에 불교계 잡지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먼저 국내 대표서점인 교보문고에는 〈불광〉 〈선문화〉 〈한국불교문학〉 〈불교문예〉 4종만이 입점된 상태였다. 교보문고 브랜드관리팀 김현정 씨는 "최근들어 불교잡지 입점이 점점 줄고 있다"고 말했다.

오프라인 변화와 함께 온라인의 변화도 일어야 하지만 더디기만 하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불교계 잡지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다. 하지만 디지털 유료화를 실시하는 곳은 전무했다. 〈불교문화〉가 불교계 최초로 디지털 앱북을 선보였지만 이조차 무료다.

〈불광〉 교계 최초 지령500호
잡지 발간 환경은 갈수록 열악
일반잡지는 '디지털화'에 몰두
고령독자층 불교계, 한계 직면
회원지 · 사보 전환 트렌드 뚜렷

불교잡지의 디지털 유료화가 어려운 이유는 운영주체 대부분이 비영리인 사찰이나 단체라는 점이다.

고영인 〈불교문화〉 편집장은 "비영리 홍보가 주된 역할이기에 앱북 개발부터 유료화를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 독자층이 인터넷이나 디지털화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란 점도 불교잡지계가 디지털 유료화를 주저하게 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갤럽이 2015년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불자들은 50대 이상에 포진돼있다. (50대 이상 67%, 29세 미만 10%)

이런 상황에서 불교계 잡지는 사보나 기관홍보지 등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에 등록된 불교계 잡지는 27개다. 그 중 대표로 꼽히는 해인사 〈해인〉, 운문사 〈운문〉, 선학원 〈선원〉, 구룡사 〈붓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 〈불교평론〉 등은 모두 사찰이나 종단 스님들이 발간 주체로 이에 의존하고 있다. 대한불교진흥원이 펴내는 〈불교와 문화〉, 〈맑은소리 맑은나라〉, 〈법공양〉정도가 자체 운영된다.

이중 〈불교와 문화〉는 2010년 일반판매지서 회원지로 전환돼 회원에게 배포되고 있다. 일반잡지 성격의 봉은사 〈판전〉도 2014년 사보 성격의 '봉은 판전'으로 전환됐다.

위영란 봉은사 홍보팀장도 "외주 제작되던 일반잡지 발간 당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됐다. 사보 전환 후 신도와의 소통 기회가 넓어지는 등 효과가 높다"고 긍정적인 효과를 밝혔다. 봉은사의 경우 2015년 봉은사 새 신도 중 남자신도가 17% 증가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포교미디어를 접하고 신도로 등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문제는 콘텐츠 가공

관계자들은 이런 불교 잡지계의 변화에 불자들에게 맞는 콘텐츠 확보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공양〉을 펴내는 김현준 효림출판사 대표는 "아무래도 소식지나 홍보지 역할에 충실하다보면 시대흐름에 맞는 콘텐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일반인도 불교를 자연스럽게 접하는 전법차원에서도 콘텐츠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윤희 맑은소리맑은나라 대표도 "많은 잡지가 사보로 전환되겠지만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잡지 역할도 지켜야 한다. 불교 내에서만 머무르면 결국 불교 자체가 도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동 불광 편집장은 "불교계에서 1차 콘텐츠 '불교'를 2차로 재가공하는 역량이 부족하다. 불교잡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역량 배양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우리 사회 밝힐 희망의 빛 온 누리에"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는 4월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불기 2560년 광화문 점등식'을 봉행하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에 따라 사회를 밝힐 것을 다짐했다. 이날 광화문광장을 밝힌 장엄등은 국보 제35호 화엄사 4사자 삼층석탑을 형상화 한 것으로 비천상을 사방에 세워 장엄함을 더했다.
글 · 사진=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원효 '판비량론' 미공개 부분 日서 발견

정재영 교수, 조사 결과 발표… 신라 각필도 나와

신라 고승 원효가 집필한 '판비량론'(判比量論) 미공개 부분으로 추정되는 종잇조각이 일본서 발견돼 주목을 끈다.

서지학자 정재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조각나 흩어져 있어 그동안 학계에 알려져 있지 않았던 판비량론 단간(斷簡) 9행을 지난달 도쿄 개인 소장자에게서 찾았다"고 4월 19일 밝혔다.

이번에 나온 판비량론 단간은 가로 14㎝, 세로 27㎝ 크기의 초서체로 쓰였다. 단간의 1~5행은 판비량론 제6절 전반부이고, 6~9행은 다른 어떤 절의 후반부로 서로 다른 두 부분을 접합했다. 또한 상아나 뾰족한 나무로 글자로 새긴 각필도 세 군데에서 확인됐다.

정 교수는 "일본 오타니 대학이 소장하고 있는 '판비량론'과 동일한 필사본이다. 종이와 서체, 형태서지학적으로 일치해 오타니 대학본의 다른 부분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신라 각필이 확인된 것도 중요한 성과다. 정 교수는 정 교수는 "이번에 확인한 각필은 글 이해를 돕기 위해 한문의 뜻이나 조사, 어미 등을 단 구결"이라면서 "일본 나라 도다이지(東大寺) 화엄경과 구결의 글자나 쓰는 방식이 같다"고 밝혔다.

내용이 이어지지 않는 다른 행을 배접한 것은 일본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일본에는 글씨가 예쁜 책을 잘라서 표구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판비량론 글씨가 워낙 아름답기 때문에 조각조각 잘라 많은 사람이 나눠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원효 스님의 '판비량론' 미공개 부분 중 일부. 신라시대 각필의 흔적이 보인다. 흰색으로 표시된 것이 '몸'로 보이는 각필이다.
사진제공= 정재영 교수

한편, 판비량론은 원효가 55세 때인 671년에 저술한 책으로, 완본은 사라지고 전해지지 않는다. 현재 일본 교토 오타니 대학이 전체 1/8에 해당하는 3장 105행만 소장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중일불교대회, 10월 11일 中 '영파'서

3국 교류위 합의…설두사서 평화기원법회 예정

'천년을 이어온 법맥을 이어가자! 동북아 불교교류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한 제19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가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중국 절강성 영파에서 열린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는 4월 13일 중국 영파에서 중국불교협회,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의회와 함께 3국 교류위원회의를 열고 제19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 일정을 최종 합의했다.

이번 제19차 한중일대회는 설두사에서의 '세계평화 기원대법회'와 천동선사에서의 '3국 다도시연', 칠탑사 · 아육왕사 순례 등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교류위원회는 한중 불교수행체험 교류 개최 건도 한중일대회에서 추가 조율키로 했다.

이번 교류위원회의에는 한국대표단 단장으로 종단협 사무총장 월도 스님, 중국대표단 단장으로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명생스님, 일본대표단 단장으로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의회 이사장 다케 카쿠쵸 스님 등이 참여했다. 노덕현 기자

사찰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보련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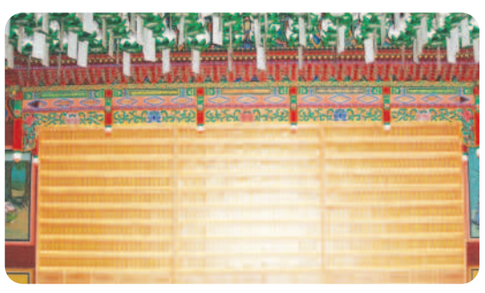
| 자동 연등 승강 장치 |





| 인등·영구위패 시공 |





만월등



정품LED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산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공단등



보련기획 H·P 010-9446-1862 / 전화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찬덕연등의 원천기술 및 제품생산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입니다.



"천년나무가 그늘 드리우듯 덕화 사바에" 조계종 최고 법계인 대종사 법계품서식이 4월 20일 대구 팔공총림 동화사서 봉행됐다. 이날 품서식에서는 신흥사 조실 무산, 해인사 방장 원각, 청담문도회 문장 혜성 스님이 법계를 품서했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법계증을 수여하며 "천년의 느티나무가 넓은 그늘을 드리우듯 대종사의 수행의 덕화를 사바에 널리펴라"고 설했다. 사진 왼쪽부터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 신흥사 조실 오현 스님, 청담문도회 문장 혜성 스님이 불자를 정대하는 모습. **손문철 대구지사장**

'출가=자유' 알리는 야단법석 열린다

조계종 교육원 5월 26일 '출가 콘서트' 개최

'어렵다. 고되다. 폐쇄적이다. (사연이 있어)속세를 떠났다.' 일반 대중들이 가지는 출가 수행에 대한 이미지다. 이 같은 출가 이미지를 개선하고 현대적 출가 수행자상을 알리기 위한 토크콘서트가 마련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오는 5월 26일 오후 4시 동국대 중강당에서 청년들과 함께 하는 출가콘서트를 개최한다.

'청춘! 자유를 향한 날개짓'을 주제로 열리는 출가콘서트는 올해를 '출가 진흥의 해로' 선포한 조계종 교육원의 역점 사업으로 출가를 주제로 대형 행사를 마련한 것은 종단 사상 처음이다.

무엇보다 콘서트의 주된 목적은 고되고 폐쇄적이라고 여겨지는 출가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개선하고, 대안적 삶으로서 출가를 알리는 데 있다.

그만큼 출가콘서트 출연진들도 대중과 호흡을 맞추고 소통할 수 있는 출·재가자로 구성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국민 멘토 법륜 스님이다. 스님은 청년들의 고민을 상담하고, 출가가 진정한 자유로 향하는 길임을 설파할 예정이다.

또한 BBS 불교방송 '아침풍경' 진행자 원영 스님, 나란다 교리 경시대회에서 수상하며 출가 원력을 세운 고우 스님이 참여한다. 재가자로는 사회적기업인 김민지 마인드디자인 대표가 참가해 20~30대가 바라보는 불교에 대해 솔직하게 말할 예정이다.

출가 주제 콘서트 사상 처음
멘토 법륜 스님 패널로 참여
상담·출가 이미지 개선 중점
학인 염불시연·문화공연 '눈길'

이와 함께 출가콘서트에서는 대중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학인염불시연대회·외국어스피치대회의 수상자들이 출연해 공연을 진행한다.

2014년 학인염불시연대회 대상 수상자인 보견 스님은 홀로아리랑에 맞춰 시



조계종 교육원의 '출가콘서트' 포스터

연했던 '광명진언'을 선보이며, 지난해 학인외국어스피치대회 최우수상 수상자 고우 스님은 'H3 비타민'을 주제로 108배·명상의 중요성을 영어로 설파한다.

또한 외국어스피치대회 당시 석가모니 부처님과 제자들, 달마 대사와 법맥들이 서로 랩을 통해 불교 교리를 설명하는 내용의 공연을 펼쳤던 동국대 서울캠퍼스 법상 스님 등 'SHOW ME THE BUDDHA' 팀도 출가콘서트에 출연해 흥겨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출가콘서트는 출가사이트(monk.buddhism.or.kr)을 통해 이뤄지며 선착순 무료다. 사전 예약한 100명의 방청객에게는 로얄(R)석을 제공된다. 또 평소 출가에 대해 가졌던 궁금함을 질문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이번 출가콘서트에 대해 교육부장 진각 스님은 "올해를 출가 진흥의 해로 삼은 만큼 출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립에 더욱 힘을 쓰겠다. 출가콘서트는 출가 이미지 개선을 위한 중요한 포석"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젊은이들의 고민을 많이 듣고 이에 대해 상담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출가는 만인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한 과정이며, 적극적인 삶의 자세임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교육원은 오는 10월 두 번째 출가콘서트를 부산대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02)2011-1810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94년 개혁정신 다시금 되살리자"

조계종 4월 19일 '94년개혁불사 백서' 봉정식 거행

1994년 4월 10일 조계사 대웅전 앞에는 2500여 스님들과 재가불자 등 1만여 명이 운집했다. 전국승려대회가 열린 것이었다. 종단 개혁에 대한 열기는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됐고, 당시 기득권을 장악하던 스님들은 백기를 들었다. 22년이 지난 2016년 4월 19일, 근대불교의 마감과 현대불교가 시작된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이날 94년 조계종 개혁불사의 의미를 되짚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은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94년 개혁불사 22주년 기념법회 및 백서 봉정식'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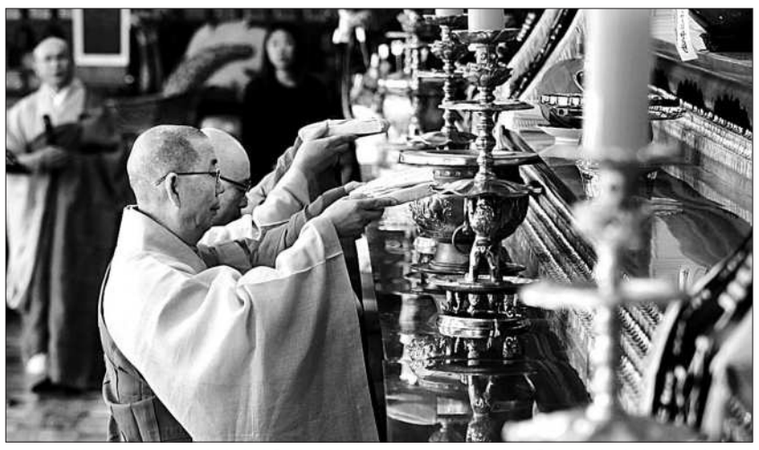
이날 봉정된 백서에는 2014년부터 2년 간 수집된 관련 자료와 종단개혁 관계자들의 녹취 등이 소상히 실렸다. 또 종단개혁의 전개과정 및 당시 개혁회의 운영 등 전반적인 내용이 담겼다.

대웅전에는 '94년개혁불사 20주년 기념사업추진위' 위원장 법등 스님을 비롯해 前 교육원장 청화 스님, 교육원장 현응 스님, 포교원장 지홍 스님 등 100여 스님이 참석했다. 봉정식은 백서 봉정과 함께 발원 등으로 이어졌다.

이날 기념사업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은 발간사를 통해 "94년 종단 개혁은 한국불교 근현대사의 대 전환점이었다. 이런 94년 개혁의 의의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것은 종단의 밝은 미래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함이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총무부장 지현 스님의 대독을 통해 "여전히 아쉬움과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94년 개혁의 정신과 그 교훈을 되새기는 일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모든 종도가 한마음으로 94년 개혁불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종단의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94년 개혁불사 2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장 법등 스님과 조계종 총무부장 지현 스님이 백서를 봉정하고 있다.

"직선제 도입, 선거공영제로 단점 극복하자"

서울·경기·호남 대중공사서 직선제 선호 '뚜렷'

차기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제도에 대한 대중들의 여론이 직선제로 모아지고 있다. 사부대중 100인대중공사 추진위는 4월 15일과 1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호남지역 대중공사와 서울경기지역 대중공사를 개최했다.

이번 대중공사에서의 즉석투표에서는 '직선제'가 각각 57%와 39% 득표했으며, 염화미소법은 4.7%와 10.2%의 지지밖에 받지 못했다.

이번 즉석투표에서는 앞선 대중공사와 달리 차기 선거제도에 대한 질문이 소폭 변경됐다. 종단쇄신위원회안에는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교구종회가 중심이 되는'이란 설명이 직선제에는 '직접투표에 참여하는' 설명이 추가됐다.

이런 변화 속에 종단쇄신위원회가 제안한 쇄신안도 호남 17.8%, 서울경기 40.7%의 지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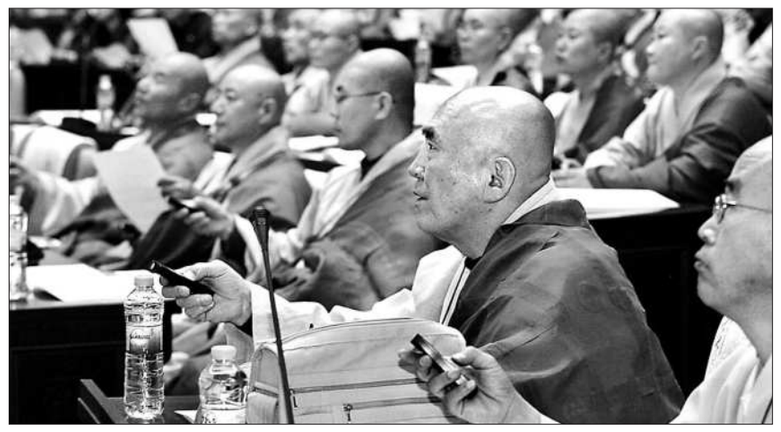
직선제에 대한 선호가 확인된 가운데 토론에서는 선거권 승랍기준과 재가자 참여 여부 등을 두고 활발한 입장개진이 이뤄졌다. 특히 서울경기 대중공사에서 불자들은 총무원장 선거시 재가자의 참여를 강력히 주장했다.

서울경기지역 대중공사에는 조계종 2교구 용주사, 25교구 남양주 본말사와 함께 직할교구 소속 사찰 대중이 참여했다. 직할교구의 경우 주지인사고과제도 등 타 교구에 비해 비교적 행정시스템이 현대화된 곳이다. 또 서울 경기 지역은 재가불자 단체들이 대거 몰려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날 100여 참석대중 중 53%인 59명이 재가자들이었다.

'직선제' 호남57%·경기 39% 지지
토론선 재가 참여·승랍 기준 논의
'선거관리 재가단체 위탁' 제안도

교구종회의 선거인단 확대를 골자로 한 쇄신안에 찬성한 조계사 부주지 원명 스님은 "교구종회 구성부터 재가자를 포함해야 한다. 권역별 신도회가 있는데,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며 "이에 기반한 선거인단 확대가 추진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급격한 변화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제기됐다. 용주사 부주지 성법 스님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으로 내려가면 만나는 곳에 여비라도 줘야 하는 문화가 아직 있다. 이런 문화 개선 없이는 직선제가 오히려 상당한 비용이 든다. 그래서 추첨제가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중공사에 참여한 스님들이 리모톤으로 즉석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학기 제2교구 신도회장은 "선거공영제와 사회의 선관위 위탁 등을 통해 그 과정에 투명성을 더할 수 있다"며 개선책을 제안했다. 조준우 수원사 신도회장도 "금품제공이나 수수때 강력한 처벌 제도가 필요하다. 제도의 문제보다는 운영의 문제다"고 지적했다.

내원암 주지 청진 스님은 "만약 재가자 참여가 힘들고, 승단만의 직선이 된다면 선관위 업무를 공신력 있는 재가단체들이 연합하여 맡는 것이 어떤가 싶다"고 제안했다.

두 대중공사에서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종단이 대중공사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대중공사 집행위원장 일감 스님은 "당장 이뤄지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희망을 갖자"며 "한국불교 역사상 총무원장부터 대학생까지 이렇게 소통하는 자리는 없었다. 외면하지 않고 참여하는 모습이 한국불교를 바꾼다"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영원한 안식의 길, 화두참선, 나를 바로보라

학산대원 대종사 조주록 강설안내



"내가 누구인가를 항상 돌이켜서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현실생활을 영위해야 바르게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나 잠잘 때나 한 순간도 '나는 무엇인가?'를 떨어뜨리지 않고 챙긴다면 얼마든지 어디에서나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파도를 타는 배처럼 살고, 바닷물처럼 수용하라.
대나무가 빽빽이 들어서 있는 숲에는
언제나 맑은 바람을 떨치고
시커멓게 썩은 파도 속에도 항상 밝은 달은 나타난다.

– 철벽(鐵壁)을 부수고 벽안(碧眼)을 열다 본문 중에서 –

대한불교조계종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학산대원 대종사
조주록 강설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 시 : 2016년 5월 21일 (토) 첫 법문 (오후 8시, 2년이내)
▮장 소 : 학림사 오등선원 설법전 ▮문 의 : 042)825-1724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학림사 오등선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지난 3월 시범운영을 위해 전국 25개 사찰에 배포한 전통 발우공양 운영기물.

‘전통’과 ‘편의’ 두 마리 토끼 못 잡나

전통 발우공양 운영기물, 장단점 비례
스토리텔링에 ‘효과’ VS “무거워 불편”

최근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성효)과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일감)가 공동 개발한 ‘전통 발우공양 운영기물’이 일선 사찰 템플스테이 발우공양서 스토리텔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기물이 다소 무거워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제기됐다.

문화사업단은 지난해 2월부터 1년여에 걸쳐 개발한 전통 발우공양 운영기물을 지난달 전국 25개 사찰에 배포,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해당 운영기물은 천수수관 2종 · 더도리그릇(국통 및 밥통) · 퇴수통 등 5종이다. 이는 템플스테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사찰마다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운영기물을 통일해 이질감을 줄이고, 전통적인 공양구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취지로 진행됐다.

새로 개발한 운영기물은 통도사 · 송광사 등 사찰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후기 유물을 본떠 제작했다. 스테인리스 재질에 티타늄코팅을 한 기물은 밝은 금색을 띠고 있다. 또 발우공양 시 천장에 새겨진 천수다라니가 천수수관에 비쳐 물을 정화한다는 전통적 의미를 살려 손잡이를 양쪽에 배치했다.

하지만 본지 조사결과, 운영기물을 직접 사용해본 템플스테이 실무자들 반응은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갈렸다. 템플스테이 참가자 입장에서는 스토리텔링에 효과가 있고, 통일된 모습이 보기 좋지만 운영기물을 관리하는 입장에선 무게로 인해 불편하다는 것이다.

경상도 A사찰 실무자는 “직접 발우공양에 사용해보니 장엄하고 좋다. 참가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늘었다”며 “다만 기존 현대식 운영기물에 비해 무거워 불편한 점이 있다. 전통이 가져다주는 멋과 편의성이 상반돼 단순히 좋다 나쁘다 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화도 B사찰 실무자는 “분위기도 좋고 멋스럽다. 발우공양의 의미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도 “전통 운영기물에 대한 인식이 낮아 양쪽에 달린 손잡이가 어색하고, 기존 것보다 무겁다 보니 운반할 때 쉽지 않다”고 말했다.

템플스테이 실무자들에 따르면 새 운영기물은 기존 현대식 운영기물에 비해 2~3배 무겁다. 물론 과거 사찰에서 사용하던 놋쇠 운영기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지만 이미 익숙해진 현대식 운영기물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선 볼멘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새 운영기물이 무거운 이유는 스테인리스를 2중으로 쓰고, 하단에 굽을 만들었기 때문인데 이는 열전도율을 낮춰 음식이 빨리 식는 것을 막고, 겉면이 뜨겁지 않아 화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무게에 대한 고민은 문화사업단 측에서도 인지하고 있지만 전통성과 편의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단적인 예로 무게를 낮추기 위해 스테인리스 두께를 줄여봤지만 제작과정에서 바깥 면이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터지는 일이 발생했다. 그렇다고 스테인리스를 한 겹만 쓰게 되면 기존 장점이 퇴색한다. 결국 하나를 취하면 하나를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문화사업단은 지속적으로 시범운영 사찰 의견을 취합하면서 금형전문가들과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문화사업단 관계자는 “현재 모델이 전통성과 편의성을 최대한 절충한 것이지만 개선방안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면서 “템플스테이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우공양 운영기물이 갖는 전통성을 잘 알리는 데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쓰시마 금동보살상을 부석사 품으로”

서산 부석사, 4월 19일 인도청구소송 제기

지난 2012년 일본 대마도에서 밀반입된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을 본래 자리인 부석사로 돌려놓기 위한 법적 소송이 본격화된다.

서산 부석사(주지 원우)는 4월 19일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을 부석사로 봉안하기 위한 인도청구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석사와 부석사불상봉안위는 “2014년 대전지방검찰청이 문화재청에 의뢰해 조사한 ‘불상재감정 조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등으로 구성된 조사위원 대다수가 ‘왜구에 의한 약탈 가능성’을 제기했다”면서 “일본 학계의 보고에도 ‘약탈 정황’을 발표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마도 관음사가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소송의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부석사는 법률적인 조치와 별개로 한일 불교계간의 대화와 교류를 통해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의 부석사 봉안 타당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상근 봉안위 집행위원장(문화재환수국제연대 대표)은 “최근 일본 언론이 가처분기간이 경과되는 시점을 기해 부석사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이 마치 포기한 것처럼 오인,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법률적 판단을 구하고자 접수하게 됐다. 그래도 최선의 방안은 한일 불교계의 대승적 이해와 협력을 통한 부석사로의 봉안”이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36회 장애인의 날… 반인권 · 차별 여전”

사회노동위, 4월 20일 성명서 발표 “취업 · 노동 열악”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 이하 사회노동위)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장애인들의 어려운 생활 여건과 더불어 장애인의 대한 일부 시민들의 낮은 의식 수준을 비판했다.

먼저 사회노동위는 장애인들의 열악한 취업 및 노동 현장에 대해 “장애인들의 취업을 통한 사회진출의 벽은 매우 높다. 그마저도 저임금이라는 이중구조에 갇혀 정상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특히 여성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6.8%로, 남성장애인의 참가율 66.2%에 훨씬 못 미치는 지경”이라 일갈했다.

그러면서 사회노동위는 “장애인의 평균임금은 162만 원으로 전체 인구 평균(223만 원)의 73% 수준에 불과하다. 장애인들 중 절대 빈곤층이 유독 많은 것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 주장했다.

이어 사회노동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공부문 3%, 민간부문 2.5%로 명시하고 있지만, 각각 2.5%와 2.2%로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단호하게 시정조치와 더불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면서 “일반 장애인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들의 고용률을 끌어올릴 방법도 강구해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한국 전통산사의 세계유산 가치 논한다

등재추진위, 4월 29일 학술대회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위원장 자승)가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3번째 국내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오는 4월 29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 열리는 학술대회에서는 ‘한국 전통산사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주제로 발제가 이어질 예정이다.

학술대회에는 이혜은(사단법인 이코모스한국위원회 위원장) 동국대 교수의 ‘연속유산으로서 한국전통산사의 진정성’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류성룡 계명대 교수의 ‘전통산사의 공간배치’ △이승희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원의 ‘전통산사의 자연환경 △이동주 백제고도문화재단 고도유산부장의 ‘한국전통산사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김경미 한국의전통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책임연구원의 ‘전통산사의 유형유산’ △구미래 동방문화대학원대 교수의 ‘전통산사 무형유산의 가치와 특성’ 등 전통산사의 세계유산으로서 의의와 관리 및 자연 · 기록 · 유형 · 무형유산 가치에 대한 6명의 발제가 진행된다.

토론시간에는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을 좌장으로 이상헌 건국대 교수, 한봉호 서울시립대 교수, 한필원 한남대 교수, 능인불교대학원대 교수 명법 스님 등이 참여한다.

한국의전통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는 “제3차 국내학술회의에서는 등재대상 7개 산사의 자연 · 기록 · 유형 · 무형유산적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 보은 법주사, 공주 마곡사, 순천 선암사, 해남 대흥사, 안동 봉정사, 영주 부석사, 양산 통도사 등 7개 사찰은 2015년 12월 28일 2017년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됐다.

신성민 기자



아기도 엄마도 편하게 사찰로 서울 조계사 경내에 아이 수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조계사(주지 지현)는 4월 21일 관음전 앞에서 수유실 현판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 수유실은 두평정도 공간에 간이소파와 수유쿠션, 기저귀, 세면대, 물티슈 등이 비치돼 있다. 조계사 신도 뿐 아니라 아기 엄마라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사진은 현판식서 풍선을 날리는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사진 가운데)과 조계사 대중들의 모습. 노덕현 기자

도시공원 내 전통사찰 증축 가능해져

정부 3월 29일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

전통사찰과 문화재가 증축 가능한 도시공원 범위가 모든 도시공원으로 확대됐다. 규제 해지로 향후 전통사찰 불사가 보다 원활히 진행될 전망이다.

조계종은 4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3월 29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됐다”고 밝혔다.

개정 전에는 전통사찰과 문화재의 증축이 가능한 도시공원은 ‘도시자연공원’에 한정됐다. 도시공원 내 모든 전통사찰과 문화재는 문화제육관광부 장관이 공원 관리청과 협의한 연면적까지 증축이 가능하게 됐다. 건폐율, 용적율 등 타법령에서 정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며, 도시공원 지정 당시 연면적 330㎡ 이내 전통사찰은 지존 연면적을 포함한 660㎡까지만 증축이 가능하다.

조계종은 “그동안 증축규제를 받고 있던 전통사찰의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전국사찰이 갖는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일 주 문



대구은행과 업무협약

효광 대구 동화사 주지 스님은 4월 19일 경내에서 대구은행과 모바일은행 'iM뱅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천소방서 업무협약

탄웅 서울 국제선센터 주지 스님은 4월 18일 경내에서 서울양천소방서(서장 김용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북SNS서포터즈 위촉

혜철 옥천 대성사 주지 스님은 4월 18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제3기 충북 SNS 서포터즈 발대식'서 서포터즈로 위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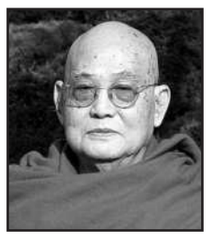
봉축위에 지원금 5천만원

김규칠 (재)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4월 21일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에 봉축행사 지원금 5천만원을 전달했다.

화촉 위영란 봉은사 홍보팀장(前 현대불교신문 편집국장)의 장녀 박정미 양이 오는 4월 30일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호텔 리츠칼튼 A3F 그랜드볼룸에서 신랑 김철희 군과 화촉을 올린다. 010-2101-5164

세계 수행자의 스승, 우 빤디따 입적

4월 16일, 세납 96세 법랍 75세



세계 수행자들의 스승 우 빤디따 사야도(U Pa.n.dita Sayadaw · 사진)가 4월 16일 오전 10시 4분(한국시각 기준) 세납 96세, 법랍 75세로 세연을 다했다.

장례식은 미얀마 양곤 본원 센터에서 4월 20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됐다. 다비식은 22일 오후 3시에 빤디따라마 바고 숲속센터에서 치러졌다. 미얀마 정부는 국장(國葬)을 제안했지만 우 빤디따 사야도의 유지에 따라 평소 좋아했던 수행처에서 조용히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손승효 前 한국 빤디따 선원장은 "임종을 지켜보는 동안 스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가르침을 알 수 있었다"며 "고통의 순간에도 의식을 놓지 않으시고 알아차림 가운데 평안히 죽음을 받아들이셨다"고 스님의 마지막 모습을 전했다.

1921년 7월 28일 미얀마의 수도인 양곤 인세인에서 태어난 우 빤디따 사야도는 사띠빠따나 위빠사나 수행법으로 세계에 위빠사나 수행을 전한 마하시 사야도를 이어 마하시 수행센터 2대 원장을 역임하고 출가자 및 재가자들을 지도해왔다.

하성미 기자

"육아지원해 청년활동 이끌 터"

Interview

김태훈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33대 신임회장



부산지구 창립 50주년 맞아
자체 복지시스템 구축 계획
행사 때 육아담당 마련해
회원 능동적 참여 높일 것

"부산지구 창립 50주년을 맞아 반백년의 첫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신명나는 청년회, 젊은 청년회, 불사에 정진하는 청년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4월 17일 부산 범어사 설법전에서 열린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회장 이취임법회에서 33대 회장에 취임한 김태훈 신임 회장〈사진〉은 부산지구 창립 50주년을 맞아 더욱 정진하는 청년회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김태훈 회장은 먼저 신명나는 청년회를 위해 자체 복지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결혼 후 가정을 꾸리면 육아 문제로 소홀해지는 청년들의 활동을 개선하기 위해 법회와 행사 때 육아를 담당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편안히 불교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그동안 청년들은 결혼 후 육아로 인해 자유롭게 법회에 참여할 수 없었다. 육아를 전담할 수 있는 봉사자를 모아 청년회원들이 신명나게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불청 부산지구의 과제로 젊은 불자 영입의 중요성을 꼽았으며 부산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과 봉사를 다할 것을 다짐했다.

김 회장은 "젊고 유능한 불자들을 영입해 그들만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이다. 젊은 불자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할 것이다"며 "또한 한국불교의 중심 부산에서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청년들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회장은 동명불원 어린이회, 내원정사 고등부를 거쳐 금련사 청년회 및 내원정사 청년회에서 활동했다. 2005~2013년 대불청 부산지구 부회장, 2013~2015년 대불청 부산지구 수석부회장을 역임했다.

한편, 32대 · 33대 회장 이취임법회에는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장을 비롯해 대불청 부산지구 역대 회장 및 회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육군훈련소 수계 및 위문행사

대한불교승가종, 호국연무사서 5천명 수계

(사)대한불교승가종(종정 월인, 총무원장 법수)은 4월 16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훈련병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제8회 수계법회를 열고 위문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종정 월인 스님, 총무원장 법수 스님을 비롯한 승가종 임원스님들과 종도 50여명이 동참했다.

종정 월인 스님은 법문을 통해 "훈련병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걸림이 없도록 오계를 잘 지켜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군복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계를 수지한 장병들은 "지극한 마음으로 삼보에 귀의하고, 오계를 받은 공덕으로 모든 부처님의 대원력을 성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월인 스님은 훈련병 대표로 나선 10여 명의 장병에게 연비를 했으며 승가종 스님 50여 명이 일일이 5천여 훈련병들에게 연비 후 계첩을 수여했다.

한편 승가종은 매년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논산훈련소 훈련병을 대상으로 합동 수계법회를 열고 위문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종단총연합회, 통합 신임회장단 선출

회장에 회암 스님, 5월 29일 불탑사서 추대 법회

(사)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는 4월 17일 서울 부암동 AW컨벤션센터 3층 연회장에서 신임회장단 선출 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이사장 의륜 스님, 총재 대원 스님 등 총연합회 임원진과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장 회암 스님 등 주요 임원진이 참석했다.

이사장 의륜 스님은 "불교화합의 대승적 차원에서 총연합회와 진흥총연합회가 통합해 큰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사전논의를 통해 두 단체가 발전적 통합을 하기로 했음을 밝혔다.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통합 신임회장단은 회장에 회암 스님(본조계종 종정), 수석부회장에 법장 스님(삼보종 총무원장), 정일 스님(한국근본해동종 총무원장), 상임부회장에 지일 스님(대승법사종 종정), 사무총장에 산수 스님(사암종 총무원장)이 선출됐다.

신임회장 회암 스님은 "대화합의 실천을 위해 회장단과 총재단, 회원분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신임 회장단 추대법회와 총재단 선출은 5월 29일 양양 불탑사에서 봉행키로 결정했다.

노덕현 기자



위덕대 불교학과 학생에게 장학금

형산새마을금고, 2년간 총 720만원



형산새마을금고(이사장 이상윤)는 4월 5일 위덕대학교를 방문해 불교문화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3명에게 장학금 총 72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에 장학금을 받게 된 학생은 방글라데시아에서 유학 온 참팍바우아 스님과 네팔에서 유학 온 샤카어민 법사, 법성 스님이다.

윤호섭 기자

조동종, 다례재 및 종정 추대법회

4월 14일, 6세 종정에 심월 스님



대한불교조동종(총무원장 덕우)은 4월 14일 서울 상계동 도선사 조동종총무원에서 창종주 동산양개 대선사 열반 1147주기를 맞아 다례재와 조동종 6세 종정 심월 스님, 5대 부종정 원봉 스님, 6대 승정원장 보경 스님 추대법회를 봉행했다.

경남남부지사장 청운 스님

응공조계종, 울릉도서 양로원 위문

종정 법운 스님과 대중 함께해



응공조계종이 4월 11일 울릉도 서면 태하리 영불원 양로원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온정을 나눴다.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된 행사에는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스님과 원로의장 보운 스님을 비롯한 원로의원 수덕 · 혜인 · 지암 스님 등 사부대중 20여 명이 동참했다. 사부대중은 30여 명의 양로원 어르신들과 말동무가 되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응공조계종은 대구 가산 용운사 주지 종명 스님이 운영하는 영불원 양로원을 3년간 방문하며 생활용품 및 식료품 등을 전달해오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16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혜인 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 초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x.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매
석 사 과 정	3년	10명	
박 사 과 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❷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❸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❹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6년 4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문 의 처
☎ 전화 : 86-25-84028478
86-13-585195431
☎ 팩스 : 86-25-84028479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 주소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논현동 2-14 2층)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혜 인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學大學)

최서북단 백령도에 '극락정도의 道' 펼치다

한국불교 영산재보존회, 4월 18일 천안함 46용사 극락왕생 발원

호국영령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자 230km 먼 바닷길을 달려온 불자들의 정성에 하늘도 감복했을까. 태풍과 비로 3일 간 운항이 중단됐던 항로가 열리고, 구슬피 내리던 봄비도 불경(佛經)이 울려 퍼지자 차차 잦아들었다. 무섭게 몰아치던 바람도 이내 힘을 잃고 햇빛을 내어주었다. 그 자리에 비로소 서방정토의 광명이 비추고, 조국을 위해 싸우다 희생당한 호국영령들의 극락왕생의 길이 펼쳐졌다.

(사)한국불교 영산재보존회는 4월 18일 국토의 최서북단 백령도에서 '천안함 피격사건' 으로 목숨을 잃은 46용사들의 극락왕생과 남북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영산대재를 봉행했다.

백령도는 북한 황해도와 마주한 곳으로,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 'PCC-772 천안' 이 피격됐다. 이로 인해 해군병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됐다. 이곳에서 천안함 희생용사들을 위한 영산재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봉원사 주지이자 영산재보존회장을 맡고 있는 선암 스님은 "서해 5도는 분단의 상징으로, 분단 이후에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이 발생하며 젊은 장병들이 무수히 목숨을 잃었다"면서 "영산재보존회는 이런 비극적 현실을 직시, 이 땅의 평화를 기원하고 희생자들의 숭고한 죽음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해병대 6여단 김수용 중령은 "불자들이 천안함 46용사의 극락왕생을 기원해주니 하늘도 감복해 눈물을 흘리는 것 같다"며 "우리 용사들이 아직도 영면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것 같아 안타까웠는데 46용사들도 기뻐할 것"이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이날 봉원사는 해병대 6여단 측에 위문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1973년 지정)이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2009년 등재)인 '영산재(靈山齋)' 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하던 모습을 재현한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영가(靈駕)와 성인들이 한 자리에서 불법(佛法)을 구하고,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의식이다. 영가들에 대한 영산재는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울 봉원사를 중심으로 한 태고종은 이러한 영산재를 보존 · 계승하고 있다.

이날 입재식에 이어 본 행사인 '영산재' 는 신중작법, 천수경, 복청게, 천수바라, 도량게, 법고, 시식, 봉송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천안함 피격 사건 6주기 맞아
호국영령 추모, 남북한 평화 발원
서해 최북단서 첫 영산재 봉행
신중작법 · 천수바라 등 진행
궂은 날씨 불구, 150여 명 참여
도내 2곳 사찰 중 흑룡사 방문도

비는 멈췄지만 옷깃을 파고드는 꽃샘추위에도 불구, 150여 명 참가자들은 의식이 진행되는 약 2시간 동안 두 손 모아 합장하며 자리를 지켰다. 초와 향이 빗물에 젖을까 품에 안은 보살들의 모습에서 애달픈 간절함마저 느껴졌다.

참가자 중에는 한 아들을 둔 어머니의 마음으로 눈물을 훔치는 이들도 있었다. 허영자(79) 씨는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희생당한 젊은 영령들을 보니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46명 모두가 내 아들처럼 여겨진다. 부모의 마음으로 영령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2명의 어린 손자들을 데리고 이번 행사에 참가한 정광섭(72) 씨는 "손자들에게 살아있는 역사와 희생당한 군인들이 나라를 지켜내고자 했던 애국심을 알려주기 위해 함께 왔다"며 "이번 경험을 통해 손자들이 46용사들의 존엄한 희생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궂은 날씨 때문에 재를 올리지 못할까 내내 마음 졸이던 봉원사 송명자 관음회장은 "오후에 비가 쏟아졌지만 영산재를 시작하자 비가 멈췄다. 모두 부처님의 가피로 성사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우리의 호국영령들이 극락세계에서 편히 쉴 수 있길 바란다"고 염원했다.

아울러 이튿날인 19일, 참가자들은 해병대 6여단 군법당 흑룡사를 방문했다. 흑룡사는 조계종 몽운사와 함께 백령도 내에 위치한 유일한 사찰로, 1980년 창건됐다. 기독교 세가 강한 백령도 지역에서 30년 넘게 한 자리를 지키며 군인 장병들과 불자 주민들의 안식처가 되어 주고 있다.

태고종 인천교구 종무원장 능화 스님은 "백령도는 기독교가 처음 유입돼 '기독교의 성지' 라고도 불리고 있음에도 불구, 36년 동안 한 자리를 지키며 군 포교에 큰 역할을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백령도에 비행장이 생기고 지리 · 물리적인 접근성이 높아지면 불법 포교가 더욱 수월해질 것이다. 이웃종교 및 지역주민들과 서로 융합하며 상호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국과 가족을 지키다 목숨을 잃은 호국영령들의 희생정신이 깃든 곳, 백령도. 천안함 위령탑에는 46명의 호국영령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꺼지지 않는 불꽃' 이 자리한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꺼지지 않는 그 불꽃이 뜨겁고도 숭고했던 그들의 희생정신을 말해주는 듯하다.

백령도=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① 사)한국불교 영산재보존회는 4월 18일 백령도서 '천안함 피격사건' 으로 희생된 46용사들의 극락왕생과 남북평화통일을 발원하는 영산대재를 봉행했다.
②, ④ 천안함 위령탑에서 펼쳐진 영산대재 모습.
③ 법고 의식이 진행중이다.
⑤ 봉원사 주지 선암 스님이 해병대 6여단 김수용 중령에게 위문금을 전달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승가종

봉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장병위문 및 수계식 행

종 정 월인 습득

원로원장 혜공 재무원장 무착 종회의장 혜륜 포교원장 도안 총무원장 법수 총무부장 도일

원로위원 법일
범음범패 교육원장 법수 승가종총본산 승가사 주지 선견 승가종 법사대학장 원해
월인문도회 문장 법종 비구니 범음교육원장 법관

서울종무원장 정행 부산종무원장 봉선 대구경북종무원장 지운 대전종무원장 법지
울산종무원장 도성 경남종무원장 월곡 강원종무원장 부르나 전남종무원장 선궁

장병위문 수계법회 동참 스님
정광 선웅 도광 묘전 묘경 법등 법성 법관 법전 무구 선호 선봉 도성 도안 효득 선경
무찰 불전 선오 자용 지명 보우 법지 법종



육군훈련소 훈련병 5천여명 합동 수계법회
(2016년 4월 16일)

■ 종정 주석사찰 서래암 : 부산 금정구 안뜰로7번길 43-1 / 전화 051)552-8554. 556-0278. 팩스 051)556-8551
■ 총 본 산 승 가 사 :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길성리 / 전화 055)754-1942

美 워싱턴 감싸 안은 '연꽃향기'

통도사 워싱턴 포교당 연화정사 4월 17일 개원


통도사 워싱턴 포교당 연화정사 개원법회에서 전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이 법문을 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에 부처님 가르침을 오롯하게 담은 연꽃향기를 전할 전법도량이 문을 열었다.

조계종 통도사 워싱턴 포교당 연화정사(주지 성원)는 4월 17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자리 잡은 도량에서 개원법회를 성황리에 봉행했다. 특히 한국 · 티베트 · 중국 · 일본 · 베트남 등 각국 불교 봉불의식을 함께 치러 '다민족 다종교 사회'의 의미를 담았다.

이날 연화정사 주지 성원 스님은 인사말에서 "한국불교가 미주에 사원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포교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50여년이 됐다. 그동안 아쉬움도 많았지만 미주 동포들의 고달픈 이민생활을 부처님 자비로 감싸 안아 위로하고, 한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 · 계승하는 데 큰 기여를 해왔다"면서 "동포 1~2세대 뿐만 아니라 3~4세대까지도 대비하고, 궁극적으로 미국 사회 전반에까지 확대해야 한다. 즉 성공적인 포교활동을 한 단계 비약시켜 현대사회 가치관을 구현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연화정사의 목표로 △한국불교계와 긴밀한 관계 유지 △미주 한국사원과 유대 강화 △미주 한국불교 포교 모델 정립 △한국불교 문화 전승 및 향유 △현지인 포교 활성화 방안 모색 △승재가 교육기관 설치 △세계불교학 연구 산실로 발전 △정보 및 인적 자원 교류 △남북한 종교교류 앞장 △타종교와 교류 등을 꼽았다.

이후 前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특별법문과 필라델피아 관음사 주지 정수 스님 · 김동기 워싱턴 총영사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또한 축하공연으로 한국전통무용과 바이올린 · 피아노 · 플룻 연주 등이 펼쳐졌다.

연화정사는 지난해 1월 성원 스님과 신도회가 임시 사찰 운영계획을 의결한 이후 사찰건립과 법회장소 등을 논의해 왔다. 그해 7월 버지니아주 정부에 정관 및 법인을 등록하고, 각종 불사를 추진해 이달 9일 내부공사까지 마쳤다.

한편 연화정사는 5월 15일(현지시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세계 각국 불교지도자들을 초청해 봉축법요식을 봉행하고, 국제불교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연화정사 주지 성원 스님의 사회로 불교 · 유대교 · 개신교 · 천주교 · 이슬람교 등 학자 및 성직자가 '종교간의 대화와 협력'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행복 담은 바람아, 불고 또 불어라"

2016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4월 15일 개막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개막식에서 내빈들이 개막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불교문화를 비롯한 한국전통문화를 알리고,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이웃을 돕기 위해 2013년 첫걸음을 뗀 행복바라미가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사)날마다좋은날(이사장 이기흥)은 4월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16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개막식을 봉행했다. 올해는 지난해에 선보였던 보물 제1268호 내소사 괘불 영인본이 전시돼 행사의 장엄함을 연출했다.

'나누자 즐기자'라는 주제로 열린 문화대축전은 화관무 · 양주별산대놀이 · 남사당놀이 등 전통문화공연과 한지부채 만들기 · 인경체험 · 연화다실 등의 체험부스가 진행돼 시민들의 오감을 즐겁게 했다. 오후 6시 진행된 개막식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 박원순 서울시장, 정세균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기흥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행복바라미는 전통문화 계승뿐만 아니라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나눔의 씨앗을 곳곳에 뿌리고 확장해왔다"며 "건강한 기부문화 정착과 함께 국민이 하나 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포교원장 지홍 스님이 대독한 치사에서 "지난 3년간 행복바라미는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내재돼 있음을 알려온 것으로 전해진다"며 "앞으로도 자비와 참여의 정신을 우리 사회에 더욱 확산해 행복의 가치를 실현하는 좋은 벗이 돼주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알리고 나눔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행복바라미는 속도와 경쟁에 지친 현대인들이 잊기 쉬운 것들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고 축사했다.

박 시장은 이어 "서울의 대표 문화축제인 연등회를 비롯해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이 서울 빛초롱축제와 더불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화축전과 함께 지역 풀뿌리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진행되는 '나눔문화 캠페인'은 오는 30일까지 전국 160여개 모금소에서 총 3억 원을 목표로 모금에 들어간다. 날마다좋은날은 지난해 약 1억7000만원을 모금해 각지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외에도 강릉 · 수원 · 청주 · 대구 · 전주 · 공주 · 울산 · 광주 · 부산서 행복바라미 지역문화제가 열릴 예정이다.

윤호섭 기자

1회 불교동화 공모전 장려상 3편 수상

한마음국제문화원이 주최하고 한마음선원이 후원하는 '2016년 제1회 불교동화 공모전' 수상작이 발표됐다.

한마음국제문화원은 최근 불교동화 공모전 수상작으로 '배와 바다(나다운 作)' '등불을 밝힐까요?(조춘실 作)' '내 친구 그림자(추주희 作)' 총 장려상 3편을 선정했다. 최우수상과 우수상은 선정하지 않았다. 시상식은 5월 1일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에서 열리며, 장려상은 상장과 상금 50만원을 받는다.

당선작 일부는 한마음출판사 각색 · 편집을 거쳐 세계 주요 국제도서전에 선보일 예정이며, 작품에 따라 영어 · 독일어 등 외국어로도 번역된다.

한마음국제문화원 측은 "올해는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선정하지 못했지만 해외에서도 영문 작품을 공모하는 등 관심과 성원이 뜨거웠다"고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페트병 모아 'ECO도서관' 짓는다

아름다운동행, 탄자니아에 '에코 도서관 프로젝트' 실시


(재)아름다운동행은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무칸바 초등학교에 ECO도서관 짓기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물이나 음료를 마시고 무심코 버리는 플라스틱 페트병. 버리면 쓰레기가 되지만, 잘 활용하면 건물도 지을 수 있다.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무칸바 초등학교에 에코도서관을 짓는 '페트병으로 BOLIM 도서관, 보람차게 지어 보자고요!'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에코도서관 프로젝트 'BOLIM(Bottle Library In Mkamba)'은 버려진 페트병, 폐타이어, 폐건축자재 등을 모아 그 안에 모래를 채워 벽돌처럼 활용, 건물의 뼈대를 만드는 형식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최근 부상하고 있는 '업사이클링(Upcycling)' 방식을 착안했다. 업사이클링이란 '업그레이드(Upgrade)'와 '리사이클링(Recycling)'의 합성어로, 단순한 재활용 수준에서 벗어나 원래 용도와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를 지닌 제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아름다운동행 측은 "환경보호에서 더 나아가 그린에너지로의 전환을 추구하며 에코도서관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며 "쓰레기를 재탄생시켜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긍정적인 움직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는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실어 의의를 더했다. 아름다운동행 측은 "도서관 건립과정에 마을 주민들이 함께 참여, 봉사함으로써 스스로 도서관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며 "열악한 교육현실에 놓인 탄자니아 아동들을 위해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동참 문의 (02)737-9595 **박아름 기자**

자비명상 Egg깨뜨림 'START'

5월 7~8일 안성 굴암사 명상센터

조계종 포교원 인증 청소년마음등불 사업 중 하나인 (사)자비명상의 'Egg깨뜨림'이 가정의 달을 맞아 열린다.

자비명상(대표 마가)은 5월 7~8일 안성 굴암사 명상센터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Egg깨뜨림 인성교육-잠자는 너의 잠재력을 깨워라'를 실시한다.

1박2일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Egg머니나-내 마음 먼저 알기' 'Egg팡-내 안의 틀 깨기' '병아리탄생-이런 까닭이었구나'로 나뉜다. 명상을 시작으로 나와 타인을 이해하고, 내 마음속의 응어리를 바라보며 고정관념을 깨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인부담금은 3만원이며, 세면도구 및 수건 등은 지참해야 한다. 선착순 20명 마감한다. 010-9722-2971

윤호섭 기자

영화 읽어주는 노인, 老年의 꿈 키우다

서울노인복지센터, 4~10월 '영화도슨트 양성과정'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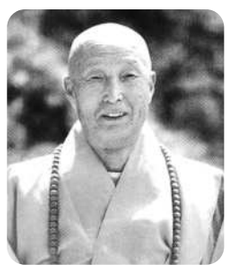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는 '영화도슨트 양성과정'을 4월 29일~10월 25일 센터 내 별관2층 인생교실 및 본관 2층 TOP독립영화관에서 실시한다. '영화도슨트 양성과정'이란 노인들이 직접 영화해설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영화 장르별 감상법 △영화 리뷰 작성법 △영화 토론법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교육한다. 총7개월 28회 교육과정으로 무료로 진행된다.

특히 교육과정 이수자들은 '영화도슨트 순회상영단'으로 조직돼 학교 · 도서관 · 복지관 등 문화공간에서 순회상영회를 진행하는 한편, '서울노인영화제'의 노인관객 심사단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박아름 기자**

대중불교운동!!

법화 보현 관법 수행 지도사 모집

일생 여래 정직자로 함께 할 분 환영



■ 출가 수행 과정 : 총본산 및 지역 사원 수행
■ 유발 법사 과정 : 수행 후 지역 전도사 수행
■ 수행 과정 : ❶ 지관(자력) 염불(타력) 각 7일
❷ 용맹정진(중도삼매) 보현 관행법 21일
■ 자격 과정 : 전교사, 전법사, 전도사, 대법사
■ 수행 기간 : 5 ~ 6월 중순 입방 예정(수행 후 수계 건당)
■ 제출 서류 :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진 2장

원할시 본 사암에 상주할 승려(비구 · 비구니), 유발법사(남 · 녀), 일반신도 약간명을 모집합니다.

※수행 참선 기도 중 선신들이 구름때처럼 몰려와 함께 기도
※적정열반체험 보살 인왕 대선사 직접 지도

총본산 | (재)불교여래종 총본산 금강대약사사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71
☎ 043-731-2261 | 010-9292-4828(명안스님)

대본산 | (재)여래종 대본산 전통사찰 약사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625번길 22
☎ 031-734-3205 | 016-363-6923(인왕큰스님)

소원을 이루는 진언주력명상 그리고 광명사 기도

우리가 살면서 업의 과보(변고)를 덜 겪고 재앙을 피하면서 살수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은 인류의 재앙이 도는 시절 지각변동(지진)이 일어나고 괴질(괴이한 질병)이 번지는 시절 모든 일들이 어려운 이때 대광명선원에서는 자성을 밝히는 「관세음 보살 모다라니 주력」과 무한한 에너지를 얻는 「옴마니반메훔 진언 명상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대 의왕이신 「관세음 보살님의 모다라니 주력」과 「옴마니 반메훔 호흡의 명상기운」은 우주의 생명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신체 주위에 내재해 있는 모든 나쁜것을 전부 분쇄시키는 무궁무진한 힘과 기능을 발휘하여 만유생명을 개척하고 발생, 발전하는 추진력으로 우리의 삶에 건강, 사랑 부를 이끌어 주는 운명의 기운을 돌려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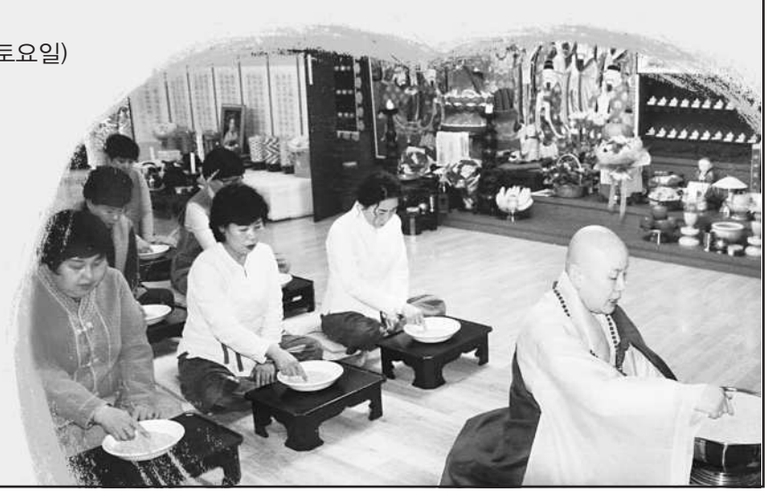
이에 기도동참하실 불자님들께 안내해 드리오니 참석하시어 소원성취 이루시길 바랍니다.

■ 복 전 : 무한한 빛의 운기를 발하는 「옴마니반메훔 광명사」를 기도 속에서 함께 만들어 드립니다.

지도스님 인해,덕후 합장
덕비

■ 기도일정 : 매주 주말(1박 2일)
• 그 첫번째 기도가 5월 셋째주(토요일) 양력(5월 21일) 시작됩니다
■ 매주 선착순 40명만 함께합니다. 전화 예약 받습니다.
※ 소원을 이루는 기도에는 먼저 자신의 몸에너지를 바꾸어야 합니다. '옴 · 까 · 훔' 3자 진언호흡함으로 막혀있던 통로가 뚫립니다.

■ 문 의 : 대광명선원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로 240번길 32
010-8673-7558
010-5658-2657
031-335-25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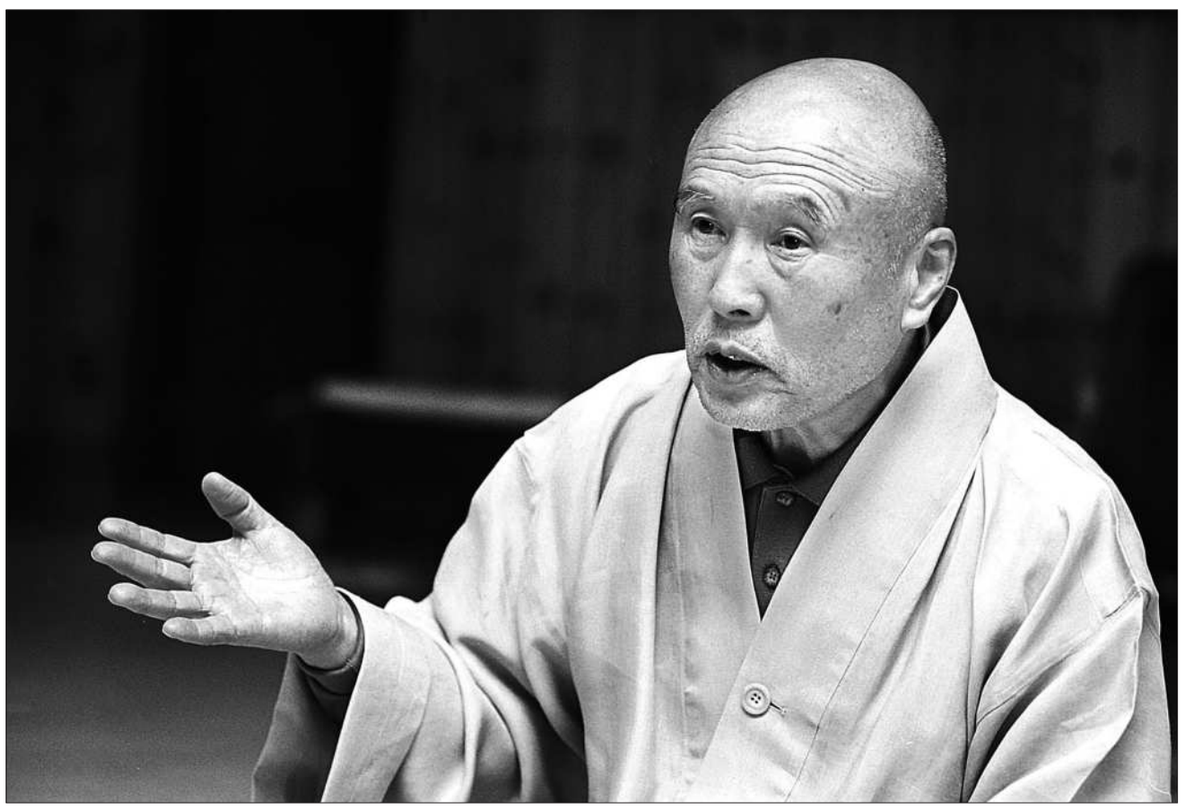
매순간이 福 지을 기회다

월간 〈법공양〉 법문… '보시로 이루는 큰 복'

경주 함월사 조실 우룡 스님

사람들은 흔히 행복하기 위해 산다고 말한다. 물론 그 행복의 기준은 제각각이지만 그것을 달성하면 정말 행복해질까? 혹은 내 옆에 있는 새장은 들여다보지 않은 채 파랑새를 찾아 헤매기만 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작복종교인 불교는 항상 '복을 지으라' 고 강조한다. 경주 함월사 조실 우룡 스님은 불교신행연구원의 월간 〈법공양〉(불기2560년) 4월호에 '보시로 이루는 큰 복' 이라는 주제로 법문했다. 스님은 "마음을 내지 않기 때문에 복을 짓지 못하는 것"이라며 "우리 삶의 터전 그대로가 복 밭이니 작은 것부터 복 짓는 데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정리=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우룡 스님은… 1933년 일본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돌아와 1947년 해인사에서 고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55년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63년 김천 청암사 불교연구원을 비롯해 화엄사 • 법주사 • 범어사 등에서 강사를 역임했다. 수덕사 능인선원, 직지사 천불선원, 통도사 극락선원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했다.

보시 복 닦아야 가난 면한다

인간은 누구나 복을 좋아합니다. 참으로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복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우주법계가 우리에게 그냥 복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복을 짓고 복을 닦아야 합니다. 복을 지어야 복을 받고, 공덕을 닦아야 공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우주법계의 이치요 삶의 법칙입니다. 특히 보시를 잘 해야 부유하게 사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 보시의 복을 제대로 닦지 않아 가난하게 생활하는 분들이 예상 밖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는 가난하기 때문에 보시할 생각조차 하지 못해 더욱 불행한 삶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한 편의 이야기를 음미해봅시다.

부처님의 십대 제자 중의 한 분인 가섭존자는 어느 날 사위성으로 탁발을 하러 나갔다가 우연히 외롭고 가난한 무의탁 노파를 보게 되었습니다. 노파는 한평생 밥을 먹은 것보다 굶은 숫자가 더 많았고, 먹더라도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가섭존자가 지혜의 눈으로 관하였더니 노파는 7일 뒤에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저 노파는 전생에 한 번도 제대로 된 복을 짓지 못해 평생을 비참하게 살아왔구나. 현재의 상태로 죽으면 박복한 과거 때문에 다음 생에는 더 힘든 삶을 살게 되리라. 복을 짓도록 해주자.'

이렇게 뜻을 정리하고 노파에게 청했습니다.

"시주를 받으러 왔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할머니의 물건을 직접 보시하십시오."

그러나 노파의 집은 바람조차 막을 수 없을 만큼 허름하였고, 옷이라고는 입고 있는 것이 전부였으며, 먹을거리라고는 이웃집에서 불쌍하다며 갖다 준 쌀뜨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쌀뜨물도 인도의 무더운 날씨 때문에 쉬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가섭존자는 노파에게 청했습니다.

"그 쌀뜨물이라도 좋으니 할머니 손으로 직접 보시하십시오."

노파는 쌀뜨물을 존자의 발우에 부었습니다.

"내가 이 물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미 쉬어 쓸모없는 물이니 버릴 테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시주께서 정성으로 보시한 이 쌀뜨물을 고맙게 받아 달게 마실 것입니다."

존자는 쉰 쌀뜨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이 공덕으로 할머니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터이니 소원을 말해보십시오."

"스님, 저는 이생에서 너무 못살았습니다. 다음 생에는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틀림없이 원대로 될 것입니다."

7일 후 노파는 숨을 거두었고, 가섭존자에게 쌀뜨물을 보시한 복으로 도리천에 태어났습니다. 노파는 몸에서 환한 빛이 나는 천인의 모습으로 한밤중에 가섭존자 앞에 나타났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께서 복을 닦게 해주신 덕분에 저는 천상에 태어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스님의 깊은 자비에 감사드리면서 예배를 올립니다."

노파는 정성을 다해 절을 한 다음 사라졌습니다.

박복한 이에게 복을 쌓게 한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한 그릇의 쌀뜨물이라도 제대로 된 마음으로 보시하면 복이 된다. 좋은 원을 세우고 원을 담아 보시하면 큰 복도 담을 수 있다' 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복 지을 마음을 내지 않기 때문에 복을 짓지 못하고, 복을 짓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할 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은 그대로가 복밭이요, 매순간 복을 지을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밥 먹고 옷 입고 생활하는 일상 속에서 절약하고 축원하고 보시하는 정신을 길러간다면 어찌 복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결코 사소한 일일지라도 복을 짓는 데 소홀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재칠시 복을 지어라

거창한 복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돈 없이도 지을 수 있는 복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잘 베풀면 됩니다. 상대를 위해 잘 베풀면 능히 복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재물 없이도 복을 지을 수 있는 일곱 가지 보시인 무재칠시(無財七施)를 일러주었습니다.

무재칠시의 첫 번째는 몸으로 베푸는 사신시(捨身施)입니다. 요즘은 이를 자원봉사라고 하는데, 몸이 불편한 사람을 목욕시켜주고 거동을 도와주거나 무료 점심공양에 참여해 음식을 만들어주거나 병원의 환자를 돌보는 등 나의 육체를 이용해 보람되고 복 닦는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재칠시의 두 번째는 마음으로 축원해주는 심려시(心慮施)입니다.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염려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행복을 온 마음을 다해 축원하는 것입니다.

보시, 재물로만 하는 것 아냐
돈 없이도 하는 7가지 보시
작은 것부터 적극 실천할 때
우주법계 이치 따라 복 받는다

가톨릭의 한 수도원에서는 새해 첫날에 수녀들이 모여 각기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양로원 · 고아원 · 교도소 · 병원들 중에서 한 곳을 택한 다음, 그곳 사람들을 위해 1년 내내 축원의 기도를 하면서 지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과는 특별한 연고가 없는 불쌍한 이들을 진심으로 축원해주고 행복을 염원해주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소중한 복 쌓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불자들도 다른 이의 행복을 위해 축원하기를 널리 실천해야 합니다. 가령 어느 절에서 기도한다면 나의 소원성취를 위한 기도에만 몰두하지 말고, '여기 모인 대중 모두가 불보살님의 가피를 입어 소원을 성취하여지이다' 라는 축원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병원을 가게 되면 환자들의 쾌유를 축원하고, 교도소를 찾게 되면 그곳 사람들의 자유와 행복을 축원해주어야 하며, 양로원을 찾아갔으면 노인분들의 편안한 노후를 축원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인연이 닿는 곳에 있는 이들에게 가피가 임하도록 축원하는 마음, 곧 심려시를 베풀면 나의 행복과 성취에 훨씬 더 빨리 다가서게 됩니다. 왜? 이것이 대우주법계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무재칠시의 세 번째는 밝은 표정으로 대하는 화안시(和顔施)입니다. 웃는 낯에 침 못 뱉고, 웃으면 복이 온다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도 짜증 가득한 표정, 괴로운 표정, 화난 표정, 지루한 표정, 무서운 표정 등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맑고 밝고 다정다감하고 환한 표정을 지으면, 상대를 편안하고 평화롭고 해맑고 행복하게 만들고 가까이 다가오게끔 합니다. 바로 환한 얼굴 그 자체가 복 짓는 얼굴입니다. 어찌 이 복 부르는 얼굴을 마다할 것입니까?

네 번째는 사랑 담긴 말을 하는 애어시(愛語施)입니다. 사랑의 말이란 상대를 살리고 살아나게 하는 말입니다. 상대를 칭찬하고 존중해주는 말, 상대의 좋은 점을 자꾸 일깨워주고 기를 살려주는 말, 서로를 화해롭게 살게 하고 진실을 나누는 말이 애어입니다.

'천 냥 빚도 말 한마디로 갚는다' 고 하는데, 유익하고 다정하고 희망이 깃든 말로써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쁨을 준다면 행복이 넘쳐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녕 남도 나도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고자 한다면 상대를 살리는 말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상대의 실수를 감싸주고 장점을 북돋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꾸중하고 화를 낼만한 일이 있을 때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감싸주는 말 한마디를 건넨다면, 상대방은 잘못을 스스로 깨달을 뿐 아니라 먼 훗날까지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게 됩니다.

서로를 살리는 사랑의 말 베풀기.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생활화요, 행복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무재칠시의 다섯 번째는 자애로운 눈길 보내는 자안시(慈眼施)입니다. 이 자안시는 눈웃음을 지으며 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당장 무엇인가를 안겨주면서 일일이 간섭을 하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늘 부드러운 마음과 자비심 가득한 눈길로 지켜보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지켜보고 기다려주는 자안시야말로 상대를 스스로 깨어나게 하고 향상하게 하는, 진정한 복 짓는 일입니다.

무재칠시의 여섯 번째는 앉는 자리를 양보하는 상좌시(床座施)입니다. 내가 앉아 있던 편한 자리를 내어주는 쉬운 예로는 버스나 전철에서 노인 · 임산부 · 아이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면 노약자나 병자나 여행자에게 잠시 쉴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 등도 훌륭한 상좌시입니다.

무재칠시의 마지막인 방사시(房舍施)는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교통이나 숙소가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집안의 빈방이나 헛간 등을 나그네에게 내어주어 하룻밤을 편안하게 지내도록 하는 것이 큰 베풂이었습니다.

이상의 무재칠시처럼 세상에는 돈 없이도 지을 수 있는 복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의 작은 것에서부터 복 짓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돈이 있으면 재물보시를, 법을 알면 법보시를 하고, 돈도 없고 법도 모를 경우라면 무재칠시를 비롯해 상대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무외시(無畏施)를 행하면 복이 자꾸자꾸 쌓이게 됩니다.

또한 가족이나 이웃 간에 서로의 고마움을 고맙게 생각할 줄 알고, 수고를 끼친 데 대해 미안해할 줄 알고, 지금 받고 있는 이 복을 감사하게 여기면 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일상 속에서 복 짓는 생활을 하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 생활을 이어받아 복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나의 마음으로 복을 털고 행동으로 복을 털고 입으로 복을 터는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 지 냉정하게 살피면서 참회할 것은 참회하고 베풀 것은 베풀고 닦을 것은 닦으며 살아간다면, 평생토록 세세생생토록 복덕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2기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6년 4월 30일까지
◆ 개강일시 : 2016년 4월 중 개강
매주 (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상담 및 지사모집

● 15년의 노력을 통하여 탄생된 운명상담! 간단히 입력을 마치면 즉시 상담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 학생들에겐 학과선택. 효율적 학습법. 좌,우뇌발달. 진학년도 성적여부. 학교예측. 부와 명예 중 발달 분야
성인에겐 적성에 맞는 직업안내. 언제 재물 또는 목적실현이 잘 될까 그래프를 보며 상담이 진행된다.
(학생 3,500명. 성인 2,500명 대상, 연구하여 완성된 프로그램) 조사결과 인생 전체에 대한 적중률 85%

지사 운영 대상
종교인(스님). 교육분야. 상담심리사.
철학인. 직업상담사
직업이 필요한 분을 위한 프로그램!
다문화 가족 (한국어 능통자 환영)
● 학생용 (남.여) ● 성인용 (남.여)
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직접 방문하시면 상세히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 강의 안내 : 매주 화 · 목요일 명리학 강의



비 전
● 입력 즉시 인생 전반에 걸친 자료 나온다.
부모관계. 배우자관계. 자식관계. 형제관계를 한눈에 보고 판단해준다.
● 어떤 성격을 지녔고 어떤 직업을 갖어야 좋은가를 알려준다.
● 언제 형편이 좋아지고 언제 흉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려준다.
※ 궁금하신 분은 연구실에 방문하여 경험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민번호에 숨겨진 나의 직업에 대한 프로그램 오픈 예정

프로그램 유형

생년월일 입력	설문응답	설문응답(재학생)	숫자에 얽인 운세	주민번호와 후천직업
[고객기초정보입력]	기초정보입력	기초정보입력	기초정보입력	기초정보입력
종 류 학생( ) 성인( )	종 류 학생( ) 성인( )	종 류 학생( ) 성인( )	종 류 학생( ) 성인( )	검사종류 학생( ) 성인( )
이 름	이 름	이 름	이 름	이 름
성 별 남( ) 여( )	성 별 남( ) 여( )	성 별 남( ) 여( )	성 별 남( ) 여( )	성 별 남( ) 여( )
생년월일 년 월 일 시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윤달여부 네( ) 아니오( )	이메일	이메일	이메일	숫자입력
쌍 둥 이 네( ) 아니오( )	안 내 다 음 한 문항에 하나씩 체크하셔요. 체크가 끝나면 바로 자료가 출력됩니다.	(가) 귀하가 전공하는 과목은 계열 : 학과 : (나) 현재의 과정은 어디에 해당 4년제( ) 전문대( ) 기타( ) (다) 재학중인 학교명 첫자는? ( )	선 택 숫 자 다음의 숫자 중 선택하고 싶은 숫자에 클릭하셔요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검사하기
핸폰번호				
이 메 일				
내신등급				
검사하기 평생운( ) 1년 신수( )		다 음 한 문항에 하나씩 체크하셔요. 체크가 끝나면 바로 자료가 출력됩니다.	다 음 검사하기	

※생년월일 입력시 16장 출력 ※1년 신수 5장 출력 ※설문응답 15장 출력 ※숫자에 얽힌 운세 5장 출력 ※주민번호에 의한 후천직업 5장 출력

진로적성힐링 상 담 소
오시는 길 : 총신대(4.7호선) 5번 출구 → 200m 401호 미래예측학 박사 안성재
문 의 : H·P 010-5418-5972

도난됐던 〈삼국유사〉 다시 세상에 나오다

문화재청 · 서울시경, 은닉자 검거 판매 목적으로 경매 출품 '덜미'

17년 전 사라진 보물급 〈삼국유사〉가 다시 세상에 나타났다. 그간 문화재를 은닉했던 매매업자가 검거됐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4월 21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공조 수사를 통해 도난문화재 〈삼국유사〉권제2 '기이편' 1책을 은닉해 온 문화재 매매업자를 검거하고 해당 문화재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매매업자 A씨는 1999년 1월 25일 대학 교수의 집에서 도난당한 〈삼국유사〉를 불법 취득했다. 이후 16년 간 은닉해 오다 공소시효가 끝났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올해 1월 경매시장에 출품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이번에 회수한 〈삼국유사〉권제2 '기이편' 은 성암고서본(보물 제419-2호), 연세대 파른본(보물 제1866호)과 함께 조선 초기에 제작된 동일판본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자료이다. 실제, 경매 출품 당시 감정가는 3억 5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삼국유사〉를 자신의 집 화장실 천장에 별도의 수납 공간을 만들어 16년간 숨겨왔다. 문화재 장물 취득 공소시효는 15년으로 피해품의 공소시효는 지난해 만료됐다.

하지만 문화재보호법상 도난된 문화재의 은닉죄는 공소시효가 없다. 문화재가 발견된 날로부터 범죄행위가 성립되는 개념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도난 공고한 도난 · 도굴문화재의 경우 공소시효에 상관없이 양도 · 양수 · 운반 등의 행위 일체가 불법이며, 선의취득에서도 배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문화재사범 공조수사를 더욱 내실 있게 다지고, 문화재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도난됐다 회수된 〈삼국유사〉권제2 '기이편' 의 정면과 뒷면. 은닉자가 애초 없던 표지를 새로 만들었다.

한암서 비롯된 禪門, 한국불교 이끌다

한국불교학회, 22일 '한암선문' 주제 학술대회

한국불교 근현대 선지식인 한암 스님에서 비롯된 오대산 한암선문의 위상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한국불교학회(회장 권탄준)는 오는 4월 22일 서울 봉은사 보우당에서 '한국불교 전통의 계승과 한암선문' 을 주제로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한암 스님을 시작으로 탄허 · 현칙 · 난암 · 보문 · 만화 스님 등 후학들을 학술적으로 조명하고 오대산 월정사를 중심으로 이뤄진 선문의 위상을 되짚었다.

이날 윤창화 민족사 대표는 '한암 중원과 봉은사' 주제 발표를 통해 한암 스님의 봉은사에서의 활동과 오대산행 등을 조명했다.

윤 대표는 "한암 스님이 봉은사 조실로 있으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당시 사회, 문화계 인사들과의 교류"라며 "위창 오세창, 육당 최남선, 위당 정인보 등 지식인들이 자주 한암 스님을 찾은 것은 그의 한학적 지식 및 인덕과 덕망을 갖춘 선승이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암 스님은 지적이고 청아하며, 정법안장을 갖춘 선승이었고, 역사 · 민족의식을 갖추고 있었다"며 "스님의 인간상과 승가상은 후학들이 본받아야 할 사표"라고 강조했다.

'한암 중원과 탄허 택성의 불연' 을 발표한 이원석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는 한국불교의 대강백으로 평가받는 탄허 스님의 출가는 한암 스님과의 영향이었다고 주장했다.

한암 스님은 정법안장 갖춘 선승
'삼교회통' 탄허 스님 출가에 영향
보문선사 생애 첫 조명 논문 발표
한암 · 탄허 · 만화 등 선지식 조명해

이 교수는 한암 스님과 출가 전 탄허 스님이 나눈 편지에 주목했다. 탄허 스님은 출가 전 한암 스님과 3년간 편지로 교류했고, 그 편지는 20여 통에 달한다.

이 교수는 "편지로 맺은 불연을 통해 한암 스님의 깊은 학문과 넓은 인품을 흠모한 탄허 스님은 권중백과 차계남과 함께 1934년 9월 5일 오대산 상원사로 입산했다"면서 "본래 탄허 스님은 승려가 될 뜻은 없었으나 그해 10월 15일 결제일에 구족계를 받으면서 한암 스님과의 인연이 깊어졌다. 이후 선방의 관례에 따라 일체 경전을 보지 않고 3년동안 묵언정진했다"고 설명했다.



오대산 월정사 전경. 한암 스님에서 시작된 선문은 근현대를 거치면서 오대산 일대를 불교 성역화하는 주춧돌이 됐다.

이어 "탄허 스님은 한암 스님과의 불연을 통해 화엄사상을 재구성함으로써 도가와 유가를 회통하고 역경불사를 완성하고 강원교육을 부흥시켰다"고 말했다.

특히 김광식 동국대 특임 교수는 한암 스님의 법제자인 보문 스님의 생애를 조명하는 논문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근대 최고 선승으로 불리던 보문 스님을 조명하는 학술논문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문 스님의 생애 전반을 살펴본 김 교수는 "보문 스님은 한암의 선법을 이은 선사였고 간경, 염불을 수용했다"면서 "이후 보문의 선법은 어떻게 구현했고, 누가 법을 계승했는지를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화 희찬과 오대산 성역화' 논문을 발표한 고영섭 동국대 교수는 한암과 탄허, 만화로 이어지는 선문에서 오대산 월정사 등이 어떻게 중흥했는지를 살폈다.

고 교수는 "한암과 지암, 탄허와 만화에 의해 오대산은 전통불교를 복원하고 성역화의 기반을 다졌다. 이런 장대한 불사와 결사가 가능한 것은 한암 스님과 탄허 스님을 계승하고 조술한 만화 스님에 의해서 였다"면서 "만화 스님이 한암의 상원사와 탄허의 월정사를 아우르며 오대산을 성역화 할 수 있던 근거는 한암으로 대표되는 납자의 선풍 발양과 탄허로 대표되는 도인의 심등 상속의 발원과 서원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이 '나옹의 공부십절목에 대한 한암의 답변과 관점' 을, 탄허박물관 연구실장 문광 스님이 '탄허 택성과 동양철학' 을, 김방룡 충남대 교수가 '현칙과 산중일지' 를, 전보삼 경기도박물관장이 '원보산과 상원 · 월정사판 서적' 을, 원영상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사무국장이 '난암 유종묵의 수행교화와 일본행적' 등을 발표했다.

신성민 기자

"학문 · 실용 조화가 불교학 본연의 태도"

박태원 울산대 교수 1차 향상포럼서 주장

현재 한국 불교학은 서구에서 시작돼 일본으로 전해진 '박물관 불교학' 에 불과하며 이를 넘어서는 '실용적 불교학' 이 새롭게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태원 울산대 철학과 교수〈사진〉는 4월 15일 열린 한국불교 향상포럼 첫 모임에서 발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박물관 불교학, 실용불학' 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현재 불교학의 연원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실용불학' 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박 교수는 서구에서 시작된 불교학은 '불교' 라는 전시 유물에 대한 서구인의 관람자적 호기심의 산물인 '박물관 불교학' 이라고 정의 내렸다. 그러다 보니 서구의 영향을 받은 현재 한국 불교학은 박물관의 유물처럼 문헌을 수집하고 분석해 계보와 체계, 양식과 차이를 이론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이 같은 박물관적 관심은 유물에 대한 이해와 지식만을 요구할 뿐 현재의 실용성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게 박 교수의 주장이다.



문헌 이해 그친 서구 불교학
박물관 관람자적 호기심 산물
사용 관심 둔 '실용불학' 필요

그러면서 박 교수는 "문헌 · 교학에 대한 전문지식을 확보한 불교학자는 전문지식의 '현재적 문제 해결력' 을 모색하면서 현재 언어로 재기술하고 있는가. 또한 불교 본연의 문제해결력에 대한 요청을 그저 응용불교학이라는 부수 영역에 위임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현재 학계에 날선 질문을 던졌다.

질문에 박 교수 스스로 밝힌 해답이 바로 '실용불학' 이다. '박물관 불교학' 이 유물탐구적 학문이라면, '실용불학' 은 현재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붓다의 길에서 확보해 풀어보려하는 탐구의 영역이다.

박 교수가 밝힌 실용불학을 구성하기 위한 선행 조건은 불교 본연의 문제해결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박물관 불교학을 활용하되 기존 불교학이 지닌 가치중립적 태도, 자폐적 자기완결, 문제 해결에 대한 무관심 등은 극복돼야 한다"면서 "불교가 가진 문제해결력에 주목하면 문헌 · 교학에 대한 이해도 달라진다. 이런 실용불학의 문제해결력은 '학문적 깊이' 에서 확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문적 역량으로 실용불학을 지향하려면 '자기의 생각' 을 현재어에 담아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헌학적 탐구와 실용가치가 결합되는 것은 불교의 본연의 태도"였음을 분명히 한 박 교수는 한국불교학은 '실용불학' 이라는 낯선 길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불교적 문제 해결력에 집중하는 실용불학의 구성은 근현대 불교학의 속성으로 보면 낯선 길이나 불교 본연의 생명력을 복원하려면 걸어야 하는 길"이라면서 "서툴고 낯설더라도 한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현재 한국불교가 바라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괘불탱' 가치 · 위상 책으로 담다

성보문화재硏 · 문화재청, 조사 보고서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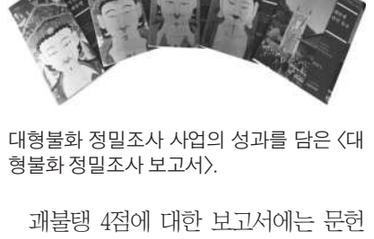
한국에서만 만날 수 있는 독특한 대형불화 '괘불탱' 의 가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조사보고서가 발간됐다.

(사)성보문화재연구원(원장 지현)과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지난해 대형불화 정밀조사의 성과를 담은 〈대형불화 정밀조사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대형불화인 괘불탱은 재료적 취약성은 물론 그 무게나 크기로 인해 이동이 쉽지 않아 다른 문화재에 비해 재해 위험이 높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만 전하는 의식용 불화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에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조사 · 연구와 보존관리에도 어려움이 많다.

이에, 문화재청과 성보문화재연구원은 국립문화재연구소, 조계종 총무원과 협업으로 지난해부터 2024년까지 10개년에 걸쳐 전국 중요 대형불화 정밀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도 사업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다.

이번에 발간된 5권의 보고서는 △보물 제1260호 '마곡사 석가모니불괘불탱' △보물 제1278호 '북장사 영산회괘불탱' △보물 제1350호 '통도사 석가여래괘불탱' △보물 제1351호 '통도사 괘불탱' △괘불탱 관련 유물이다.



대형불화 정밀조사 사업의 성과를 담은 〈대형불화 정밀조사 보고서〉.

괘불탱 4점에 대한 보고서에는 문헌자료, 크기와 무게, 보존환경 등 문화재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비롯해 정밀사진 촬영과 3차원(3D) 형상화를 통해 얻은 디지털 정보가 담겨있다. 또한 바탕지 · 배접지 재료에 대한 분석, 채색 안료 분석, 적외선 · 현미경 촬영 등으로 확보한 과학적 분석 자료도 수록됐다.

그리고 '괘불탱 관련 유물' 에는 괘불탱을 내어 거는 데 필요한 괘불지주 86건 295점, 괘불대 18건 40점에 대한 현황이 포함됐으며, 현재 통도사에서 행해지는 괘불이운(掛佛移運, 괘불을 옮겨 모심) 의식도 함께 실어 불교의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大出力 믹싱앰프



● 법당앰프 설치비용
A형 : 전체 설치비 1,28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CD기, 마이크 2개
B형 : 전체 설치비 1,60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마이크 1개
C형 : 전체 설치비 1,85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구즈넥, 마이크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45,000원
(발송비 포함)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1개월 60팩
80ml×60팩 (1BOX)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 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대장경 속 8만4천법문, 감동으로 전한다

4월 29~30일, 해인사 고려팔만대장경의날 개최

법보사찰 해인사(주지 향적)가 팔만대장경을 수호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4월 29~30일 이틀에 걸쳐 '제56회 해인사 고려팔만대장경의날' (이하 대장경의날)을 개최한다.

그동안 해인사는 매년 음력 3월 9~10일 '해인사 팔만대장경 정대불사'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개최해왔지만 올해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로 확대하고 다양한 축하공연을 마련했다. 이는 지역민의 참여를 높이고 팔만대장경 세계문화유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함이다.

먼저 대장경의날은 29일 오후 4시 해인사 입구 비석거리에서 시련(侍輦) 행사를 시작으로 그 막을 올린다. 시련은 불보살, 옹호신중, 역대 조상영가 가마를 도량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인로왕번, 오방번, 향로, 오색기불기, 태극기와 십바라밀기, 청사초롱 등의 행렬을 볼 수 있다.

오후 6시 30분 예불 후에는 대령관욕과 심금을 울리는 회심곡 공연이 보경당에서 이어진다. 팔만대장경의 역사와 대장정을 알 수 있는 〈팔만대장경 어디서 왔는가〉 등 영상물 상영은 오후 8시 30분 보경당에서 진행되며 11시 30분부터 대적광전에서 철야정진으로 산사의 밤을 밝힌다.

30일은 오전 7시 30분 대적광전 앞에서 향, 꽃, 차 등을 부처님 전에 올리며 괘불봉안을 거행한다. 오전 10시부터는 퓨전국악 아이돌 그룹 '미인'의 공연과 합창단의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2016년 해인사 고려팔만대장경의날 기념법회'는 배우 이민지의 사회로 오전

기존 정대불사 문화축제로 확대
대장경 역사부터 의미까지 한눈에
기념법회·축하공연·정대행진 등
따뜻한 봄날 가족나들이로 제격



2013년 대장경세계문화축제에 참여한 대중이 대장경판 모형을 머리에 이고 정대행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대장경 테마파크

11시 대적광전 앞마당에서 봉행된다. 기념법회는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의 헌화와 전계사 및 주지 향적 스님, 율주 율원장 스님 등 내빈들의 헌화가 이뤄진다. 팔만대장경 연혁 보고 및 방장 원각 스님 법어, 축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팔만대장경 정대행진은 오후 2시 30분 구광루 앞에서 진행된다. 정대행진은 세계문화유산인 해인사 장경판전에 보관된 팔만대장경판의 모형을 머리에 이고 해인사 도량을 따라 도는 사람들의 장엄한 행렬이다. 정대불사는 조선 태조 7년(1398년) 장경판을 강화도 선원사에서 해인사로 이운할 때 신도들이 경판을 머리에 이고 옮긴 데서 유래됐다. 해인사는 일제강점기에 팔만대장경판을 지키는 모임인 '해인봉찬회'를 조직했던 영암 스님이 대장경에 담긴 호국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1959년 정대불사를 재연한 것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대장경의날 행사는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또한 해인사 공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facebook.com/haeinsa.kr), 인스타그램(instagram.com/haeinsa_official), 팔만대장경 페이스북(facebook.com/haeinsa81258)에서도 행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해인사 페이스북과 팔만대장경 페이스북에서 추천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기면 라이어 3탄 연극티켓 등 선물을 추첨을 통해 증정한다. 정대동참은 1인 3만원, 영가 동참 1위당 1만원의 별도 접수가 필요하다.

해인사는 "대장경의날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가야산과 홍류동 계곡, 소나무 숲에 둘러싸인 해인사의 봄 풍경이 대중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며 "가족들과 봄을 만끽하면서 한국불교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자랑스러운 세계기록유산이자 국보인 팔만대장경의 수호 행렬에도 동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055)934-3105 하성미 기자

대구 해운정사, 삼존불·아라한 점안법회

4월 17일, 축하공연도

대구 달서구 해운정사(주지 청명)는 4월 17일 삼존불 및 오백나한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점안법회에는 법사 묘허 스님과 삼성암 월오 스님, 도원사 용암 스님, 행원승가연합회장 도경 스님, 비구니분다리까 불교문화원장 현진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초청법사 묘허 스님은 "아라한은 부처님 제자로서 수행을 통해 일체의 번뇌를 끊고 수행자들의 최고 계위인 아라한과를 얻은 성자를 이른다"며 "수행자들은 번뇌 망상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마음 닦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법문했다.

해운정사 주지 청명 스님은 "석가세존께서 전법도생을 위해 기원정사에서 녹야원까지 맨발로 걸어 내왕하시면서 사성제와 인연법을 설하셨다"며 "그때 들었던 교진여 등 수많은 성자들은 모두 즉석에서 큰 아라한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법회에 이어 2부에는 영산합창단(단장 전재은)의 음성공양, 불교무용공연, 초청가수 축하공연, 해운정사 신도들의 노래자랑이 진행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금정구노인복지관, 어버이날 기념 걷기대회

5월 4일, 부산대역서

어버이날을 맞아 걷기대회를 통해 감사의 뜻을 담는 행사가 개최된다.

사회복지법인 범어 금정구노인복지관(관장 조수경)은 5월 4일 오전 9시~오후 3시 부산대역 3, 4번 출구지하 야외무대에서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걷기대회는 어버이날을 기념해 사회적 중추 역할을 담당해온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계승하기 위해 열린다.

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부산대역 산책로, 온천장역, 명륜역, 동래역 등 총 4km 구간을 걸은 뒤 세병교 야외무대에서 열리는 부대행사로 마무리된다.



지난해 열린 금정구노인복지관 어버이날 기념 걷기대회 모습.

특히 대회 중간에 훌라후프 돌리기, 단체 윷놀이, 한자 조형물 찾기 등 다양한 미션을 마련했다.

금정구노인복지관은 "감사행사를 통해 경로효친사상을 확산하고 노인의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것이다"고 전했다. 051)792-7208 하성미 기자

2016년도 부산파라미타 발대

중·고등부 임원진 구성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협회장 백명숙)는 4월 16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2016년도 발대식을 개최했다. 청소년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이번 발대식에서는 회장 및 부회장, 지도교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고등부 회장은 김민기(동인고), 부회장은 정우현(브니엘고), 이시은(성심보건고) 학생이 맡았다. 중등부 회장은 구세진(연제중), 부회장은 신지원(해동중) 학생이 임명됐다. 총재 경선 스님(범어사 주지)은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며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했다.

경선 스님은 "오늘 봄과 같은 화사하고 밝은 파라미타 청소년들을 보니 힘이 난다"며 "여러분들은 파라미타 활동을 통해 육바라밀을 알고 세상을 이끌어 갈 인재들이다. 바라밀을 실천하고 부처님의 지혜 아래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 총재 경선 스님이 회장단 학생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백명숙 협회장은 "파라미타 활동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다"며 "불교는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는 종교다. 많은 참여를 통해 지혜를 성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발대식에 참여한 부산 파라미타 학생들은 범어사 경내에서 단주 만들기, 임진왜란 퍼즐 맞추기, 다도 체험, 컬러링 액자 만들기, 매듭공예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하성미 기자

달라이라마 경전공부법 〈논리(딱쎌)〉 강좌

부산 4월 30일~5월 1일
서울 5월 21~22일

공성을 깨우치기 위한 연기법을 공부하기 위해 달라이라마는 '논리'를 강조했다.

문(問)·사(思)·수(修)를 기초 공부법으로 제시하고, 논리적으로 불교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이 부산과 서울서 연이어 개최된다.

부산 광성사(주지 소남)는 4월 30일~5월 1일 '티벳 게시 스님께 직접 배우는 〈논리(딱쎌)〉' 강좌를 연다. 강좌는 총 8회에 걸쳐 이어진다. 모든 수업은 연기법을 주제로 소남 스님이 만든 교재를 가지고 문답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 일정은 5월 21일~22일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장소는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30길21 종로오피스텔 1101호다. 051)243-2468

하성미 기자

"부처님 닮은 어른 되거라"

홍법사, 유아·청소년 수계법회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가 부처님오신 날을 맞아 다양한 수계법회를 개최하고 부처님과 인연을 맺는 시간을 마련했다.

홍법사는 유아 및 청소년 포교를 위해 4~5월 △가족수계법회 △동자승 단기출가 △영유아 수기 법회 △마을상좌 수계식을 개최한다.

가족수계법회는 4월 24일 오전 11시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열렸다. 지난 재가 동안거에 참여한 동림 어린이회 학생들과 가족 30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우리는 불자가족'이란 주제로 열린 가족 수계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는 가족이 될 것을 서원했다.

이어 동자승 단기출가 입재식도 진행됐다. 이번 동자승 단기 출가에는 14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했다. 4월 24일 입재식을 시작으로 동자승들은 21일간 출가생활을 경험한다. 단기출가 기간 동안 통도사 방장스님 친견, 부산 연등축제



홍법사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4월 24일~5월 8일까지 다양한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사진은 주지 심산 스님이 지난해 영유아 수기 법회에서 마정수기 하는 모습.

봉축기념 제등행렬 동참, 해군 작전사령부 방문, 조계사 축구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28일 삭발 수계식과 5월 14일 부처님오신날에 환계식을 진행한다.

5월 1일 오전 11시 대광명전에서는 영유아 수기 법회가 열린다. 법회를 통해 홍법사는 뱃속의 아이를 잉태한 부모의 설렘과 두려움을 마정수기로 일소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닮은 아이들이 돼줄 것을 발원한다.

청소년 및 일반 재가자들을 위한 행사도 열린다. 마을상좌 수계식은 5월 8일 오후 7시 대광명전에서 개최한다. 마을상좌 수계식은 스님을 마음의 스승으로 삼고 진리의 아버지로 삼는 의식이다.

홍법사는 "태중에 있는 아기부터 성인까지 부처님과 인연 맺는 의식에 동참하고 부처님오신날을 더욱 뜻 깊게 맞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편저자
독각~진귀 (獨覺~眞歸)
화엄경 강원 강주

석가를 품은 53見 가슴을 치는 화두집이 드디어 출판되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문중인
독각~진귀 존자의
화엄경 참구와 만경(萬境)이 둘이
아닌 선(禪) 삼매문을 통한
선교일승(禪敎一乘)의 평온한
안목으로 쓴 화두집(석가를 품은 53見)
드디어 출판되다!

• 이렇게 괴짜스럽고 이렇게 부사의 하고 희유한 안목으로 이렇게 신선한 생기(生氣)와 묘(妙)한 장엄이 감도는 ~ 화두집은 부처님 경전 외엔 느껴 본적이 없었다 .....
- 법화수행원 원일스님
• 이 화두집은 시원한 사이다를 마시는 느낌이다 ... 위광거사

석가를 품은 53見 목차

제1見 석가를 품다
제2見 평온 초대장
제3見 법(法)을 버리다
제4見 차 한 잔
제5見 해인 삼매
제6見 창조와 표절
제7見 야부선사 웃다
제8見 요지경
제9見 말 많은 석가?
제10見 히말라야 영화
제11見 동시구족
제12見 법맥?
제13見 부처와 하룻밤을?
제14見 윈드서핑
제15見 발효식품
제16見 한 맛
제17見 뒤바뀐 안목
제18見 평온한 남자
제19見 참새집
제20見 병(病)든 부처
제21見 생화와 조화
제22見 직거래 ?
제23見 묘혜(妙慧)
제24見 법은 무의(無依)다
제25見 천도(遷度)란?
제26見 고구마 부쳐?
제27見 마음속 부처
제28見 개나리는 노랗다
제29見 범부와 선지식
제30見 깨달음의 신호등
제31見 다음생
제32見 종(鐘)
제33見 스승을 찾아서
제34見 대자유인의 길
제35見 집착을 놓다
제36見 종교와 현실
제37見 자식인연
제38見 형제 인연
제39見 도반인연
제40見 부부인연
제41見 대방광불 화엄경..
제42見 왕(대통령)
제43見 독각(獨覺)은?
제44見 〈나〉
제45見 대도(大道)란?
제46見 부처님 오신날
제47見 신통력(神通力)
제48見 보시(기부)
제49見 정견(正見)을 치다
제50見 업(욕심의 흐름)
제51見 평온을 만나다
제52見 화엄경_7행詩
제53見 평온 축제

도서출판 왕 산
문의 1899-9532
ISBN 979-11-87004-05-9 값 30,000원
※ 붓다북 등 인터넷 및 전국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

진각국사 제10회 추모 다례



혜심 진각국사(1178~1234) 탄신 제838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화순에서 열렸다.

진각국사선양회(대표 대현)는 4월 21일 화순군민회관에서 '제10회 다례제 및 경로위안잔치'를 열고 진각국사의 뜻을 기렸다. 화순은 진각국사가 탄생한 고장으로 행사가 열린 화순공원은 진각국사의 탄생 이야기가 전해지는 자치샘이 있다.

선양회 대표 대현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불교는 국난을 당하거나 백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항상 중생 곁에서 호국애민의 정신을 구현했다"며 "진각국사는 무신정권 시대에도 백성의 안녕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축사에서 "진각국사 다례제를 통해 진각국사께서 스스로를 '유교를 신봉하는 불자'라고 일컫는 것처럼 소통과 평화의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양회는 이번 다례제를 비롯해 매년 학술대회와 세미나를 통해 진각국사의 사상을 조명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운천 스님, 35사단에 짜장면 공양



짜장 스님으로 잘 알려진 남원 선원사 운천 스님이 지역 군장병들과 주민들을 위해 짜장면 공양을 펼쳐 지역사회 귀감이 되고 있다.

운천 스님은 4월 14일 전북 임실군 35사단에서 열린 봄맞이 체육대회와 충경콘서트에서 장병과 지역주민 3천여 명에게 연잎 짜장면을 공양했다.

운천 스님은 이른 아침 남원불교대학 학생회, 선원사 '사랑 실은 스님짜장 봉사단' 등 봉사자 30여 명과 함께 반죽, 면 뽑기, 장 만들기 등 짜장면 제조과정을 진두지휘하며 3천인분의 짜장면을 만들었다.

운천 스님은 "군 포교의 한 방편으로 정기적으로 군부대에 짜장면 대중공양을 하고 있다"며 "35사단 군장병들이 건강하게 군생활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랑 실은 스님짜장'이라는 봉사단을 조직해 전국의 요양원, 군부대, 교도소, 복지관등을 찾아 짜장면을 대접하고 있는 운천 스님은 매주 일요일 남원 광한루 옆 십수정에서 짜장면 무료급식을 진행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환경연대, 생명살림 금강 순례 시작



지난 4월 3일 목포 영산강 하구둑을 출발해 4대강 생명살림 100일 수행길에 나선 순례단이 영산강 순례를 마치고 군산에 도착해 금강 순례에 나섰다.

4월 19일 군산 금강하구둑 주차장에 집결한 순례단은 출발에 앞서 금강의 생태환경과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환경변화에 대한 브리핑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

(사)하천사랑운동본부 김재승 대표의 안내로 순례를 시작한 일행은 군산철새조망대와 나포면 사무소를 거쳐 익산 웅포까지 첫날 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금강 순례길에는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법만 스님, 행법 스님, 순례단장 법일 스님, 부단장 중현 스님, 류정길 에코붓다 대표, 동국사 종걸 스님 등이 참여했다.

법일 스님은 "영산강을 걸으며 4대강 사업의 성과라는 수질개선이 허구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금강유역을 걸으며 생태계도 확인할 것이다"고 말했다.

금강하구둑을 출발한 참가자들은 용안생태습지공원, 부여 대왕펄 앞 강변을 지나 공주보, 세종시를 거쳐 신탄진 신흥선원 앞까지 도보로 순례할 예정이며 29일 대청댐에서 천도재를 봉행한다.

이들 순례단은 5월 5일부터는 낙동강 구간, 6월 21일부터는 한강구간 순례를 마지막으로 7월 11일 조계사에서 회향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호남 곳곳에 부처님 자비광명 불 밝혀

정읍사암연·전북봉축위 등 봉축탑 점등

5월 14일 부처님오신날까지
지역발전과 시민안녕 기원
"덕 쌓고 복 짓는 데 힘쓰자"



4월 17일 전주 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봉행된 전북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점등식.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호남지역 곳곳에서 봉축을 기념하는 장엄등이 불을 밝혔다. 전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정읍사암연합회가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식을 개최했다.

정읍사암연합회(회장 도완, 내장사 주지)는 4월 15일 정읍 구 군청 앞 중앙로터리 광장에서 불기 256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다. 점등식에는 고창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을 비롯해 내장사 도완 스님, 정토사 원공 스님, 운주암 성락 스님, 성불암 상운 스님, 보림사 석우 스님 등 연합회 스님들과 유성엽 국회의원, 김생기 정읍시장, 우천규 정읍시의장, 내장사 합창단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연합회 고문 원공 스님은 법어를 통해 "진리와 자비에 대한 깨달음과 실천으로 밝힌 등불이 우리 마음속에 밝힌 참 등불"이라며 "본래 부처임을 스스로 깨닫는 날이 바로 부처님오신날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회장 도완 스님은 인사말에서 "정읍시내 한복판에 불을 밝힌 봉축탑을 계기로 정읍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안녕, 각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길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점등한 봉축탑은 보물 167호 은선리 삼층석탑을 본떠 제작됐으며 오는 5월 14일까지 불을 밝히게 된다. 또한 정읍사암연합회는 정읍시에 정읍장학재단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전북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성우, 금산사 주지)는 4월 17일 전주 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뜻을 알리고 전북불교 발전과 지역발전을 기원하는 봉축기원탑을 점등했다.

점등식에는 성우 스님,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도광 스님, 조계종 17교구 본말사 스님,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이정상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정동영 국회의원 당선자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성우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은 화합과 희망, 자비와 평화를 위해서다. 따라서 미움보다는 사랑, 대립과 갈등보다는 화합, 좌절보다는 희망의 등불을 밝히자"며 "우리는 국리민복을 위해 덕을 쌓고 복을 짓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점등된 봉축기원탑은 높이 7.2m의 보물 25호 금산사 5층석탑을 모형으로 만든 것이다. 부처님오신날을 상징하는 4월 8일의 의미를 담아 4.8m를 더해 높이 12m로 조성됐으며 부처님오신날인 5월 14일까지 불을 밝히게 된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 불자회**(회장 국승인)는 4월 20일 청사 로비에서 '부처님오신날 기념 봉축등 점등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연광 스님(광주불교연합회장), 보응 스님(세심정사 주지), 명신 스님(연화사 주지), 도제 스님(길상사 주지), 이범식 광주불교연합회신도회장, 강인철 청장 등 100여 명의 대중이 참석했다.

경승실장을 겸하고 있는 연광 스님은 봉행사에서 "오늘 등불을 통해 세상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의 등을 켜고, 나라와 지역사회 발전을 기원하는 등을 켜기 바란다"며 "이번 점등식에는 시민들의 평안과 안녕을 바라는 경찰식구들의 마음을 담았다"고 말했다.

강인철 청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시민들에게 전달돼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일구는 데 노력해 달라"고 축사했다.

이외에도 점등식은 증심사 합창단의 축가와 자양회의 전통차 시음 등이 함께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스님 덕에 이젠 깨끗한 물 마실 수 있어요!"

(사)나누우리, 캄보디아 초교 식수정화시설 준공



캄보디아 스와이덩꿈 초등학교 식수시설 준공식.

한국불교태고종 구호단체인 (사)나누우리는 4월 9~13일까지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2016년 국제구호활동을 펼쳤다.

20명의 봉사단원이 동참한 이번 국제구호활동은 시엠립 지역 2개 초등학교의 급수시설 준공 및 페인팅 작업, 수상마을 초등학교 후원 등이 진행됐다.

4박5일의 다소 촉박한 일정 속에 진행된 국제구호활동은 도착과 함께 스와이덩꿈 초등학교 교실의 페인팅 작업으로 시작했다. 이어 식수정화시설도 준공했다. 평소 우물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어 수인성 전염병 노출 위험이 매우 컸던 학생들은 안전한 식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나누우리 봉사단은 음향시설을 새로 설치했으며 학생들에게는 학용품과 슬리퍼, 교사들에게는 고급 비누를 전달했다.

나누우리는 30분가량 떨어진 돈추로암 초등학교에서도 식수 정화시설을 준공했다. 교내 식수시설이 없어 학생들이 등교를 꺼리고 있는 돈추로암 초등학교는 지하수 관정공사를 통해 식수정화시설을 완공하고 교사,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교무실을 새로 건축해주면서 인연을 맺은 나누우리는 한국에서 가져간 옷가지와 슬리퍼 등을 전달했다.

이번에 준공한 2기의 식수정화시설은 기존 식수시설보다 한층 업그레이 된 시설로 이 공사를 위해 나누우리 이사들이 3차례나 캄보디아를 방문해 직접 공사했으며 공사비 또한 기존 것에 비해 2배 이상 소요됐다.

아울러 베트남 전쟁당시 고국을 탈출한 보트피플 난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톤레샵 호수의 수상마을을 방문해 수상초등학교 2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슬리퍼 등의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이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수상마을을 형성해 호수 위에서 어업에 종사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한편, 나누우리는 오는 10월에도 캄보디아를 방문해 식수시설을 필요로 하는 학교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단법인 등기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정법안장 제 77세
정산 석청봉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주민등록증 앞, 뒤 사 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 무 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정산당 석청봉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달오)
(사) 아시아 태평양전쟁 희생자 대한추모회. 총재 /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前 상임위원장

원로의회
최고고문 석홍섭
원로부의장 석보행
원로의원 석원정, 석덕오, 석수오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법현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호계원
호계원장 석초오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지혜

교육원
교육원장 석월오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 대전종무원장 석법오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 강서종무원장 석해륜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사무총장 석혜주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성산
교무부장 석성오
사회부장 석현오
재무부장 석성현
동원부장 석법원
정보부장 석법주
행사부장 석윤오
의전부장 석명오

중앙위원회
전국비구니원장 석도현
전국비구니회장 석능현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정책위원장 황정재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종단봉사회회장 대자비
종단예술위원장 이선혜
전국청년회장 한관영

부산 제2총무원
총무원원장(직) 010-3565-2462
혜광사(종무소) 051)505-2461 / 팩 스 051)516-2461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14-6 부산지부 제2총무원 혜광사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영남 범음범패 통도사 소리 15기 교육원생 모집
■ 교육과정 : 초급반(안채비) 3개월, 중등반(범패기준) 3개월
고등반(사물 다루는 법 및 고급범패) 6개월
■ 연구반에서 부족한 나머지 부분을 특강 형식으로 계속 강의 받게 됩니다.
■ 범패교수 : 종정 청봉 큰스님의 직강으로 진행됩니다.
■ 개 강 일 : **2016년 6월 20일 오후 2시**
※영남 범음범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타종단의 스님들도 관계 없으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호로병’ 전도몽상에 대한 경계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㊺ 평정산 넘는 현장법사 일행

앞에서 서유기 이야기와는 상관없는 사설이 왜 그리 많았냐구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원래 서유기가 그렇게 슬쩍 천기를 누설하는 그런 책입니다. 손오공 입을 빌어, 또는 보살님 입을 빌어 천고의 비밀 한 자락을 내비치곤 하거든요. 금각, 은각 대왕 만나기 전에도 그런 대목이 있어서 그걸 보고 삼쾌선생이 흥이 났던 것이지요. 잠깐 소개해볼까요?

금각, 은각이 살고 있는 험한 산을 마주하곤 현장법사, 한숨이 터집니다. 사나운 짐승이나 요괴가 나올까 두려움에 떠는 거지요. 그 심정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가도 가도 안개만 더욱더 두텁게 끼니, 언제나 이내몸 편안할 수 있으려나”

손오공이 깔깔 웃으며 대꾸합니다.

“사부님, 편안해 지는 것이 무에 그리 어려울까요? 공덕이 이루어지면 모든 인연 다 쉬게 되고, 삼라만상이 모두 공적해질 텐데, 그 때가 되면 자연히 편안해질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말에 현장법사 다시 환희심을 내서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지요. 그러고 보면 손오공은 어떤 때는 철없는 망나니 같다가, 어떤 때는 불보살의 지혜 한 자락을 펼쳐 내는 대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중생들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중생이기만 한가요? 그 두터운 중생상 속에 부처님의 지혜를 담고 있고, 그 지혜가 순간순간 빛을 발할 수도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너무 무시하지 말고, 가끔씩 터져 나오는 부처 지혜를 소중히 키워 나가려는 그런 당찬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친 보살께서 지은 불성론(佛性論)에는 부처님이 불성을 말하신 가장 큰 이유는 중생들이 자신을 가볍게 보고 태만하게 여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우리의 중생 모습을 반성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속에 드러나는 부처 모습을 소중히 가꿔가는 자세를 갖자는 말이지요.

아무튼 그렇게 다시 힘을 내어 평정산을 넘게 되는데, 이 산에 사는 금각대왕, 은각대왕이라는 요괴는 정말 대단한 요괴인가보네요. 손오공이 천상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정도로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아는 요괴라면, 아무래도 천상과 조금쯤 연줄이 있는 요괴 아니겠어요? 당시에 천상소식을 전하는 신문이 있었겠어요, TV가 있었겠어요? 그러니 손오공을 잘 아는 이 요괴들 정체가 수상하다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드러날 것이니, 다음 회를 기대하시구요. 금각, 은각 형제 요괴 가운데 금각은 매우 신중하고 겁이 많은데, 은각은 좀 과감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손오공 잡을 계책을 들고 나섭니다. 그런데 그 계책이라는 것이, 앞에서 많이 봤던 요괴들의 수법이네요. 불쌍한 노인네로 둔갑하기, 예쁜 처녀로 둔갑하기…. 그리고는 손오공 일행 앞에서 수작부리기. 현장법사의 장점이가 단점인 자비심에 호소하여 틈을 노리는 수작! 그런데 그 뻔한 수작에 현장법사는 늘 걸려들지요. 이번에는 부상당한 도사 흉내네요. 현장법사는 손오공한테 업고 가라하고, 손오공은 요괴의 정체를 눈치챘지만 예전처럼 단매에 때려 죽였다가는 또 파문당할 것이 뻔하기에 딴 수를 생각하네요. 그래서 슬쩍 뒤쳐졌다가 어디에 패대기쳐 죽일 궁리를 하는데, 이 요괴도 눈치가 100단! 먼저 선수를 쳐서 무시무시한 술법을 부리는군요. 산을 옮겨와 손오공을 짓누르는데, 그 산이란 것이 또 엄청난 산들! 수미산, 그리고 아미산, 마지막이 태산이죠? 손오공이 두 번째 것까지는 두 어깨로 너끈히 받아냈는데, 마지막 태산에 이르러서는 감당치 못하네요. 피를 토하고 쓰러진 손오공…. 불쌍해라. 그렇게 손오공을 산으로 짓눌러 놓고는 현장법사와 사오정, 그리고 용마까지 몽땅 잡아가버리죠. 그리곤 현장법사 일행을 요리해 먹을 생각에 입이 찢어지는데, 아무래도 손오공이 맘에 걸리죠. 산으로 눌러 놓았다 하지만, 역시 맘이 안 놓여 졸개를 보내 마무리를 하려 하네요. 그 마무리를 위해 들려 보내는 병이 신기한 병이죠? 이름을 불러 대답을 하면 그 병으로 빨려 들어온다는! 정말 신통하고도 무서운 병…. 그런데 서유기에 이런 보물 등장할 때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 아시죠? 이름에 대답을 하면 빨려 들어가 녹아버린다, 이 병을 통해 서유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당연히 이름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건 짐작하시겠죠? 그런데 이름에 대답하면 왜 빨려 들어가요? 여기서 이름에 대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네요. 다시 한 번이라고 토를 단 이유는, 앞에서 손오공 이름 얻을 때 이름 이야기를 한참 했었기 때문이네요. 그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나칠계님? 혹시 생각나세요? 에구, 잘 나서시던 분이 이런 때면 왜 고개를 외로 꼬실까? 그렇지만 미안해하거나 겸연쩍어 하실 필요 없어요. 나칠계님 같은 분 때문에 제가 언제나 보람을 느낀다는 거 아시나요? 실수로 전에 했던 이야기 또 해도 언제나 새로 듣는 듯한 반응을 보이시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전 그것이 나칠계님의 우수한 망각력 때문이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같은 이야기에서 언제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 내는 깊은 통찰력과 공감능력의 결과라고 믿고 있답니다. 그래서 늘 감사드리고 있지요. 하하~



그림 · 최주현

이름에 답하는 순간 빨려들어가
명예 · 공명심에 대한 주의 표현
인격 완성에 집중하는 것이 ‘불교’

각설하고, 전에 이름 이야기는 이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었지요? 그 때는 손오공이 막 이름을 얻었을 때이기에, 이름이 사람을 대표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한 것이지요. 이름이 갖는 긍정적인 의미를 말한 것이겠네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름에 대한 집착의 무서움을 말하는 대목 같습니다. 이름은 한편으로는 사람의 성격형성이라든가 하는 측면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한평생 그 이름으로 불리다 보면 그 이름 자체를 자신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즉 이름과 자기를 동일하게 보는, 일종의 집착 같은 것이 생기는 것이지요. 이것은 어떤 측면에선 매우 위험한 집착이고,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물에 붙은 이름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자신의 이름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집착은 그 뿌리가 깊고 영향력도 크기에 특히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에 붙여져서, 그 존재를 가리키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일종의 상표 같은 것이라 할까요? 그것은 그 존재를 가리키는데 매우 쓸모가 있는 것이지만 그 존재 자체는 아닙니다. 그건 너무 분명한 사실이지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자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것입니다. 그 손가락은 당연히 달이 아니죠.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달을 찾아야 하는데, 자칫하면 말에 매달려 손가락을 달이라 착각하는 전도망상(顚倒妄想)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도망상이 자신의 이름에는 특히 심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평생 그 이름으로 불리다 보면 당연히 그것을 자기라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다른 사람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이름을 동일한 것으로 여기는 일은 또한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떠오르니까요. 매개물이 없이 바로 어떤 사물 자체를 전체적으로 직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매개를 통해 어떤 사물을 떠올리고, 다른 사물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름은 그 이름이 가리키는 사물을 전체적으로 우리 앞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물과 구별되는 어떤 특징을 중심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통해 무엇을 안다는 것은 언제나 전체를 환하게 아는 방식이 아니라, 사물의 특징을 중심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을 해 볼까요? 이름은 언제나 어떤 존재의 특징적인 면을 강하게 부각시키지만, 반면 그 이름의 그늘 속에 많은 부분을 감춘다는 두 측면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름을 제대로 쓰면 좋지만, 이름에 매달리면 언제나 그 그늘에 가려진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알고 쓰면 좋지만 집착하거나 매달리면 세상의 참 모습을 가리는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말입니다.

에고, 말이 너무 어렵게 나갔나요? 철학하는 사람 티내는 거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질 것 같네요. 그렇다면 앞에 계신 나칠계님을 예로 들어 가장 쉽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요. 여러분들 나칠계님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흠…. 가끔가다 이상한 질문하여 사람을 웃기는? 저팔계 닮은 여러 가지 특징을 보이는? 뭐 더 자세한 이야기는 듣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 이름을 통해 나칠계님이 가진, 남과 구별되는 특성을 확 떠올리게 되지요? 그런 점에서 이름은 매우 편리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름으로 떠올리는 나칠계님의 모습이 나칠계님의 전체적인 모습일까요? 좀 거시기한(?) 그 특징 말고 나칠계님의 전체적인 모습은 그 이름의 그늘 아래 가려집니다. 그런 식으로 나칠계님의 이름을 통해서 받는 대표적인 인상만으로 나칠계님을 생각한다면 참된 나칠계님에 대한 올바른 앎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참된 나칠계님의 전체적인 모습은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요) 이름은 단지 가리키는 수단일 뿐인데, 수단이 수단으로 그치지 않으면 왜곡과 집착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왜곡과 집착이 심해지면 이름과 존재를 동일시하거나 신비한 연관성으로 맺어져 있다는 생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의 이름인 경우에는 그런 경향이 심하고, 자신의 이름의 경우에는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렵다구요? 그럼 서유기에서 문제 삼는 점만을 중심으로, 가장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사람 이름을 빨간 글씨로 쓰면 안 좋다는 생각 가진 분은 없나요? 많은 분들이 끄덕이시네요. 그런데 왜 그렇지요? 이름과 자기가 무슨 관계가 있기에, 이름 빨간 글씨로 쓰는 것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나요? 고대에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판에 새겨 놓고 그 판을 창이나 칼로 찌르는 방식으로 저주를 했다고 하네요. 이름과 사람이 무슨 관계가 있기에요? 이러한 물음을 던져보면 이름에 대한 집착이 확실하게 드러나지요? 강도에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나와 이름을 동일하게 보는 의식이 바로 이름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완성된 인격을 지향해 나가는 수행의 과정에서는 큰 장애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에 대답하면 빨려 들어가 녹아버리는 신비한 병은 바로 이름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일어나는 수행상의 장애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손오공은 어떨까요? 이름에 대한 집착을 벗어났을까요? 그래서 신비한 보물단지에 빨려 들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혹 빨려 들어간다면 어찌될까요?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세요.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그 절집의 빛

⑨ 청도 운문사 처진 소나무

소나무, 푸르른 不立文字의 方丈

소나무 민족, 소나무 문화

우리민족은 소나무 민족이라 해도 지나침이 없다. 소나무 가지를 엮은 금줄로 신성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남을 알리고, 소나무로 지은 집에서 솔가지로 불을 지펴 밥을 지어 먹고 산다. 죽어서는 소나무로 만든 관에 들어가 솔숲이 있는 산에 묻힌다. 삶과 문화에 소나무 유전자가 깊숙이 유전하고 있다. 2006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민족이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간적 · 시간적 동질감을 바탕으로 형성되어온 문화 중에서 대표성을 가진 100가지 상징을 뽑아 〈100대 민족문화상징〉을 발표했다. 식물 중에서는 정자나무와 함께 소나무가 응당 꼽혔다. 애국가에서는 남산 위의 저 소나무를 민족의 기상으로 받아들인다. 지난해 한 정당의 이름 공모에는 〈소나무당〉이라는 당명이 막판 최종심사까지 오른 적이 있으니, 과히 '소나무 문화'의 나라라고 할만하다. 그런 나라이기에 천연기념물 소나무에 대한 예우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파격적이다. 나무에게 장관급 벼슬을 내리고(정이품송), 호적에 이름을 올려 전 재산을 물려주기도 한다(석송령). 소나무에 대한 기념비적인 예우다.

2014년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자연유산은 총 455건 정도다. 이 중 소나무와 관련된 천연기념물은 곰솔, 백송을 포함해서 총 42건에 이른다(괴산의 왕소나무 포함). 그 중 처진 소나무는 네 그루다. 울진 행곡리 처진 소나무, 포천 직두리 부부송, 청도 매전면의 처진 소나무, 그리고 청도 운문사의 처진 소나무가 그것이다. 운문사의 처진 소나무는 그 수형에서뿐만이 아니라 사찰내의 종교적 상징, 생명에 대한 특별한 행사 등으로 인하여 각별한 주목을 받는다.

500여년 동안 완성한 불국토의 건축

운문사 처진 소나무를 외부에서 보면 초가지붕의 곡선처럼 부드럽고 아늑해 보인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역동적이며 힘찬 기세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3m에 이르는 주간은 역발산기개세의 웅혼한 기운을 내뿜으며 짙푸른 소나무 산을 들어 올리고 있는 형세다. 세상을 떠받치는 세계의 기둥으로 하늘과 땅을 잇는 우주목의 신성함이 역력하다. 우주목의 몸통은 승천의 기세로 용트림한 후 천(千)으로, 만(萬)으로 시방삼세의 시공간으로 뻗쳐 우주법계를 이루었다. 위로, 아래로, 옆으로 때론 솟구치고, 파고들고, 굽히고, 낮추고, 나선형으로 배배꼬고, 그 확산의 형세가 신출귀몰하고 기상천외하다. 나무 밑은 직선과 곡선, 나선의 거대한 만다라이자, 비정형과 비선형, 불규칙의 카오스 세계다. 그런데 전체 수형은 대단히 대칭적이며 안정적이고 조화로우니 귀신이 곡할 지경이다. 마치 고도로 체계적인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공학적이며 역학적인 플랜트 구조물을 완성해둔 듯하다. 그것도 500여 년의 비바람 속에서 오직 침묵으로 완성한 위대한 건축물이다. 나무 아래서 고난의 수행으로 이룬 자연 스스로의 불국토를 만난다. 나무가 이뤄 온 수행의 길을 헤아려 보면 나무가 나무가 아니다. 소우주이자 화엄의 연화장세계다. 그런데도 자신을 한없이 지상으로 몸을 낮췄다.



운문사 처진 소나무 안에서 바라본 모습. 외부의 부드러운 수형과는 달리 내부 모습은 대단히 웅혼하고 역동적이다.



막걸리와 물을 일대일로 희석하여 막걸리 공양을 올리는 학인스님들.

소나무 막걸리 공양은 세계적 사례
50여 학인스님들이 염송하며 공양헌공
소나무 밑은 강의실이고, 배움의 공간
낮춤의 겸손 일깨우는 수행자의 큰스승



운문사 승가대학 학장 일진스님.

운문사 학인스님들의 마음엔 저 나무가 선승이시다. 수행자의 자세를 일깨우는 겸손의 큰 스승이시다. 외경으로 공경하고 특별한 공양을 올린다. 매년 삼월 삼짇날 막걸리 열 두 말 공양을 올린다. 그것도 절집의 독송의식에 부쳐서 예우 올린다. 나무의 건강과 왕성한 생명력을 발원하는 공양행사다. 나무에 종교의식을 거치며 곡식으로 만든 발효주를 공양하는 사례는 세계 유일의 일이 아닐까 싶다. 생명존중에 대한 커다란 울림의 자비행이다. 지난 4월 9일 삼짇날에 운문사에 가서 소나무에 막걸리를 공양 올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드라마틱한 세계적인 장면으로 다가왔다. 감동적이며 가슴 뭉클하다. 생명의 무게를 다는 저울은 어느 쪽으로도 기울여지지 않는다. 소나무에 대한 민족문화의 자긍심이 이보다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은 없다. 운문사 승가대학 학장 일진스님을 찾아뵙고는 무릎 가까이에 앉아 그 내력과 서사들을 들었다.

일 년에 열 두 말 막걸리 공양

70년대 초 내가 학인시절일 때에는 소나무에 막걸리 주는 행사가 없었어요.

승가대학 졸업 후 70년대 후반 다시 운문사로 돌아왔을 무렵에 그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죠. 그렇게 보면 막걸리 공양행사는 40년쯤 되었네요. 공양행사 초창기에는 봄, 가을로 나눠 일 년에 2회씩 막걸리를 줬어요. 봄엔 음력 3월 3일인 삼월 삼짇날에, 가을엔 음력 9월 9일인 중양절에 줬어요. 그런데 청도군청 산림과에서 일 년에 두 번 주는 것은 과하다는 거예요. 이후로 지금처럼 일 년에 1회 행사로 해왔어요.

사람들이 궁금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나무에게 하필 막걸리를 주느냐고? 그 이유를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막걸리를 영양보충 하는 거름의 방편으로 여긴 것은 분명해 보여요. 왜 난초나 정원수 등이 생기가 없을 때 맥주나 막걸리를 주곤 하잖아요, 같은 이치에요. 곡물이 발효된 액체 성분의 거름인 거지요. 나무는 씹을 수 없으니까. 한 번씩 운문사에 다녀가신 법정 스님은 저 처진 소나무를 '주송(酒松)'이라 불렀어요. 막걸리 드시는 소나무라, 하하. 한 때는 또 반송(盤松)으로도 여겼지요. 그런데 엄밀히 반송과는 다르니, 다시 형상을 보고 '처진 소나무'라 부르고 있지요. 여기 운문사 부근에 처진 소나무들이 다수 있어요. 제가 부근의 산을 오르내리면서 곳곳에서 어린 처진 소나무 여러 개체를 만났어요. 이 곳 지형적 특성과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막걸리를 뿌려주는 행사를 삼월 삼짇날에 잡은 것은 한 해 농사의 시작과 관련이 있어요. 음력 삼월에 청명, 곡우 등 봄의 절기가 있잖아요? 농가월령에서 이 시기에 농사를 시작하고 나무를 심지요. 농경사회의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라 보면 될 거예요. 막걸리는 청도 동곡 양조장 막걸리예요. 쌀 7, 밀가루 3의 비율로 섞어 만든 막걸리라 그래요. 청도에서 아주 유명한 막걸리죠. 한 해 12말씩 보내오죠. 그러면 절에서는 막걸리와 물을 1:1로 희석시켜 소나무와 은행나무에 공양 올리는 겁니다.

소나무와 은행나무에 막걸리 공양 올리는 의식은 간단하고 소박해요. 보통 오전 예불이 끝난 10시경에 시작하지요. 학인스님들이 소나무 주위를 둘러서요. 참가하는 스님들은 4학년 대교반 학인스님과 대학원 스님, 그리고 강사스님 등 대략 50여 명이 참여하지요. 둘러 선 후 반야심경을 염송하는 의식을 가져요. 그 후 바로 나무 주위에 막걸리를 뿌려요. 소나무에 12말, 은행나무에 12말씩. 한 시간정도 소요 될 겁니다.

나무가 수행의 길이예요

수행공간은 원래 숲 이예요. 숲의 전체가 총림이잖아요. 나무 아래가 곧 수행공간 이예요. 부처님도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셨죠. 이전에는 여기 종무소 일대가 허름한 땅이었어요. 저 은행나무에 소 매어 두고 그랬죠. 삼사십 년 동안 명성스님을 중심으로 정토로 일궈온 거예요. 그 때는 강의실도 부족해서 따뜻한 봄날이면 소나무 밑에 둘러앉아 책을 펴 경전공부를 했지요. 소나무 밑이 강의실이었고, 배움의 공간이었던 거죠. 그 동안 저 소나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학인들의 발자국 소리와 기침 소리, 또 삶을, 수행과정을 지켜보았을까요? 그냥 서있는 나무 한 그루의 생물학적 의미를 뛰어 넘었어요. 나무의 수형(樹形)을 보면 아래로 처져 있잖아요. 저희 같은 수행자에겐 수행이 깊을수록 나를 낮추는 수행자의 덕목을 일깨워 줘요. 겸손의 덕목을 말없이 가르치는, 겸손의 큰 스승 이지요.

제 생각은 그래요. 나무가 도량 한 자리에 10년 이상 서있었다면 나무도 그 자리를 차지할 권리를 가졌다고 봐요. 함부로 베어낼 수 없죠. 한 자리에서 수처작주(隨處作主)가 된 거죠. 한 자리에 500년, 600년 뿌리내린 나무를 바라보는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인도여행을 다녀와서 가진 생각이 그래요. '나무는 그가 있는 곳이 길이다.' 수행의 길이고, 성찰의 길로 다가오더군요. 나무가 한 자리에 있는 것을 보면 화두 하나를 잡고 선정에 든 선승의 모습과 겹쳐져요. 그래서 나무 한 그루가 인격화 된 스승으로 다가오곤 하지요. 운문사 처진 소나무도 학인들에겐 스승 이예요. 다바라보고 계시죠. 운문사의 조실이고 방장이신 셈이지요. 자연이 말없이 일깨우는 큰 가르침이 있지요. 나무가 길이예요.

일진 학장스님의 소나무 공양 이야기를 듣고는 다시 처진 소나무 아래로 들어가 보았다. 나무줄기들의 기묘하고도 복잡한 결구들이 깊은 인상을 남긴다. 빈 공간을 전체 형태의 골간을 예리하게 짜맞추며 비선형의 씨줄날줄로 역학적으로 건축한 탁월한 경영능력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용트림 하는 가지를 통해 무질서 속의 조화의 길을 본다. 역학의 불규칙 속에서도 전체적인 통일의 아름다움을 엮어낸 과정은 한 편의 영화요, 장대한 다큐멘터리가 아닐 수 없다. 500여년의 역사로 이룬 안정적인 대통일장의 구조, 그것은 모순과의 투쟁 속에서 성취한 주인됨의 거룩한 승리다. 수처작주의 빛은 무량수(無量壽)의 만고에 푸를 것인데, 저기 오백 년 푸르른 방장이 불립문자로 계시는구나.



노재학(불교미술 사진작가)





하룻밤 詩 100수 쓴 속작가… 유불 교유 즐겨

억불시대, 불교를 만난 유학자

⑳ 오산 차천로

차천로(車天輅, 1556~1615)는 조선 중기 문장가로 한호(韓濩), 최립(崔　)과 함께 송도삼절(松都三絶)이라 칭송되는 인물이다. 그의 자는 복원(復元), 호는 오산(五山), 난우(蘭㕑), 귤실(橘室), 청묘거사(淸妙居士)를 썼다.

그는 출중한 글재주로 선조의 총애를 받았지만 평생 하급관직을 전전하며 고단한 삶을 살았다. 연유는 과거 시험 대작(代作) 사건과 개성출신이라는 지역적 한계 때문이다. 조선이 건국 된 후 개성 출신의 과거 정지이유는 다분히 정치적이었다. 이중환(李重煥, 1690~1756)의 〈택리지〉에 "태조께서 공양왕의 선양을 받아 수도를 한양으로 옮겼는데 고려의 신하였던 세가와 대족들은 신하로 섬기고자 하지 않아 모두 남고 따르지 않았다. 그들이 사는 동네를 두문동(杜門洞)이라고 하였다. 태조께서 (이들을) 미워하여 백 년 동안 (개경 출신) 선비와 자제의 과거를 정지시켰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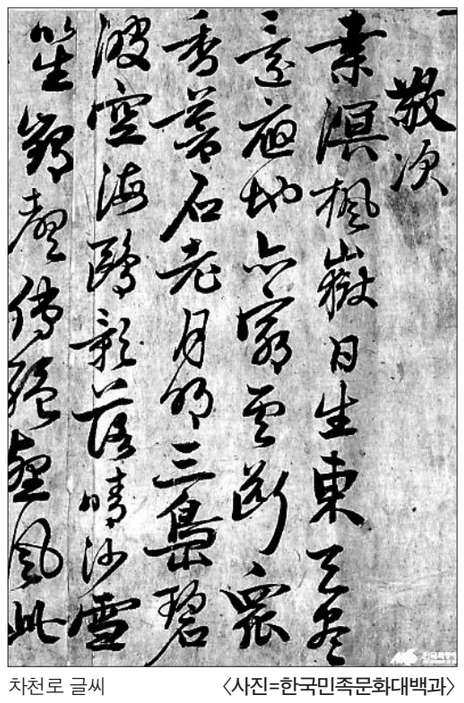
원래 그의 가문은 고려의 명문거족이었지만 조선이 건국된 후 멸문의 화를 입었다가 세종 때에 부친 차식(車軾)이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에 나가면서 점차 가세가 회복되었다고 한다. 특히 그의 부친과 아우 운노(雲輅)는 모두 문장에 뛰어났기에 북송의 삼대 문장가인 소순(蘇洵), 소식(蘇軾), 소철(蘇轍) 삼부자에 비견되었다. 이런 사실은 홍만종(洪萬宗, 1643~1725)의 〈순오지(旬五志)〉에 "차식 삼부자의 문장은 미산의 삼소와 같다(車軾三夫子之文章 猶眉山之三蘇)"고 한 것에서 확인된다. 당시 차식 삼부자의 문장이 얼마나 출중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1577년 알성문과에서 병과에 급제해 개성교수(開城敎授)를 지냈다. 알성시(謁聖試)에 정자(正字)로 있었을 때에 고향 사람 여계선(呂繼先)의 답안을 대작해준 일이 발각되어 국문을 받았다. 〈선조실록〉 19년 10월에 "선조는 차천로의 대작 사건을 유림의 천만년 동안 씻을 수 없는 수치"로 간주했을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조는 그의 재주를 아껴 삼년정배(三年定配, 삼년 동안 유배됨)만을 내렸을 뿐이다. 당시 사람들이 모두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조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선조의 그에 대한 배려는 세심하였다. 김득신의 〈종남총지(終南叢誌)〉에는 명주에 부임하는 북병사(北兵使)에게 차천로를 당부할 정도였다고 하였다. 그가 1588년 11월경에 유배지에서 풀려나 승정원으로 복귀한 것도 선조의 배려였다.

그의 글재주는 얼마나 대단했던 것일까. 결론적으로 그는 속작(速作)뿐 아니라 다작(多作)에도 남다른 재주를 가졌다고 한다. 남용익(南龍翼, 1628~1692)은 〈호곡시화(壺谷詩話)〉에 "(차천로) 자신이 말하길 만리장성에 종이를 붙여 놓고 내가 말을 달려 글을 쓴다면 만리장성이야 끝이 있겠지만 나의 시는 끝이 없을 것(自言貼紙於萬里長城 使我走筆則城有盡 而我詩不窮云)"이라며 차천로의 호언장담을 증언하였다. 또한 글재주 하나로 거둔 그의 외교적인 성과는 그의 〈행장(行狀)〉에 자세한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천로가 교유했던 오대산 상원사의 전경. 〈사진제공=상원사〉



차천로 글씨 〈사진=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신 요구도 단번에 해결한
速作 · 多作 능력 갖춘 문장가
시험 代作해 한직 머물러도
도인 풍모로 승려들과 교유

중국 사신 주지번이 평양성에 들어와 〈회고시(懷古詩)〉 100수를 지어 날이 밝기 전에 올리라 하였다. 밤이 짧아 시를 지을 수 있는 자가 없었다. 백사 이항복은 '오산이 아니면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는 좋은 술 한 동이와 병풍 한 틀, 한석봉이 (시를) 쓰기를 청하였다. 술 십여 잔을 마신 후 병풍 안으로 들어가 한석봉이 종이를 펴고 붓에 먹을 찍어 준비하자 그가 큰 소리로 시를 읊는데 물이 솟고 바람이 부는 듯했다. 밤이 깊어지기 전에 시 100수를 다 지었다. 닭이 울기 전에 (주지번에게) 나아가 올리니 중국 사신이 불을 밝히고 다 읽지도 않았는데 손에 잡았던 부채를 두드려 부서졌다. 우리나라의 문장이 중국에 유명해진 것은 그의 공이 컸다(天使朱之蕃入箕城 使製懷古詩百韻 未曉以進 方短夜 無可能者 李白沙公曰 非五山 無可當之 公請旨酒一盆 大屛一座 韓石峯筆 痛飮數十鍾 入屛內 石峯展紙 濡筆臨之 公卽高聲大唱 水涌風發 夜未半 百韻已成 鷄未唱進呈 天使秉燭讀未訖 所把之扇盡扣碎之 我東文章之著於中國 五山之力居多)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명나라 사신의 횡포는 대단했던 듯하다. 하룻밤 사이에 시 100수를 지어 바치라는 사신의 말은 거역할 수 없는 강대국의 위세였다. 백사 이항복도 조선이 자랑하는 문장가였지만 이 요구를 감당하기엔 부담이 되었던지 차천로를 천거하여 사신의 요구를 일거에 해결하였다. 실제 명나라 사신 주지번의 이런 무례한 요구는 조선 왕실의 권위를 무시하고 조선의 선비를 발아래 두려는 속셈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에 굴복할 조선이 아니다. 선비의 도리는 학문을 갈고 닦는 일이기에 대내외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도 선비의 규범은 사라지지 않았다. 물론 차천로의 재주야 하늘이 낸 것이지만 그를 길러낸 토양은 조선의 사회적인 여건이라 하겠다.

그가 승려들과 교유했던 여정은 문집을 통해 확인된다. 오대산 상원사와 금강산, 문수사(文殊寺), 지족사(知足寺) 등을 유람했고 설감(雪鑒), 성민(性敏), 신찬(信贊) 이외에도 이름을 밝히지 않은 승려들과 교유했던 흔적이 보인다. 특히 행주의 새 절과 정토사 중창불사를 위해 〈행주신찰권선문(幸州新刹勸善文)〉, 〈정토사중창모재권선문(淨土寺重刱募募財勸善文)〉을 지었다는 사실이 돋보인다.

그가 1593년에 지은 시를 가져온 성민(性敏) 스님에게 화답한 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삼생의 바위에서 삼생의 꿈을 꾸니
(三生石上三生夢)
일편의 산 끝, 작은 구름이로다
(一片山頭一片雲)
자재는 응당 백업을 내보내는 것일 뿐
(自在æ應輸白業)
진여를 어찌 현문에 숨길까(眞如何用隱玄文)
산속의 사찰에다 일신 살 곳 정하니
(禪枝慧窟身方定)
욕해와 천상의 길이 이미 갈라졌네
(慾海空天路已分)
일찍이 원공 찾아 절에 들어가길 구하니
(會逐遠公求入社)
진징군에 미치지 못함을 마음으로 알았네
(心知不及晉徵君)

이미 그는 불교의 삼생을 요해(了解)했으며 유불의 아름다운 교유 호계삼소(虎溪三笑)로 알 수 있었다. 진여와 자재, 백업, 현문 등의 불교 교리에도 자유자재했던 것은 독서 때문일 것이다. 일필(逸筆)로 "삼생의 바위에서 삼생의 꿈을 꾸는" 이치를 드러내 "일편의 산 끝, 작은 구름"에 짝을 맞춘 그의 시는 분명 공 도리를 터득한 이의 말일 게다. 그가 말한 자재(自在)란 걸림이 없는 세계이다. 이미 그는 마음의 번뇌가 떠난 경지를 이룬 선비였던가. 그러기에 진여를 숨길 필요가 없다고 했을 것이다. 더구나 그는 속진이 사라진 곳, 깊은 산 속에 위치한 사찰에 한 몸을 의지했기에 속세와 천상이 나누어지는 경계를 알았던 것이다. 그와 시를 주고받았던 성민 스님을 동림사의 혜원법사에 비유한 의도나 자신을 도진징군(晉徵君, 즉 도연명(陶淵明)에 은근히 견주어 본 종구(終句)는 유불교유의 깊이를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이밖에도 그가 〈취중에 산승(山僧)의 시축(詩軸)에 쓰다〉라는 시에서도 유불 교유의 단단함을 이리 표현하였다.

창려(한유)가 서문을 지은 건 문창 때문이고
(昌黎作序緣文暢)
광록(안연지)이 시를 쓴 것은 혜휴를 위해서라
(光祿題詩爲惠休)
늙은이 몽당붓을 사양하지 않으니
(老子不辭拈禿筆)
고승이 한사코 무심한 마음을 물어 보네
(高僧剛解問虛舟)
청천에 구름 걷자 비로소 비가 멎었고
(雲開碧落初收雨)
수목에 바람 이니 가을이 다가왔네
(風　靑林政値秋)
취해서 초가집에 누웠다가 다시금 궤에 기대어
(醉臥茅　(還隱几)
가만히 남악을 바라보니 환하게 수심 사라지네
(靜觀南岳豁窮愁)

당시 시에 밝았던 승려들이 자신의 시축에 명망이 있는 선비의 제발(題跋)을 받는 건 당시의 시류였던 듯하다. 당대의 대문장가로 척불론(斥佛論)을 주장했던 한유도 문창 승려에게 〈송부도문창사서(送浮都文暢師序)〉를 지어 주었고 안연지(顔延之) 또한 혜휴(惠休)를 위해 시를 지었다. 그러나 그 자신은 몽당붓처럼 변변치 못한 사람인데도 고승이 찾아와 허주(虛舟, 텅 빈 배)를 물었다는 것이다. 그의 경지는 바로 "청천에 구름 걷자 비로소 비가 멎었고/ 수목에 바람 이니 가을이 다가왔네"와 같다. 이미 허주처럼 텅 빈 그는 도학자의 풍모를 지닌 듯하다. 〈산인(山人) 신찬(信贊)이 술을 가지고 찾아왔기에(山人信贊 携酒見訪)〉에는 승려와의 깊은 교유가 드러난다. 이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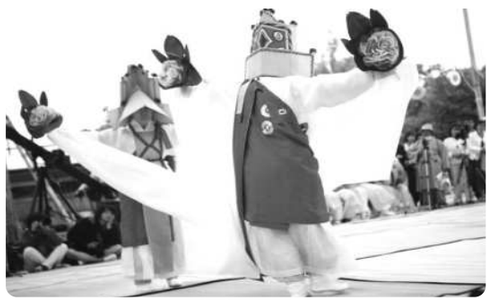
스님은 내가 벽처에서 빈한한 걸 알고서
(沙彌知我索居貧)
글 배우는 사람처럼 술 들고 찾아 왔네
(載酒還同問字人)
꽃잎 질 때 문을 닫고 서책을 덮었더니
(門掩落花抛簡牘)
석양 질 때 석장 짚고 속세를 방문했네
(錫飛斜日訪風塵)
나른하게 완적처럼 눈을 돌려 부화한 세상 보며
(　阮眼看浮世)
한가롭게 은산과 이 신세를 비웃었지
(閒對殷山笑此身)
춘광(술)에 보답할 기회 응당 있을 테니
(報答春光應有地)
취중에 내뱉은 말 바로 내 진심일세
(醉來披豁是吾眞)

그를 찾아온 신찬 승려는 예의가 바른 수행자였다. 그러므로 제자가 스승을 찾아올 때처럼 봉물(奉物)로 술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더구나 지는 꽃을 감상하던 한가로운 그에게 찾아온 객은 바로 신찬 승려였다. 그러기에 "나른하게 완적처럼 눈을 돌려 부화한 세상 보며(　阮眼看浮世)/ 한가롭게 은산과 이 신세를 비웃었지(閒對殷山笑此身)"라는 것이다. 이는 정겨운 유불교유의 현장을 눈으로 보는 듯하다. 이 시에 "완안(阮眼)"이란 고사(故事)는 〈세설신어(世說新語)〉에 "진(晉)나라 완적은 예절에 구애를 받지 않고 청안(靑眼)이나 백안(白眼)으로 사람을 대하였다. 속된 사람을 보면 백안으로 대하다가도 혜강(ｷ康)이 만취(滿醉)하여 거문고를 가지고 찾아오면 매우 기뻐하면서 청안으로 대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술을 가져온 신찬을 혜강에게 비유하였다. 신찬을 뜻이 통하는 지기(知己)라 여겼던 그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취중에 진심을 전하는 관계, 그와 신찬은 이렇게 뜻이 통했던 지기였던 것이다. 그러기에 그는 허주의 깊은 경지를 "말없는 말(無言之言)"로 전했을 것이다.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제 10 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6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 TEL 054) 974-2605 /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지킴이 염주 세트
직경 8㎜
· 구　성 : 108염주 + 희담석지킴이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2㎜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0㎜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www.hyunbulshop.co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 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니까야서 길을 묻다 10. 불교 명상의 의미 ④

불교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

컴퓨터 게임에 열중한 모습은 하나의 대상에 몰입되어 있는 명상의 특성과 유사한 듯 보이지만, 이때의 마음 상태는 신경계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러니까 탐욕, 분노, 무지를 멈추고 고요한 상태에서 하나의 대상에 온전하게 집중된 상태를 지향하는 명상과 달리, 흥분으로 들떠 있는 상태를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더 많은 쾌감과 흥분을 누리고자 하는 모습에서 명상에 내재된 특성과는 거리가 있음을 확인해보았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명상의 특질은 '마음이 그 어떤 감관대상에도 구속되지 않음'(解脫)을 추구한다는 것' 또는 '탐욕, 분노, 무지 따위가 마음을 그르치지 않아서 온전한 평온을 누리고 있는 상태'(涅槃)에 이르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곧, 계율과 더불어 불교명상은 해탈과 열반이라는 불교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공부 영역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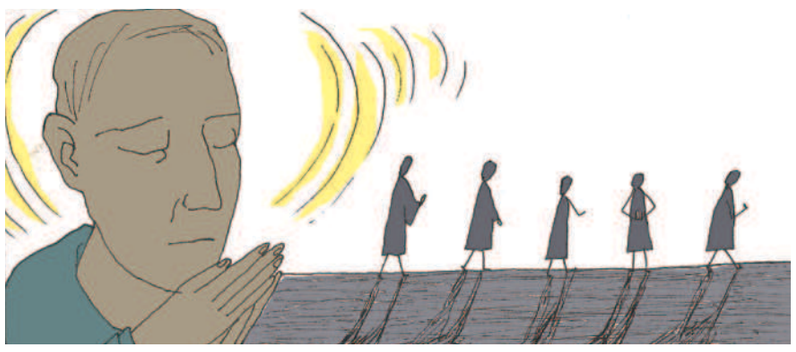


그림 · 나은영

이 말에 따르면 불교 명상이 해탈과 열반을 이루기 위한 또 하나의 공부영역인 계율과 동일한 위상을 지닌다는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나아가 지금까지 계율 정신으로 설명해온 '계학(戒學)'은 명상의 원리와 실제에 대한 이론체계인 정학(定學)과 동등한 위상을 지니고 있다는 설명이며, 이 점은 세 번째 공부 영역인 '지혜의 갖춤을 지향하는 사유체계'(慧學)의 위상도 마찬가지로 동일 선상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란 이와 같은 '계정혜(戒定慧)' 세 가지 공부에 동일한 가치를 두어 어느 하나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에서 그 정신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계정혜' 삼학(三學)의 위상인 것이다.

이에 따르면, 명상을 만병통치의 약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된다. 명상이란 일상에서 갖가지 문제 상황이 발생할 때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키우는 훈련이고, 몰입의 방법을 통해서 부적절한 마음상태의 그침과 고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상의 면모 하나가 발견된다. 나아가 감각 대상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거기에 내재된 규칙성을 파악함으로써 지혜를 성취하게 되는 또 하나의 면모가 드러난다. 이것이 명상수행을 구성하는 두 축이라는 점으로 이해하면, 명상의 위상은 어디까지나 계율과 지혜의 사이에 있는 까닭이다.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니까야〉에서 하나의 명상법을 안내하는 설명에서 계율지킴의 밑천으로 시작해서 지혜 성취의 마무리로 구성되어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주 목격하게 되는 것도 이와 같은 지평에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정한 스승을 만나 특정한 명상의 방법을 익혀 그것만이 수행이고, 불교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기는 태도가 생겨난다면 이는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된다. 물론 명상은 한 개인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정한 하나의 명상법이 다른 것보다 처음부터 우위에 있다는 주장을 사실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그러한 주장을 펼치려면 바로 그 체험이 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니까야〉에 따르면, 하나의 수행이나 명상법이 가치가 있을 경우 '탐욕과 분노와 무지의 그침 또는 소멸' 여부가 하나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탐욕과 분노와 무지의 그침 또는 소멸'을 지향하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 그 사람의 일상을 불교적으로 말하고, 불교적으로 생각하며, 불교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꾸려간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인 것이다. 하나의 특정한 방법을 익히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다.



김준호(불교철학/울산대 연구교수)

빈곤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사)굿월드자선은행은… 2001년 전북지역 불자 30명 소년소녀가정 어린이들의 장학금 지원사업을 위해 '자선은행'으로 시작됐다. 초대 이사장에 이상직(이스타항공 회장)이 취임했고, 2016년 2대 이사장에 양종헌(주 트랜스헬리 이사) 이사장이 취임했다. 2009년 (사)굿월드자선은행으로 재 출범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진은 2005년 굿월드의 지나데이케어센터 학용품 전달식 모습이다.

道伴의 향기

어린이 구호단체 NGO
(사)굿월드자선은행

빈곤, 지금까지 인류에게는 여러 형태의 '빈곤'이 있어왔다. 그 중에서 부(富)의 차별화로 인한 물질적 빈곤의 문제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의 '빈곤'이다. 하지만 부의 차별화에서 시작된 물질적 빈곤의 문제는 상대적인 '인식'의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나 인류 전체가 전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책임져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각자의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부의 차별화'를 논하기 이전의 문제인 '절대적 빈곤'의 문제는 이야기가 다르다. 원인이 무엇이든 사회적 차원과 인류적 차원의 고민과 해결을 위한 실천이 있어야 하는 문제이다. 그 근거는 그 절대적 빈곤의 원인이 대부분 선택이 아닌 불가피성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것이고, 그 불가피성이라는 것은 그 사회와 그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직간접으로 관여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고민의 근거를 부처님 말씀으로 이야기 한다면 다름 아닌 '인연법'일 것이며, 그 실천은 '회향'일 것이다. 그 중 그 빈곤의 문제가 아동의 문제일 때는 그야말로 사회적, 인류적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할 문제이다. 그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모인 불자들이 있다. 어린이 구호단체 NGO '(사)굿월드자선은행(이사장 · 양종헌)'이다.

어린이는 보호되어야 하는 '미래'

국적과 민족, 종교와 문화, 정치와 지역을 초월하여 이 땅에서 절대적 빈곤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만들어진 (사)굿월드자선은행(이하 굿월드)은 2001년 전북 지역(금산사, 송광사, 대원사)의 불자들 30여 명이 모여 지역의 소년소녀가정 어린이들의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됐다. 모두에 언급한 것처럼 소년소녀가정의 어린이들이야말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불가피성의 원인으로 인한 절대적 빈곤을 겪고 있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장학금은 한 계좌당 월 3천원의 후원금을 모금하여 마련하기로 했다. 3천원짜리 후원 계좌 30 개. 굿월드는 그렇게 시작됐다. 거창한 발족식도, 모금을 위한 성대한 행사도 없었다. 특별히 앞에 나선 사람도 없었다. 어느 날 누군지도 모르는 입에서 어린이를 돕자는 말 한마디로 시작됐다. 그렇게 모인 단체가 현 굿월드의 전신인 '자선은행'이다.

"진정한 구호는 변화시키는 것"

2001년 전북지역 불자 30인 창립
소년소녀가정 어린이 장학사업 시작
한 계좌 3천원, 30계좌 3000계좌로
국내 250명, 해외 52명 장학금 지원

"어린이는 작게는 부모의 책임과 크게는 사회의 책임으로 보호되고 길러져야 하는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정의 미래이고, 한 사회의 미래인 것이죠. 그런 어린이가 절대적 빈곤으로 인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하는, 아니 최소한이라도 누려야 하는, 어린이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하는 일상과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회가 바라봐야 할 가장 시급한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은 그 어린이에게 그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다름 아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선은행'은 절대적 빈곤으로 인해 '최소한의 교육'에서도 멀어질 수 있는 어린이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양종헌 이사장의 말이다.

후원 계좌는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 30명이 50명이 되고, 50 명은 100 명이 되고, 후원금은 점점 늘어갔다. 자선은행은 어린이들의 장학금 지원뿐만 아니라 독거노인과 차상위 계층의 생활비 지원, 속초지역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무료급식 '자그만 국수집' 운영 등 사업의 영역을 조금씩 넓혀갔으며, 해외지역의 어려움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 해외 재난지역에 구호물품과 구호금을 보내기에 이르렀다.

해외 어린이도 '어린이'

2009년 9월 2일. 자선은행은 이때 '사단법인 굿월드자선은행'으로 재탄생한다. 본격적인 해외 어린이 장학 사업을 위해서다. 당시 자선은행 회원이 필리핀 여행 중에 마닐라 인근 수캇 빠라냐께 다리밑 판자촌을 보게 된다. 주민들은 썩은 물이 흐르는 강물 위에 판자집을 짓고 살고 있었다. 수시로 집들은 무너졌고 주민들은 썩은 강물 위에 다시 집을 지어야 했다. 그들의 힘겨운 생활과 악취가 진동하는 썩은 물 위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은 국적과 인종의 경계를 무색하게 했다. 법인으로 재탄생한 굿월드는 판자촌 32가구의 어린이를 위해 월 1회 쌀 15kg과 학비 500페소를 지원했다. 굿월드는 2012년까지 지원사업을 이어갔으며, 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리핀 정부에 이주대책을 요청했다.

쓰레기 산에 핀 학교

2014년 7월 11일, 필리핀의 라구나주 산페드로시 사우스빌에 유치원(어린이집)이 문을 열었다. '굿월드 사우스빌 스테픈 데이케어센터'다. 굿월드가 세운 학교다. 4~5세의 어린이를 위한 학교로 168명이



“어린이는 한 사회의 미래”



데이케어센터 아이들이 가톨릭 의식으로 아침 조회를 하고 있다.



굿월드자선은행 이사진 모습.



2015년 필리핀 굿월드 데이케어센터의 크리스마스 파티 모습.

정원이다.

필리핀 라구나주 산페드로시 사우스빌 지역은 필리핀 정부가 마닐라 수캇 빠라냐케 다리밑 판자촌 지역 주민을 비롯해 도시 빈민 주민들을 정책적으로 이주시켜 조성한 마을이다. 이곳은 마닐라 등 인근 지역의 모든 쓰레기가 모아지는 쓰레기 매립지이다. 일명 ‘쓰레기 산’으로 불리는 곳이다. 이 마을에는 약 2500가구 1만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대부분의 가정은 편부모 가정이거나 조손가정으로 열악한 환경의 가정이 대분이다. 주민의 절반 정도는 도시로 나가 일을 하고 절반은 쓰레기 매립지에서 재생품 수집 등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아이들의 생활과 교육은 ‘열악’ 그 자체다. 2013년 굿월드의 지속적인 이주요청으로 수캇 빠라냐케 다리밑 판자촌 주민들이 이곳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굿월드는 이곳에 주목하게 됐고, 유치원을 세우게 된 것이다.

“필리핀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주를 시키긴 했는데,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유치원 졸업장이 있어야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치원을 지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학교를 짓는 일은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특히 재정적으로 쉽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가 필리핀에 유치원을 짓겠다고 하니까 후원금이 늘더라고요.” 현장 주민들과 함께 공사를 진행한 김규환 사무국장의 말이다.

7개월의 공사 끝에 유치원은 문을 열었다. 교실 3칸, 주방 1칸. 공사는 현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리는 그들에게도 ‘참여’라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1회성의 원조가 아니라 그들에게 ‘삶’의 모습을 가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굿월드는 같은 해 10월 13일, 필리핀 까비떼주 망가한시 제네럴 트리우스 판자촌에도 같은 형식의 ‘지나데이케어센터’를 개원했다. 역시 4~5세 어린이를 위한 유치원이며, 정원은 34명이다. 두 유치원 모두 교육과정은 2년으로 유치원의 교육 시스템을 필리핀 정부에서 진행하고 굿월드는 어린이들의 식사와 학용품, 의류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해외 장학사업 재난지역 구호사업

2014년 필리핀에 유치원 2곳 개원
“구호가 포교의 수단 되어선 안 돼”
매년 필리핀 어린이 202명 지원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매일 꿈을 꾸어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꿈을 꾸었어요. 우리는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어느 나라에 사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모두를 사랑해요. 우린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른들이 우리를 이끌어 주어야 해요. 〈중략〉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나라를 만들 꿈을 꾸어요.”

노래에 맞춰 굿월드 사우스빌 스테픈 데이케어센터의 졸업생 어린이 168명이 댄스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며칠 후에 있을 졸업식 공연을 위한 연습이다. 필리핀에서는 시 전체 어린이들이 한 체육관에 모여 졸업식을 한다고 한다.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말 할 줄 모르고 나서지 못하던 아이들이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자신 있고 활발하게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진정한 구호와 진정한 보시는 1회성의 원조가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변화된 모습은 아이들만이 아니었다. 아이들의 부모들 역시 아이들의 학교를 손수 지으면서 삶을 대하는 자세가 확연하게 달라졌다. “나 뭐 하면 되요?”

“그거 내가 할게요.” “‘그건 뭐하러 해? 그걸 내가 왜 해?’ 하던 주민들이 그렇게 달라졌어요. 지금은 무엇이든 서로 하려고 합니다.”

“당신들은 왜 우리를 돕는 거죠?”

“저희들(굿월드)의 다음 사업은 해외 보건소 설립입니다. 굿월드가 하고 싶은 일은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고, 아픈 사람에게 약을 주고, 아이들에겐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은 종교나 사상, 국적, 인종을 내세울 일이 아니며 동시대를 살고 있는 인류가 인류에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중 누군가 묻더군요. 당신들은 왜 우리를 돕느냐고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불자들입니다. 불자란 무엇이냐. 부처님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라고요. 필리핀은 가톨릭을 주종교로 하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부처님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아무런 거부감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많은 구호단체와 봉사단체가 포교를 염두에 두고 현장을 갑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보시’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보다 우선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포교는 종교를 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일이 부처님의 삶이라는 것을 알리고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명의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는 굿월드는 지금까지 국내 어린이 250여 명과 해외 어린이 52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고, 매년 필리핀 어린이 202명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30명으로 시작한 후원인은 2016년 현재 3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Good World를 위해

우리는 누구나 어린이였다. 매일 꿈을 꾸는, 누구든지 사랑하고, 어른들이 이끌어주어야 하는.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 시절의 기억대로 살지 못한다. 앞서 말한 절대적 빈곤을 인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아마도 인류의 대부분이 그 어린이의 기억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절대적 빈곤을 일으킨 불가피성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그 결과들이 그 동심의 상실에서 기인한 것은 아닐까.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동심을 유지하지 못한 결과들이 만들어낸 우리의 인연법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더 많은 제2, 제3의 굿월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good world(굿월드)를 만드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굿월드는 오늘도 good world를 만들기 위해 힘겨운 어린이들을 찾아 나선다. (사)굿월드자선은행 후원전화 1661-9585.

박도일 수필가

전법일기

“원장 시님은 언제 성불하세요?”

내가 있는 구미 연꽃어린이집의 하루는 여느 어린이집보다 조금 더 시끌벅적하게 시작한다. 평소, ‘생각 주머니’를 키우는 놀이 위주로 생활하다보니 우리 친구들의 수다는 끊일 날이 없다.

“원장 시님, 제가 어제 밤에 생각한 건데요”로 시작해서 기발하고 자유로운 생각에 대한 수다들이 쏟아진다. 연꽃어린이집의 친구들의 입 속에서는 매일 연꽃향기와 연꽃 소리가 진동한다.

우리 연꽃둥이들은 나뿐만 아니라 어느 스님을 만나더라도 늘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큰 소리로 인사한다.

“원장 시님, 성불하십시오.”

하루에 열 번을 만나면 열 번을, 이렇게 인사한다. 화장실에서 만나도, 놀이터에서 만나도 늘 ‘성불하십시오’라고 인사한다. 하루는 한 아이가 물었다. “원장 시님, ‘성불하십시오’는 무슨 인사에요?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는 거여요?”

아이가 가진 불교에 대한 호기심이 반가웠다. 즉시 대답해줬다. “‘성불하십시오’는 ‘부처님 되세요’라고 인사하는 거야.”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던 아이가 다시 묻는다. “그럼 원장 시님은 다시 아기가 되라는 건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재차 물어보니 돌아오는 아이의 답변에 말문이 ‘탁’하고 막혀왔다.

“원장 시님이 맨날 우리보고 ‘아기 부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원장 시님한테 ‘아가 되세요’라고 인사하는 거에요?”

내 말문을 막아놓고 아이들은 “아~ 원장 시님도 노란연꽃반하고 싶었구나. 우리랑 같이 놀고 싶었구나”라고 약을 올리면서 떠든다. 이럴 때면 요즘 말로 ‘대략 난감’하다. 이런 천진무구함을 어디서 만날 수 있으랴.

좀 더 시간이 지나자 하루 열 번씩 인사하는 것이 아이들도 귀찮아졌나 보다. 또 다시 한 연꽃둥이가 나를 불러 세우고 질문을 쏟아냈다.

“원장 시님~ 시님은 언제 성불하세요?”

매우 근원적이면서 수행자에게는 곤란한 질문이다. 당황하는 나에게 “원장 시님이 성불하면 우리가 ‘성불하세요’라고 인사 안해도 되잖아요”라고 쐐기를 박는다. 졌다. 나의 완벽한 KO패다. 빨리 성불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얼른 자리를 떴다.

다음 날, 그 아이를 복도에서 다시 만났다. 아이가 당장 나를 반짝이는 눈으로 쳐다보면서 “원장 시님, 혹시 오늘은 성불하셨어요?”라고 묻는다.

“음, 아니. 아직...”

“그럼 내일은 꼭 성불하세요.”



그림 · 박구원

다음날도 만난 그 아이는 다시 나에게 성불 여부를 물었다.

“원장 시님, 혹시 오늘은...”

“음, 오늘도 아직 아니야. 오늘도 ‘원장 시님 부처님 되세요’라고 인사해줘.”

“네~ 원장 시님. 성불하십시오.”

어린이집에 오자마자 교무실로 뛰어와 “원장 시님, 나 좋은 생각이 났어요” 하고 큰 소리로 말해주는 친구들. 모두 친구, 어린이집, 원장 스님 생각뿐이다. 이런 ‘어린 부처님’을 모시고 살면서 어찌 수행을 게을리 할 수 있을까?

어릴 적 노스님이 목욕을 시켜주시면서 몸의 때는 때수건으로 닦아내도 마음의 때는 너 자신이 밀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다. 그러면서 알려주신 것이 내 인생의 화두가 된 〈반야심경〉이다. 이 마음으로 나는 연꽃어린이집 대장 노릇을 씩씩하게 하고 있다.

“그나저나 우리 친구들에게 ‘성불하십시오’ 인사를 안 들으려면 빨리 성불해야 할 텐데. 정말 어떻게 하지?”



경륜 스님(구미 연꽃어린이집 원장)

신성불상

부처님 조성 | 도금(진공)
개금 | 기계개금(순금증착)
천불전 | 삼천불전 | 만불전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장인의 손을 거쳐 지금은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불사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표 한광식





동불 | 특수불 | 바베트

신성불상 ☎ 031-533-7724. 010-5223-5174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62-6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연등(등표)사다리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행렬 용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그릇됨에 집착하는 견해를 떠나라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진여에 들어가는 것을 장애하는 인아견(人我見)을 본문에서는 다섯 가지로 설명한다. 이 가운데 먼저 공에 떨어지는 것을 경계한다. 여래의 법신이 공한 것이라거나 모든 존재의 사물들을 공하다는 쪽으로만 보면 진여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반야부(般若部) 계통의 경전에서는 흔히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결국 그 본성이 공한 것이다. 열반이니 진여니 하는 것도 본래 공한 것이어서 모든 상을 떠나 있다"라는 말을 듣고, 공하다는 쪽으로만 생각하여 일체가 허무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진여 법신에 일체 부자유스럽고 허위적인 요소가 없다는 의미에서 한 말의 참뜻을 모르고 공에만 치우친 소견을 가지는 것이다. 진여는 공한 반면에 공하지 않는 불공(不空)의 뜻도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공하지만 그 속에 진실하고 자유롭고 지극히 선한 온갖 공덕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무루성공덕(無漏性功德)이라는 마모되지 않는 언제나 한결같은 공덕이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 바 진공묘유(眞空妙有)의 도리이다.

반면에 여래장 안에 일체 공덕의 법이 갖춰져 있다는 것을 듣고 여래장 안에 육체와 정신적 개별적인 근본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릇된 소견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진여는 진실하고 자유로워
언제나 선한 공덕으로 유지

경전 속에 설해진 말에 "여래장 곧 중생의 마음에는 증감(增減)이 없지만 그 자체 안에 온갖 덕성이 다 갖추어져 있다"는 말을 듣고 여래장 속에 물질적 요소와 정신적 요소가 각각 차별되게 있다고 주장하는 그릇된 소견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견해는 경전 속의 말씀이 진여의 면에 입각해서 설해진 것인데 그것을 생멸의 면으로 이해하여 생겨난 오해이다. 다시 말하면 업식(業識)에 의해서 생멸의 양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차별이라고 말하지만 여래장 자체에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다.

고대 인도의 철학 가운데 상키야(Samkhya:數論)학파에서는 우주의 근본적 원리를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의 두 가지 대립적인 것으로 보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 학파의 주장에 의하면 현상세계 전개의 원리는 두 가지 인데, 하나는 정신적인 원리인 푸루사(Purusa)와 또 하나는 물질적 원리인 프라크리티(Prakrti)라고 한다. 푸루사는 지(jna知), 또는 사(cetana, 思)를 그 본질로 하며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다만 프라크리티를 관조(觀照)할 뿐이라 한다. 본질적으로는 하나이지만 무한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푸루사는 생사, 윤회, 해탈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은 인도의 우파니사드 철학 이래 개아(個我)의 실체로 간주된 아트만(Atman)과 동일시되기도 하였다.

물질적 원리인 프라크리티는 활동하는 것을 그 본성으로 한다. 그것은 질료(質料)의 인자(因子)가 되는 것인데, 순수성과 격동성 그리고 무겁고 조잡하고 어두운 요소 등 세 가지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어 푸루사의 관조를 기회인(機會因)으로 그 세 가지 요소 중 격동성이 발동하면 전변(轉變)이 시작된다고 한다.

물질적 원리인 프라크리티는 정신적 원리인 푸루사와 결합되어 있다. 그 결합은 현실적이며, 영원하여 시작이 없는 것이며, 해탈을 통해서 비로소 끝나게 된다. 그 결합 양식은 일종의 병렬식(竝列式) 결합으로 하나의 내적 일치를 이루지는 않는다고 한다.

이와 같은 상키야 학파의 이원론적인, 마음과 육신을 병렬적 결합으로 보는 입장은 마음이 근본적으로 초월적 지혜라는 사실 곧 진여 그 자체라는 사실을 망각하여, 업식이 발동하는 망념의 단계로 끌어내려 그것을 실체인양 간주하는 실재론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불교학자들은 보고 있다.

상키야 학파의 이러한 논리전개가 얼핏 기신론과 흡사한 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숙명론이나 결정론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은 바로 근본 출발에서부터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라 한다. 따라서 기신론 본문에서는 분명히 여래장에 물질적 요소와 정신적 요소가 같이 들어 있다 집착하는 경우를 사견(邪見)이라고 명시해 놓은 것이다.

貧者 구하는 것이 보살의 자비심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⑰ 시주받는 이가 갖는 복덕

施主乞者增長品第四
(시주걸자증장품제4)
有大悲者能處生死。種種施與滅眾生苦。若能如此善住生死。(유대비자능처생사。종종시여멸중생고。약능여차선주생사。)
福德善丈夫 悲心施惠手
(복덕선장부 비심시혜수)
拔貧窮 泥 不能自出者
(발빈궁어니 불능자출자)

번역

시주자와 구걸하는 이에게 증장되는 것에 대해 설명한 품

큰 자비심이 있는 사람은 능히 삶과 죽음에 잘 대처할 수 있나니, 가지가지 보시를 베풀어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기 때문입니다. 만약 능히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면, 생사에 잘 머무르는 것입니다.

복과 덕을 지닌 어진 대장부는 자비심과 은혜로운 손길로 보시하거니와, 가난과 빈궁의 진흙탕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이를 건져냅니다.

해설

이번 '시주걸자증장품제4(施主乞者增長品第四)'에서는 보시를 베푸는 이에게 증장되는 복덕만이 아닌 보시를 구걸하는 이에게까지 증장되는 복덕에 대해 설명하였다.

놀라운 것은 보시가 베푸는 이에게만 지혜와 복덕을 증장시키는 게 아니라 보시를 받는 이도 지혜와 복덕이 증장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네 번째 품의 시작에서 먼저, 보시를 베푸는 이의 자세를 설명하였다.

다시 말하면 어떤 자세로 보시를 베풀어야 보시를 구걸하는 이도 지혜와 복덕이 증장되는지 알려주는 것으로 설법을 시작하는 것이다.

우선, 보시를 베푸는 이는 생사(生死), 즉 삶과 죽음에 잘 대처하며, 잘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보시를 베푸는 이에게 큰 자비심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부분에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든다. 불도(佛道)를 배우는 것이 생사(生死)를 벗어나기 위함이 아닌가? 생사(生死)에 얽매이면 고통과 번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윤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이 부분은 곧 의미를 파악하게 된다.

생사(生死)에 잘 대처하고, 잘 머무는 것은 곧 생사(生死)의 고통에 얽매이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보살이 지녀야할 생사(生死)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라는 사실이다.

〈불설아사세왕경(佛說阿闍世王經)〉에 이르기를, '아사세 왕이 묻되, "무엇이 생사이며, 생사가 없는 것입니까?" 문수보살이 곧 대답하되, "모든 지나가버린 과거를 생각하지 않으며, 오지 않은 미래도 생각하지 않으며, 역시, 현재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는 무상(無常)하거니와, 모든 법은 증장되거나 소멸한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생사(生死)를 짓는 것이 곧 생사(生死)가 없는 것입니다"(阿闍世復問 "何謂生死無生死?" 則言 不念過去以盡。亦不念當來未至。亦不念今 "現在而無常, 於諸法不念有所增有所減, 作者是生死則無生死。")'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생사에 대한 적극적인 보살의 대처와 대 자비심의 보시는 스스로 가난과 빈궁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을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기에 충분할 것이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생활염불

감사하다. 고맙다. 미안하다.

잠자리에 들 때,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그리고 끼니때마다 식사를 하며 걸어 다니며 감사하고 고맙고 미안함을 느낀다. 살아있음은, 살아 손발을 움직일 수 있음은 하나의 축복이요 기적이다. 비어있으면 비어있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하다.

10년 전 새벽, 메주콩 삶는데 쓰일 나뭇등걸을 어깨에 메고 법당계단을 내려오다 나는 앞으로 쓰러졌다. 한쪽 다리와 팔이 기능을 잃어버린 순간이었다. 직감적으로 중풍이 왔음을 느끼고 쓰러진 곳에서 주지실까지 70여 m를 한쪽팔과 한쪽다리와 이겨내야 한다는 의지력으로 온갖 힘을 다해 오게 된다.

중국에서 머문 7년 동안 침술을 익혔고, 티베트에서 3년 머물며 티베트 의학의 기초를 배웠었다. 기어오느라 온몸이 상처투성이였지만 옷을 벗는데도 반쪽기능이 비어있어 힘겨운 일이었다. 알고 있는 상식과 의술을 총동원해 주요 부위마다 침을 꽂고 있었다. 머리, 등 몇 군데에서는 부황으로 피를 뽑고 있었다. 온 몸에서는 땀이 흥건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땀방울이 기적을 몰고 왔다. 기능을 잃었던 팔과 다리가 따뜻해지며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어린 애처럼 기뻐 한 시간쯤 울다가 곤한 느낌에 잠이 들었던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생활염불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로 뒤바뀌었다.

지금은 모든 게 정상이다. 건강을 잃으면 세상을 잃는다. 건강이 흔들리면 세상이 흔들린다. 넘치는 것보다 부족한 것이 마음 편하다. 과욕은 언제나 재앙을 불러들인다. 꾸밈과 조작을 벗어버리면 이르는 곳마다 자유롭다. 감출 것도, 드러낼 일도 없이 자연인으로 사는 삶이 수행자의 삶이다. 부족하나 넉넉하고 비어있으나 당당하다.

마당 쓸고 도량청소하며 빨래하고 설거지 하며 바느질하는 즐거움, 나무며 대숲이며 스쳐 지나가는 바람도 나의 벗이다. 혼자 있으나 여럿과 함께하는 여유로움이 있다. 게으름은 병이다. 집착 또한 병이다. 일을 찾아서 부지런하게 움직인다. 어느 모임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단호하게 정중히 거절한다. 돈과 명예가 나의 건강을 지켜줄리 없기 때문이다.

눈물은 슬플 때 만 흘리는 게 아니다. 감사하고 고맙고 미안해 잔잔한 기분으로 울먹이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세상은 빛과 어둠이 반반이지만 가능하면 긍정적인 착각으로 마음을 열고 세상을 바라본다. 마음을 열고 보면 움직이는 것은 모두 아름답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삶의 지향목표를 돈, 사랑, 성공, 명예, 정의 등에 두고 힘을 기른다. 성취감으로 느끼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다.

그러나 행복을 누리기도 전에 넘치고 지나치고 에너지를 전부 소진해 건강을 잃는 경우는 참으로 많다.

'감사·고마움·미안함' 나의 생활염불
꾸밈과 조작 벗어 버리면 자유롭다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것보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지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손가락 열 개를 움직일 수 있으면 이는 선택된 사람이다. 두발로 걷고 계단을 오를 수 있으면 이는 일상의 기적이다. 화낼 수 있는 것도 기적이요, 웃을 수 있는 것도 기적이다. 법당에서 예불드릴 때도 기쁘지만 나무침대에서 앉아 조는 기분도 솔찬한 행복이다. 돋보기 없이 바늘귀에 실을 꿰는 것도 기쁘지만 한가하게 옷을 수리하는 바느질도 행복하다. 빨래할 때도 설거지할 때도 감사하고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사람들이 죽음에 임박해 남긴다는 세 마디가 내게 있어 생활의 염불이 된지 오래이다. 언젠가는 마지막 그림자를 남겨두고 한 점 바람으로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말겠지만 나는 나의 건강상태를 체크하며 타인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자유로운 여행을 꿈꾸고 있다.

'감사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미안했었습니다'를 나 홀로 있는 곳에서 남길 수 있게.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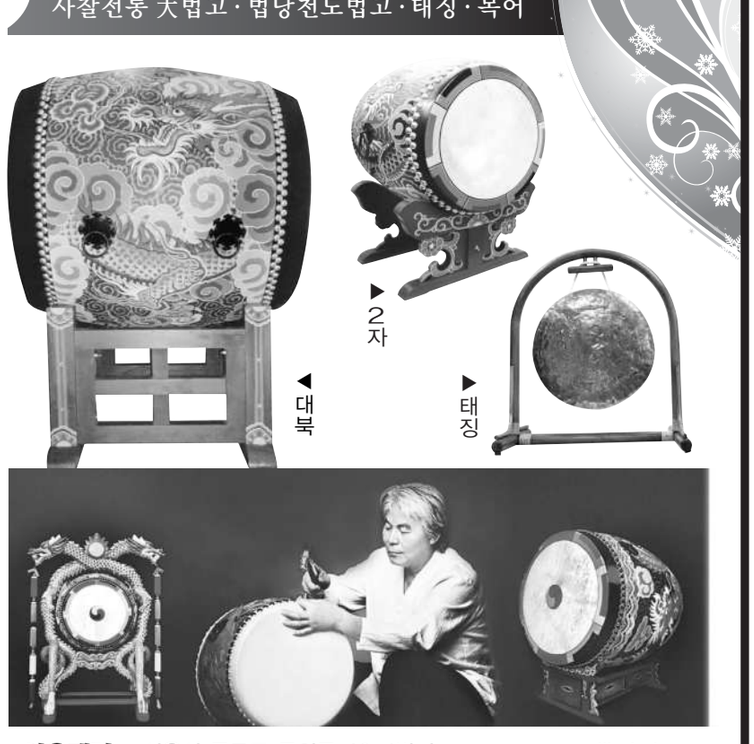
서울·경기 : 02)456-8831 ⋮ 경상도 : 010-4187-0062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 2자
◀ 대북
▶ 태징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공간 속에 '諸行無常' 이치 투영하다

禪과 현대미술
⑧ 에두아르도 칠리다 (Eduardo Chillida)

도시의 빌딩숲 속에 세워져있는 거대한 조각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낯설음에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옆의 빌딩이나, 다른 건축물들과 밀접한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 거대한 작품은 하지만 말없이 침묵하며 시간의 흐름을 보여준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변화해가는 이 조각은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가?

에두아르도 칠리다(Eduardo Chillida, 1924~2002, 스페인)는 커다란 조각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에 대한 물음을 던져주고 있다.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거대하게 제작된 크기의 조각 작품들은 건축물의 일부분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자세히 보면 전혀 다른 형상을 하고 있으며, 또한 자신의 존재성을 드러내는 특정한 형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비정형적인 도형의 집합 같기도 한 작품들은 주변의 건축물이나 자연의 형상들을 침범하지는 않는다. 어떠한 대상의 일부분을 확대시켜놓은 것 같은 작품들은 자신이 놓인 공간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그 긴장감은 다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가져다준다. 마치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관념적 틀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며 지금 다시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자극을 주는 것이다.

칠리다는 자신의 작품에 대하여 '공간, 시간 속의 자유로움'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은 한정적인 때가 많다. 때문에 자신의 삶의 방식도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일상의 익숙함에 길들여지며 자신의 경계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공간에 갑자기 나타난 거대하며 거칠은 조각은 새로운 공간의 질서를 생성시키며 인식의 변화를 유도한다. 작가의 의도적인 설정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과정도 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설되는 고층빌딩들 역시 누군가의 의도에 의하여 아니면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주변과의 관계성이 무시되고 건축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목도해왔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 혹은 이것이 옳은 일인지 생각하고 통찰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이 나타나는 이러한 건축물들은 일상의 삶과 마음마저 변화시킨다.

마치 거대한 물줄기가 만들어 지면 주변의 작은 것들은 송두리째 커다란 물길에 휩싸여 사라지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간의 빠른 흐름과 변화 속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거대한 흐름 속으로 침몰되어 자신의 의도와 상관관계가 없는 상황 속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칠리다는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다시 일상의 공간속으로 들어온 것이다. 공간 속에 설치된 콘크리트나, 철로 구성된 조각 작품들을 통하여 마음의 자유를 찾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보편적인 삶의 과정에서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신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늘 상대하는 자연과 대상이라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다. 반복되는 가운데 변화하는 이치를 알아가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이 계속되면 어떠한 공간속에서도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마치 숲을 도시공간에 옮겨놓은 것 같이 나의 마음이 자유로우면 그 장소가 또는 환경이 어떠한 들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칠리다는 시간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따피에스 영향받아 禪사상 심취
수행 통해 자신의 조형어법 완성

콘크리트·철 소재 大作들 만들어
사물의 시간·관계성 작품에 반영
"공간·시간 속의 자유로움"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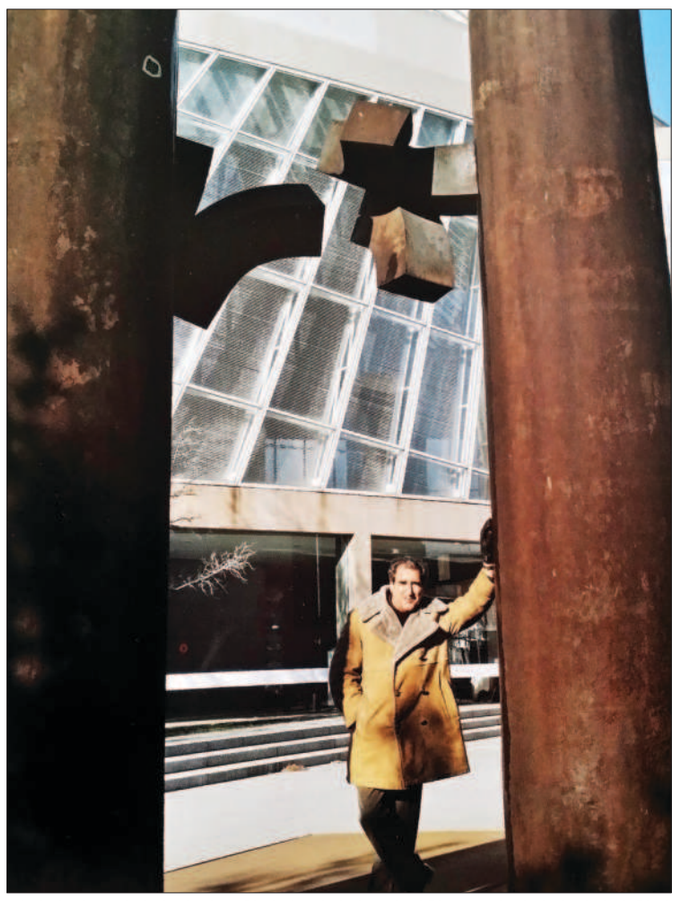
있으며 자신의 작품들은 시간성을 통한 대상과의 관계성에서 사유의 자유로움을 추구한다고 하였다. 자신이 제작한 작품은 작가의 의도와 무관하게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한다.

콘크리트를 사용한 작품들은 비바람을 맞으며 인고의 시간을 견디면 어느 순간 거칠던 부분들이 순화되어 부드럽게 되어 진다. 또한 철로 된 작품들 역시 시간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는 자신의 작품이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아니면 적어도 수백년은 형상을 유지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적으로 원래의 모습은 사라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이것은 작가의 의도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진정한 마음의 자유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 '마음의 자유는 어디에서 오는가' 하고 질문을 던지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인식하거나 학습된 내용들을 말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역시 관념적일 것이다.

필자 역시 한때는 내가 아는 것이 진리이고 모두가 옳다고 착각하며 살았던 때가 있다. 어느 순간 내가 아는 것이 모두 가짜이고 내가 만들어 놓은 허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고 나니 과거보다는 많은 부분에서 자유로워짐을 느끼게 되었다.


스페인의 미술가 에두아르도 칠리다의 작품. 자연의 환경 속에 놓여지는 그의 작품들은 또 다른 자연처럼 보이기도 한다. 자연 속의 조형물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하는 것 자체가 칠리다의 작품이 가진 특징이다.


자신의 작품 사이에 서 있는 칠리다. 따피에스의 영향으로 선 사상에 심취한 칠리다는 콘크리트, 철을 이용한 대형 작품들을 만들었다.

칠리다는 진정한 자유를 찾아가는 수행자의 모습을 자신의 작품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자신이 설정한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며 매순간 변화하고 있다는 인식을 통하여 자유로운 인식의 토대를 구축해 나아간 것이다.

따피에스와도 많은 친분이 있었던 칠리다는 선(禪)사상에 심취하며 진정한 자유에 대한 사색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자신만의 조형어법으로 수행적 관점들을 형상화시켜 나아갔던 것이다. 당시 많은 조각가들이 추상조각에 심취하여 조각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아가고 있을 때 그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조각 작품을 통한 인식의 전환에 관심을 가지고 작품을 제작하게 된 것이다.

자연과 공간, 시간은 그의 작품의 중요한 요소이다. 자연의 환경 속에 놓여지는 그의 작품들은 또 다른 자연처럼 보이기도 한다. (〈사진 위〉 참조.) 자연 속에 인공적인 자극이 가해짐으로써 본래의 자연의 모습들이 변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에서는 자연의 또 다른 모습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거꾸로 매달려 있는 열매의 봉우리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작품은 철로 만든 조각 작품이다.

나무들이 많은 숲에 철의 작품은 녹슬어 가며 점차 나무의 줄기처럼 변화해 간다. 다시 자연 속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다. 시간은 그에게 또 다른 작품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실내의 공간속에 놓여있는 작품들은 시간의 흐름에 반응하는 속도가 느리다. 때문에 인식하는 관점에 따라서는 거의 정지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것 또한 변화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순간 인지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어쩌면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지 못하는 데서 관념적 사고가 축적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는 스스로가 관념적 사고에서 벗어나고자 기하학적 이미지를 조합하는 형상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기하학적 도형들은 보는 순간마다 전혀 다르게 인식되기 때문이다.

특히 해안가, 절벽, 공원, 도심 등 그의 작품이 설치된 공간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여 진다. 여기에 그의 천재성과 수행을 통한 인식의 자유로움을 찾을 수 있다. 어느 것도 같은 것은 없다는 보여주며 모든 것은 새롭게 변화한다는 것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기하학적 도상들과 시간성을 통하여 지금 자신이 깨어있음을 보여주는 그의 작품들은 커다란 크기에서 자연의 위용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가 자연 속에 설치한 작품들은 그 크기가 대단하다. 해안가에 설치된 작품들은 마치 거친 파도와 싸우는 듯한 이미지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물거품의 순간을 포착해 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보이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은 작가에게는 중요한 일이다.

그 찰나의 순간에 번뜩이는 모습은 순간 사라진다. 파도가 해안가에서 물거품을 만들어 내지만 물거품의 형상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다시 밀려오는 파도가 물거품을 만들어 내지만 이미 그 모습은 새로운 것이다. 때문에 작가는 그 한순간의 이미지를 포착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칠리다는 명상을 통한 고요함속에서 그 순간을 포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자신의 내면의 본질적 자아를 관조하는 명상은 사고의 자유로움을 가져다주며 나아가서 창의성의 발현을 일으키는 중요한 방법중의 하나이다.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기하학적 이미지들은 유사성을 보이는 것 보다는 서로 다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는 자신이 관조하는 인식의 범주가 확산되기 때문에 동일한 것보다는 다양성이 더욱 표출되는 것이다. 즉 매순간 변화하는 가운데 새로운 이미지를 포착하기 때문에 매번 다르게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커다란 조각을 하는 과정은 건축을 하는 것과 유사하다. 하지만 조각은 어떠한 공간성을 통한 삶의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닌 사유의 전환을 통한 인식의 자유로움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

칠리다의 작품이 보여주는 특성은 기하학적 도상과 시간성이다. 둘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성을 형성하며 창의적인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다. 공간성을 떠난 자연 속에서의 시간성과 인공적인 건축물속에서의 시간성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며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이다.

시간성 또한 그의 작품 속에서는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그 순간 인식의 관점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즉, 관념적 사고에서 보면 그의 작품은 항상 같은 모습이다. 하지만 자유로운 인식의 관점에서 보면 그의 작품은 한 번도 같은 적이 없는 것이다. 한번 흘러간 물은 다시 그 자리에 오지 않는다고 한다. 그의 작품을 보면서 시간성의 관점을 자신의 삶 속에서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필자의 바람이다.



윤양호(원광대 선조형예술학과 교수)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의 큰 뜻을 함께하실 종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인연법의 가르침속에서 쉼없이 활동하는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제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목탁 대승정과 뜻을 함께할 **사찰과 암자, 포교당 주지스님과 원장**이라면 **누구나 종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교법인 : 국제선불교조계종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대승정 목탁

대표 전화번호 02)733-5665, 010-3618-6061 / 기획실 010-4467-9600

韓日 반가사유상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 국보 제78호 금동반가사유상

국립중앙博, 韓국보 78호 · 日국보 반가사유상 공동 전시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으로
양국 반가사유상 전시는 최초
5월 24일부터 기획전시실서

반가사유상은 한쪽 다리를 다른 무릎 위에 얹고 손가락을 뺨에 댄 채 생각에 잠긴 모습을 표현한 보살상이다. 출가 전 인간의 생로병사를 고민하며 명상에 잠긴 싯다르타 태자의 모습에서 비롯된 이 보살상은 중앙아시아와 중국을 거쳐 한국, 일본에 전래됐다.

한국과 일본의 대표 반가사유상을 한 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된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영훈)은 오는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3주간 기획전시실에서 '한일 국보 반가사유상의 만남'을 주제로 특별전시회를 연다.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기획된 이번 특별전에는 한국의 국보 제78호 금동반가사유상과 일본의 국보 주구사(中宮寺) 소장 목조반가사유상이 소개된다. 한일 양국 반가사유상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무엇보다 한국의 금동반가사유상과 일본 목조반가사유상은 '사유'라는 인류 보편적 주제를 한일 양국이 어떻게 이해하고 시각화했는지 비교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삼국시대 6세기 후반에 제작된 한국의 금동반가사유상은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띤 채 두 눈을 지그시 감은 모습으로 사유에 든 보살의 무한한 평정심과 숭고한 아름다움을 전해준다. 화려한 보관과 장신구, 몸을 덮은 천의(天衣) 자락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엄한 보살의 위엄을 드러낸다.

금동반가사유상이 무엇보다 주목받는 것은 실제로는 공존하기 어려운 '반가'와 '사유'라는 복잡한 두 가지 자세를 자연스럽게 구현했을 뿐만 아니라 화려한 장신구나 유려한 천의자락을 일정한 두께로 주조한 금동불상이기 때문이다. 이는 당대 최고의 뛰어난 조형 감각과 첨단 주조기술이 조화를 이루었기에 가능했다.

일본의 나라 현(奈良縣)에 위치한 주구사에 소장된 목조반가사유상은 7세기 후반 아스카 시대에 제작된 불상이다. 두 개의 상투를 튼 머리 모양에 윤곽선이 없이 두툼한 눈과 입가에는 살짝 미소를 머금어 명상에 잠긴 모습이다.

주구사 상은 삼국의 영향과 일본 고대 불교조각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불상으로, 일본을 벗어나 다른 나라에서 전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한일 반가사유상의 비교전시는 불상 전래 과정에서 역동적인 고대 동아시아의 문화 교류가 어떻게 펼쳐졌을지 상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금속과 목재로 재질이 다르지만 반가사유상이라는 독특한 자세의 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양국 조각가의 창의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일본 도쿄국립박물관과 공동으로 기획된 이번 전시는 서울 전시가 끝난 뒤 '미소의 부처님-2구의 반가사유상'이라는 주제로 6월 21일부터 7월 10일까지 도쿄국립박물관에서도 개최된다. (02)2077-9540 신성민 기자


일본 주구사 목조반가사유상

우리 삶 담은 전통 민화 보는 즐거움 느껴보세요

불일미술관, 박현숙 개인전 개최

기복과 장수, 해학과 풍자로 표현되는 민화는 불교 사찰에서도 두루 사용된 친근한 한국화다. 전통 민화를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은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박현숙 화가의 개인전 '민화를 보는 즐거움, 樂'을 진행한다.

작가는 상징성과 해학성을 갖춘 민화에 불교적 요소를 가미했다. 또한 민화에서는 드물게 천연염료 도입을 시도해 '전통을 기반한 창작'이라는 도전을 지속해 오고 있다.

한편, 박현숙 작가는 전시기간 동안 관람자와 민화의 소통을 위해 법련사 앞에서 민화 체험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02)733-5322 신성민 기자


박현주 작가의 작품 '학(65X70).'

REVIEW

음악회

범패·오케스트라의 성공적 크로스오버

니르바나 봉축음악회
1부 합창·독창, 2부 본격 협연
장중미, 청아함이 돋보인 공연


4월 17일 열린 니르바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봉축음악회. 범패와 오케스트라가 협연을 하는 실험적 공연이 펼쳐졌다.

'천년의 향기, 미래를 향하여'. 지난 4월 17일 서울 KBS홀,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봉축음악회는 천진불인 명화사 소년소녀합창단의 '연꽃 피는날'로 문을 열었다.

1부와 2부로 나눠진 이번 공연은 우선 1부는 합창과 독창 등 성악곡, 2부는 오케스트라와 범패의 협연 등으로 구성됐다. 앞에 편성된 합창단 음성공양은 이번 공연서 흥을 돋우는 애피타이저 역할에 충실했다. 편성의 노림수도 여기에 있던 것 같다. 다섯 번째 순서 부터는 독창이다. 바리톤 김재일씨의 '예불'이 눈에 갔다. 조석예불때마다 우리 귀에 익숙한 예불문이 무대 위서 울려 퍼지니 환희심이 솟구쳤다. 굵고 나지막한 음성으로 전해진 '예불'은 객석서 잠시 내 자신을 내려 놓는 찰나를 선사했다.

이어 비구니 스님 성악가 두 분이 무대에 올랐다. 정행 스님과 정율 스님이 다. 정행 스님이 차분한 음색의 카리스마를 발산했다면, 정율 스님은 심장의 박동을 역동적으로 끌어올렸다.

2부는 니르바나 오케스트라가 무대에 올라 희망찬 환희 서곡을 선사했다. 이어 오늘 공연의 하이라이트인 범패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교향시가 연주됐다. 첫 시도인 점에서 많은 이들이 귀를 쫑긋 세웠다. 크로스오버를 넘어선 파격이고 실험적 무대다.

대금이 긴장을 조이고 풀기를 반복하는 동안, 북과 바라, 오케스트라가 동서양을 넘나들며 줄과 줄을 이어 '관객 마음속의 줄'인 심금을 울렸다.

하지만 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타악이 소리를 휘몰고, 범패의 장중함 속 청아함이 오케스트라를 시종 리드했다. 아쉬움이 있다면 흐름이 끊기는 엇박자의 호흡이 중간에 몇 번 눈에 띄었다. 연습 부족인 것 같았다.

하지만 이번 만남은 예술적 가치보다는 종교적 가치가 더 컸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을 그간의 노력에 등을 두드려 주고 싶었다.

무대 위가 즐거우면, 객석도 즐겁다. 공연이 끝나자, 일제히 공연장 문이 열렸다. 공연장에 가득 찼던 법열감과 환희심이 세상 밖으로 퍼져나갔다. 여법한 음성공양을 통해 이번 부처님 맞을 채비는 잘 끝냈다. 김주일 기자

연극

나를 이끌 코뚜레를 찾았는가

연극 '경허-Empty Mirror'
음악·연기·춤 인상적 조화
던져진 돌은 비움의 과정


4월 20일 진행된 연극 '경허'의 한 장면으로 경허 스님의 열반을 장엄하게 표현하고 있다.

깜깜한 무대, 어딘가에서 던져진 돌. 이내 무대 바닥과 부딪쳐 '탁' 소리를 낸다. 무언가를 경책하는 것 같다. 스스로를 바로잡으라는 죽비소리 같은 연극 '경허-Empty Mirror'는 이렇게 시작한다.

연극 '경허'의 주최단체인 (사)경허연구소는 4월 20일부터 시작된 공연에 앞서 프레스 리허설을 진행했다. 90분 동안 진행된 연극은 경허의 일대기를 '세미 넌버벌' 형식으로 이뤄졌다.

극의 내용은 경허 스님이 출가해 깨달음에 이르고, 무애행을 펼치며 전법을 하다 열반에 이르기 까지를 그린다.

현대 무용을 바탕으로 한 무언의 퍼포먼스가 중심을 이루면서도 나레이션과 배우들의 연기도 중간 중간 삽입돼 관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배우들의 강한 몸짓과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장중한 음향도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충분한 요소다.

극중 경허 스님이 깨닫는 장면, 문둥이 여인과의 에피소드, 열반에 이르는 장면은 특히 눈길이 간다. '돌연 콧구멍 없는 소가 된다는 말을 듣고 삼천세계가 내 집임을 알았다'고 외치면서 스스로 얼굴을 닦는 장면은 선적인 풍취가 느껴진다.

또한 문둥이 여인을 동거하며 치료하는 장면에서는 경허가 가진 자비심을 몸짓 연기로 풍부하게 표현했다. 문수동자가 경허를 이끌어 가는 열반의 장면도 매우 장엄하다.

연출과 주연을 맡은 강만홍은 20년 전부터 연극 '경허'를 준비했고, 살면서 경허 스님 일대기를 수시로 읽고 탐구했다. 사실 이번 연극은 지난 2008년 뉴욕 맨하탄의 라마마 극장에서 격찬을 받았던 '길 없는 길'의 업그레이드 버전이기도 하다.

연극의 시작과 끝은 돌이 부딪치는 소리로 끝은 맺는다. 강만홍은 "돌은 오랜 시간을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극에서도 돌은 많은 상징을 가진다"고 풀이한다.

'탁' 하고 떨어지는 소리와 극 내내 걸려 있던 코뚜레에서 '스스로를 바로 보라'는 선지식의 경책을 만난다.

한편, 연극 '경허'는 오는 5월 1일까지 동국대 이해랑예술극장에서 진행된다. 신성민 기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현재 74권의 저서 출간!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수덕사 만공·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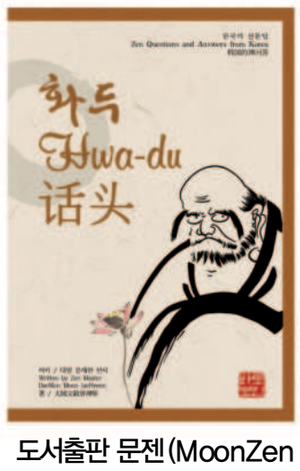
바로보인 천부경



1986년 5월 15일, 당시 단군선양회를 이끄시던 안호상 박사님과 김경수 참의원님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즉석에서 현토하고 설했던 것을 1997년이 되어서야 출간하였다. 이 책에는 삼부경인 천부경, 교화경, 치화경이 함께 실려 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혜안의 통찰력으로 밝힌, 인류를 선구적으로 이끈 자랑스러운 봉화적 역서, 삼부경!

화 두



'화두'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 평생 선문답의 결정판이다. 생생히 살아있는 선(禪)을 한영중 3개국어로 만날 수 있다.

포천 서울 부산 광주에서 매월 선사님의 법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www.zenparadise.com 참조

도서출판 문젠(MoonZen Press) ☎ 031-534-3373

왜? 울금(강황)과
Phytoncide(피톤치드, 편백수) 인가!
『대리점 및 소액 점포/사찰답례품 창업주 모집』
불황을 타개 할 참신한 제품입니다.
불 도량에 알맞는 품격있는 제품입니다.
울금365 는
울금, 황금, 미강으로 구성되었으며 잦은 음주와 스트레스, 음식의 과잉섭취, 각종 공해에 찌는 현대인에게 꼭 권장할 만한 건강식품입니다.



울금 박사가 만들었습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을 고려했습니다.
3box 6병(3개월 분) = 89,000원
1box 2병(1개월 분) = 39,000원
• 울금과 강황을 이용한 식품일체(동분야 국내최고 권위자)
피톤치드, 편백수(국내 최대생산라인 확보,성분타의 추종을 불허함)
약용식물을 이용한 건강식품 다수(특허등록)
당찬하루, 팔자보(남자의 팔자), 울금365 등

100% 천연편백수 산림욕장을 실내로!



아토피, 피부미용, 새집증후군, 천연방향제
의류 및 침구류, 신발장, 화장실 등의 항균,탈취
70ml (휴대용)×1병 = 3,900원
6병×1box = 21,600원
200ml(가정용)×1병 = 8,000원
2병×1box = 15,000원
500ml(대용량)×1병 = 15,600원
오랜 전통과 기술이 축적된 산학협력 및 정부지원 업체입니다.
Sanchon Herb NAVER 산촌허브 검색
문의전화 T. 055) 632-2233 F. 055) 635-6500
H. 010-3215-3998 www.sanchonherb.co.kr
농협 351-0633-0485-13 산촌허브(주)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 종 서 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0-3545-5060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4.13~2015.4.19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완벽하지않은것들에대한사랑	혜민	수오서재
2	월호스님의 화엄경약찬게 강설	월호	(주)조계종출판사
3	설전(법정이묻고성철이답하다)	성철,법정,원택	책읽는섬
4	약사유리광칠불본원공덕경	원순 편역	법공양
5	능엄경 대의풀이	남회근/송찬문	마하연
6	법륜스님의행복-행복해지고싶지만길을몰라헤매는당신에게	법륜	나무의마음
7	붓다프로젝트	원담	민족사
8	괜찮아나는나니까(성전스님이전하는희망의 토닥임)	성전스님	담앤북스
9	생사의 근본에서 주인이 되라	허운/정원규	불광출판사
10	약사경강의	남회근	부키



"염불, 내 자신 아미타불과 일치시켜 줘"

혜총 스님의 아미타경 강설

혜총 스님 지음 | 조계종출판사 펴냄 | 1만5천원





조계종 포교원장을 지냈고, 현재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 추진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혜총 스님(부산 감로사 주지 · 사진)은 자운 율사를 40여 년간 시봉했다. 혜총 스님은 스승이 매일 아미타불 종자 진언을 1만 독하고, 스스로를 상참괴승(常慙愧僧)이라 칭한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봤다. 또한 스님 본인도 〈아미타경〉 독송과 광명 진언, 아미타불 종자 진언, 정토 다라니를 손에서 놓지 않고 꾸준히 수행했다. 그 과정서 절대적이고 결정적인 믿음인 신심은 모든 수행의 근본임을 몸으로 배웠다. 혜총 스님은 '믿음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다' 는 진리를 체득한 것이다. 그런 스님이 1년 동안 불교언론에 연재한 〈아미타경 강설〉을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불자라면 입버릇처럼 염불해 온 '나무아미타불' 에는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 여섯 자 염불의 주인공인 아미타 부처님은 잘 알고 있듯 서방정토의 부처님이시다. 그런데 이런 아미타 부처님의 땅인 서방정토의 존재와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 그리고 극락왕생의 방법이 담긴 경전이 있다. 바로 〈불설아미타경〉이다. 대부분의 경전이 제자들의 간청에 의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내용으로 이루어진 반면 〈불설아미타경〉은 부처님 스스로 말씀하신 '무문자설경(無問自說經)' 이라는 특징이 있다. 〈불설아미타경〉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서방정토와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모든 선근 공덕을 닦아 서방정토에 왕생하라고 말한다. 더불어 일념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염불하라고 권한다.

혜총 스님은 〈불설아미타경〉을 33개로 나눠서 그 구절에 담긴 내용을 해설했다. 그리고 도서 말미에는 한문 〈불설아미타경〉과 우리말 〈불설아미타경〉 〈정토예경〉 〈아미타 부처님의 48대원〉을 비롯해 염불 공덕과 인연 이야기를 담은 부록을 수록했다. 이 책은 〈아미타경〉뿐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혜총 스님은 깔끔한 문장으로 왜 아미타 부처님 만나길 서원 하는지, 그리고 왜 서방정토에 가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면서 강설 중간 중간에 〈삼국유사〉나 〈왕생록〉과 같은 고서에 전하는 왕생담, 그리고 설화를 소개하며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과 염불 수행의 수승함을 밝힌다. 이와는 별개로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강설 저본으로 우리말 〈아미타경〉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강설서는 한문 경전을 저본으로 삼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우리말로 옮긴 〈아미타경〉을 바탕으로 각 구절에 담긴 부처님 가르침을 풀었다. 이는 매우 드문 경우다. 이렇게 우리말 경전을 바탕으로 한 것은 경전 내용이 어렵지 않은 데다,

〈불설아미타경〉, 무문자 설경이 특징
33개로 나눠 구절에 담긴 내용 해설

한 글자 한 글자의 세세한 뜻보다 경전이 담은 내용을 음미하는 것이 더욱 가치 있기 때문이다.

혜총 스님은 이 책에서 "염불은 단순한 미신도, 맹목적인 신앙도 아니다. 모든 수행을 포섭하고, 무수한 과거 겁의 악업을 소멸하며 우주의 주인인 나를 적극적으로 발현한다. 염불은 나를 아미타 부처님과 일치시키는 신나는 수행이다."라고 염불의 공덕을 밝힌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일심으로 발원하고 염불해 아미타 부처님의 땅 서방정토로 들려는 것인가. 〈불설아미타경〉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그 땅의 모든 존재는 성불을 위해 준비했고, 또 그곳에 태어난 사람들은 성불이 예약된 존재들이다. 그래서 정토왕생이란 성불을 위한 지름길에 들어서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한다.

우리가 발원하고 아미타 부처님을 염불하는 것은 일신상의 평안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서방정토에 나고 싶은 원, 다시 말해 성불하고자 하는 원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혜총 스님은 이 책에서 "자신의 업이 너무나 무겁다거나 근기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는 어떻게 해야 성불할 수 있는 것인지 방법을 모르는 사람 등 성불을 원하는 이라면 간절한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불러 보라"고 조언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추사가 고증학에 10년을 바친 이유는?

추사코드

이성현 지음 | 들녘 펴냄 | 2만 2천원



"우리가 알던 추사 김정희는 추사가 아니었다."

괜한 어깃장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또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된 시초는 우리 서화에 대한 기존 해설의 빈약함과 왜곡서 출발한다. '아는 만큼 보인다' 며 현란한 용어를 구사하는 해설가들 앞에서 일단 고개를 끄덕였지만, "알게는 된 것 같은데 뭐가 보인다는 걸까?" 하는 내면의 의구심은 잠재우지 못했다.

현역 화가인 저자는 한국화, 나아가 중국을 포함한 동양화에 대해 큰 의문을 품었다. 우리 그림은 왜 이리 단순한 표현에 머물고 있는가? 우리가 잘 모르는, 표현상의 어떤 암묵적 제약이 있기 때문일까? 반대로, 혹시 그 제약이란 것이 어떤 상징성을 내포하는 것은 아닐까? 많은 서화들을, 특히 진경산수화가 등장하기 전후의 서화들을 읽어내면서 저자는 일종의 벽을 느끼게 됐다. 이를 풀기 위해 그림 자체뿐 아니라 주류 성리학과 비주류 실학 및 고증학, 아울러 당대의 정치적 맥락 등을 꼼꼼히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이는 저자를 감춰진 비밀을 추적해 들어가는 탐정(?)으로 만들어놓았다.

그 첫 번째 대상으로 저자는 추사에 집중했다. 추사가 살던 시대는 세도정치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다. 정조가 승하한 후 자기 아버지 세대서 조선 실학의 꽃망울이 꺾이는 과정을 두 눈으로 지켜보며 성장한 추사는 실학의 씨앗격인 고증학에 눈을 돌린다. 배움의 최종 목표를 '치국평천하' 에 두는 유자(儒者)라면 마땅히 자신의 배움을 세상의 밝은 도리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배우고 그렇게 길러진 사람들이 조선의 선비들이다. 김정희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문예인이기 이전에 정치인이던 김정희가 10년의 세월을 고증학에 바친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무렵 추사의 속내를 가늠할 수 있는 찬문이 남아 있다.

이미 주희가 공자의 가르침을 알기 쉽게 다 설명했는데, 무엇이 답답하다는 것이고 무엇을 증명하고자 한다는 것인가. 추사는 조선의 성리학자들을 향해 "공자께서는 그리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고증학을 연구하던 것이다.

결국 추사가 조선에 공자를 직접 모셔오려 한 것은 조선 성리학의 폐해와 허구성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추사의 큰 뜻은 효명세자(후일 익종으로 추존)의 스승으로서 왕세자가 부왕 순조의 대리청정 하고 있을 때 잠시 펼치려 했으나, 그의 요절로 꺾이고 만다. 복권한 안동김씨들은 추사를 제1의 위험인물로 표적 삼았다. 그들의 세도를 흔들림 없이 한 것은 조선성리학이라는 이념의 독점인데, 추사는 바로 그 이념에 근본적인 도전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떻게든 추사를 제거하려 했고, 추사는 이에 대해 자신을 보호하는 한편 정치적 의지를 도모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 했다. 그 것은 다름 아닌 그의 서화였다. 자신의 복귀를 위한 노력과 흥선대원군을 통한 정치적 목표의 추구는 모두 정적들이 알아볼 수 없는 서화 속으로 감춰지게 된다. 그가 숨겨놓은 한 글자, 하나의 선과 점도 쉬 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는 가장 암울했던 시기를 살던 천재 김정희의 정치관과 정책 방안이 교묘하게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의 서화 속에 숨은 추사의 뜻을 밝혀내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김주일 기자

아는 만큼 보이는 사찰 안내 여행기

나를 위한 사찰여행 55

유철상 글 사진 | 상상출판 펴냄 | 1만 6500원



사찰여행은 나를 위한 힐링 포인트

이 책에 실린 55곳의 절집들은 저자가 여행전문기자로서 우리 땅 구석구석을 걸으며 만난 사찰들이다. 사찰을 찾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정보를 넣었고,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프로그램의 특징적인 내용 설명도 덧붙였다. 더불어 절과 관련된 이야기나 역사적인 사건도 자세히 소개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은 사찰에서도 역시 통하는 말이다. 이 책에 소개된 절집들이 최고의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휴식, 마음, 수행, 여행, 힐링 등 테마에 맞게 사찰을 소개한 점은 장점이다. 이 책은 15년 동안 전국의 사찰을 찾아다닌 저자의 공력으로 탄생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자신과 궁합이 맞는 여행지를 발견하고 여행을 나서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나를 찾아 떠나는 사색의 숲, 사찰여행

마음에도 무게가 있을까? 없다면 가슴 한편을 짓누르는 이것은 무엇인가. 생각에도 크기가 있을까? 없다면 머릿속을 꽉 채운 이것은 또 무엇일까. 크게 무리 없는 일상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모르는 공허감이 몰려올 때가 있다. 문득 뒤를 돌아보면 행복도, 즐거움도 간데없고 방향을 잃은 채 등 떠밀린 것처럼 휩쓸려 사는 자신이 보인다. 그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먹고 소비하고 혹은 낭비하는 가운데서 즐거움을 찾으려 발버둥치곤 한다. 그러나 근원을 채우지 못하는 행동은 더 큰 갈증을 불러오기 마련이다. 그럴 땐 걷기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유유자적 걸으며 그곳에서 나를 찾는 여행, 그것이 바로 사찰여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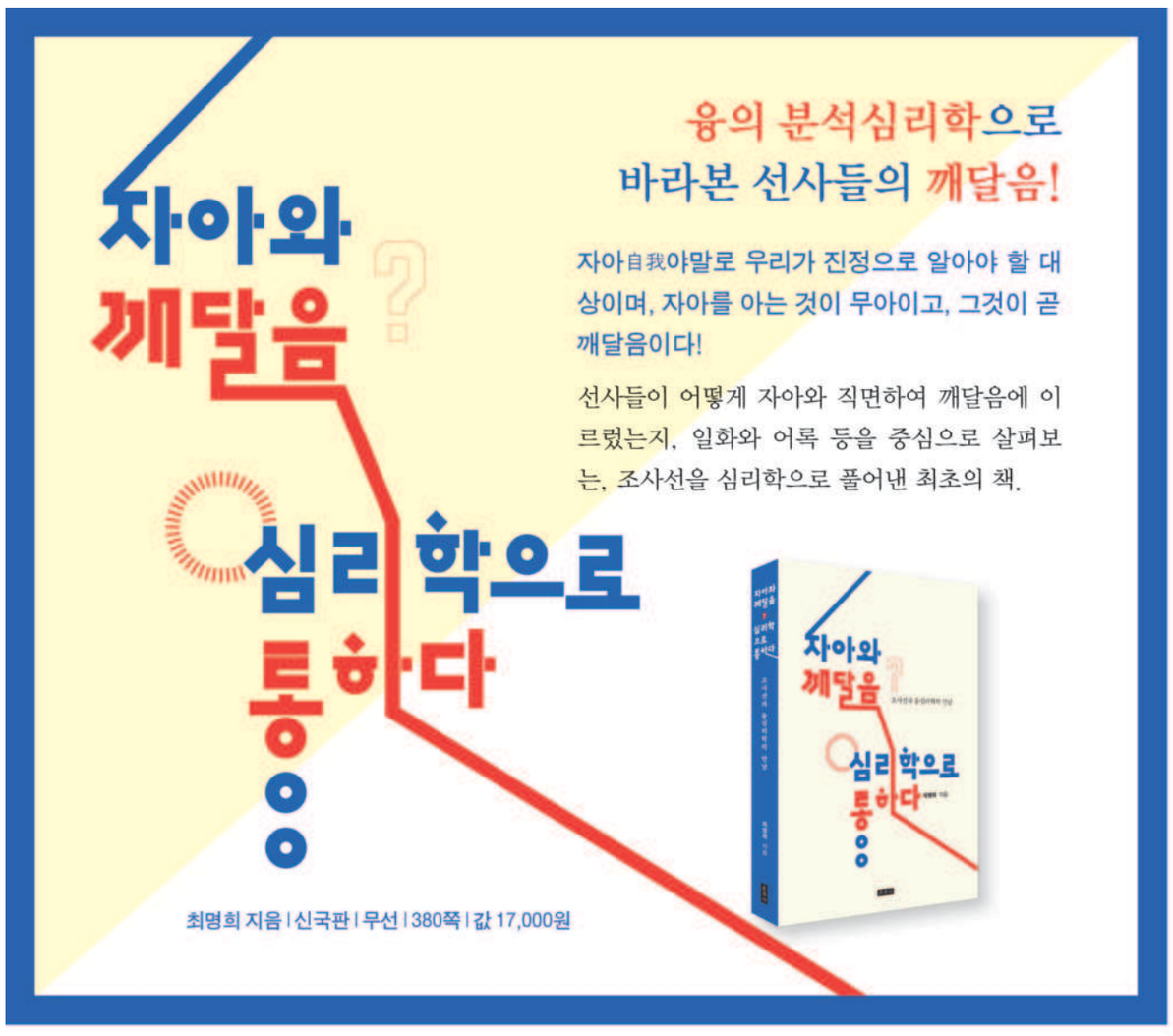
사는 게 시큰둥한 사람들이여, '절' 로 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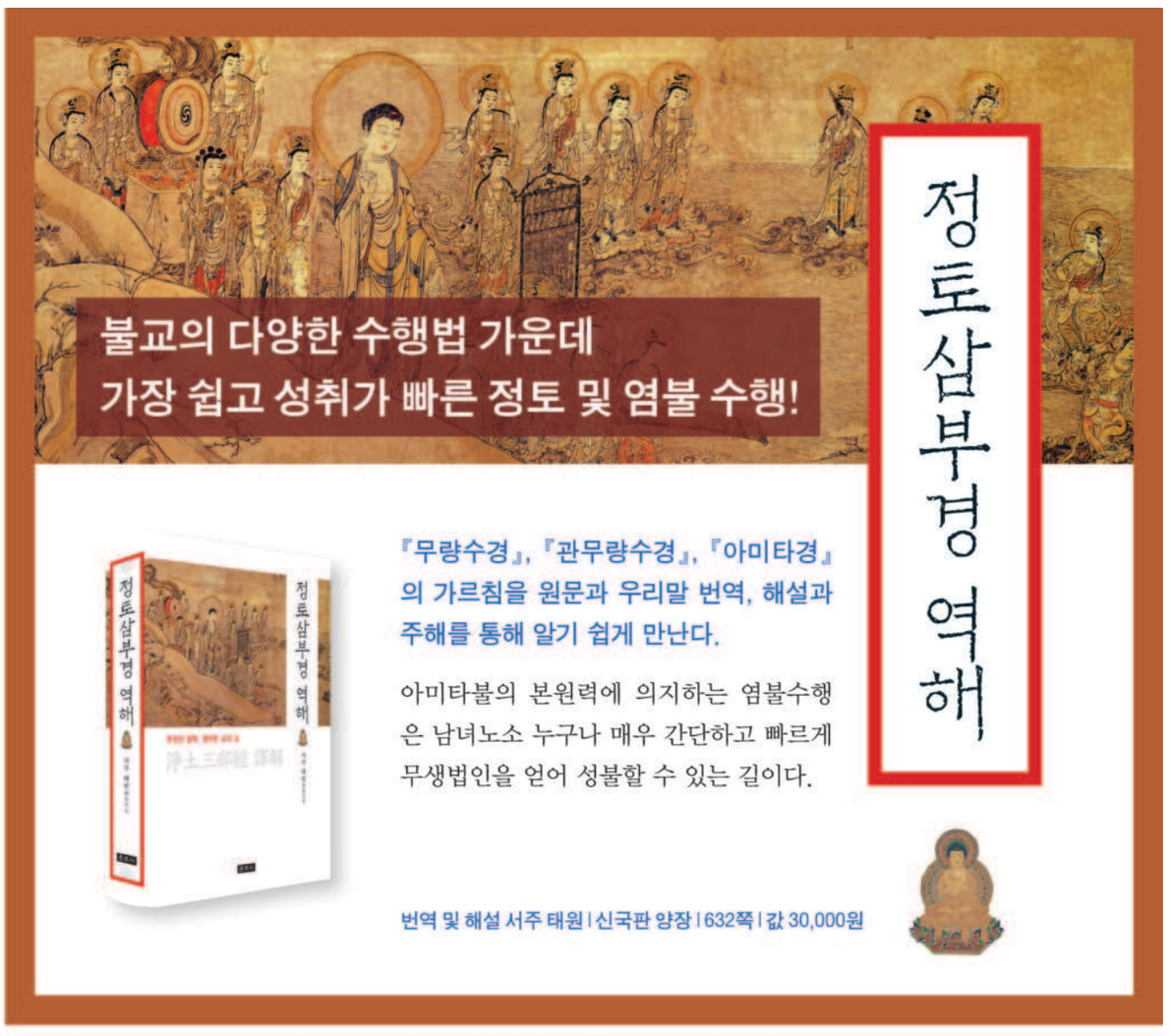
여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여행을 꿈꾸고 산다. 다른 삶의 풍경을 보기 위해서, 세상을 배우기 위해서, 혹은 매일이 한결같은 답답한 일상에 괜히 초조해서. 여행하는 이유나 목적은 사람마다 제각각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난 여행의 기억을 펼쳐놓고 자문해보자. 어떠한 조급증도 없이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떠난 여행이 몇 번이나 되던가?

사찰여행은 나조차도 잃었던 나 자신을 찾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삶의 여백과 서정을 느낄 수 있는 산사에 가보자. 저자 유철상이 추천하는 여름 산사 3곳은 '마곡사' '미황사' '해인사' 다.

마곡사는 서로의 마음을 나눔으로써 나의 마음을 반추해보는 '자비 명상 템플스테이' 와 산길을 맨발로 걸으며 마음을 조절하여 자연을 즐기는 '맨발 산행' 이 가능하다. 땅끝마을의 아름다운 절집으로 유명한 미황사에 서서 내면의 울림을 듣고 다도해에 시선을 두면 무한한 사색에 빠져든다. 통도사, 송광사와 함께 우리나라의 3대 사찰로 꼽히는 해인사에서는 불교 정신의 총화인 팔만대장경 인경 체험과 산내 암자 순례가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의 마음을 훔친다.

김주일 기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日, 불자 감소·재정 부족 극심… 돌파구는?

재팬뉴스, 인구 감소가 日불교에 미치는 영향 소개

전 세계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 일선에서는 고령화와 청년 불자 부족으로 인한 '신도 감소' 문제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본에서는 인구 감소가 불교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관련 내용을 책으로 출판해 눈길을 끈다.

일본 언론 'Japan News'는 최근 발간된 책 '인구가 감소하는 사회 속 사찰(Society with a declining population and temples, Hozokan 출판사 발간)'을 소개했다. 책에는 일본 내 지역 사찰들이 어떻게 재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또 사찰들이 인구감소 시대에 어떤 책임을 지는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종교사회학자 및 불교학자들과 관련 분야 학자들이 다수 공동 집필했다.

공동집필 겸 편집을 맡은 요시히데 사쿠라이(Yoshihide Sakurai) 홋카이도대학 교수는 "몇몇의 종교 종파들의 동향과 관련한 통계는 있었지만, 현재 불교 사원들이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간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발간 이유를 설명했다.

오늘날 일본 사찰들은 신도 및 시주(施主)자들의 급감과 더불어 사찰을 승계할 상좌(上佐) 스님마저 구하기 못해 재정 · 관리에 총체적 난국을 겪고 있다. 일본 내에 약 8만 개 사찰 가운데 관광객 및 신도들의 발이 끊이질 않는 유명사찰을 제외한 나머지 95%의 지역 사찰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사쿠라이 교수는 "심지어 유명 사찰들도 시주금으로 재정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부 소규모 사찰들은 주지 스님의 사비로 운영하기도 하지만 그

신도 수 급감, 재정적 운영 '고충'
95% 소규모 사찰 문제 더 심각
"주지 스님 자비 운영도 한계"
노인 돌봄 서비스 등 대안 제시

마저도 한계에 부딪혔다. 출산율 감소 등 요인들로 인해 종교의 가족 승계가 어려운 것이 그 이유"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쿠라이 교수는 "불자 감소 문제 극복을 위한 아이디어 고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서로 협력해 대비하지 않으면, 소규모 사찰들은 완전히 붕괴되고 말 것"이라 경고했다.

이와 관련 책 내용 일부에는 사찰 운영의 새 방식에 대해 "지금이 바로 인구 감소에 대비, 사원의 역할을 수립할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사원들은 지역사회에서 어른들을 위한 쉼터를 제공하고,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특화 분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쇼쿄 미우라(Shokyo Miura) 스님이 도쿄에서 운영 중인 'Tera Cafe'에서 커피를 서빙하고 있다. 사진출처=japantoday

한편 일본 불교계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탈피하기 위해 스님들이 상담을 하며 차와 커피 등을 파는 카페를 열거나, 불교의 천도의식을 장례업과 연계해 재정충당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키타 현(秋田縣) 후지 사토 마을에 위치한 한 소규모 사찰은 마을 주민들에게 '동정어린 귀', 즉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주지 스님은 이곳에서 식음료를 판매하는 한편, 위로가 필요한 고객들에게 상담을 해주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자살을 예방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종교가 지나치게 상업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Japan News'는 "종교가 재정 충당을 위해 하는 활동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 허브' 역할로 나아간다면 주민들과 소규모 사찰들이 함께 상생하는 긍정적 방편이 될 것"이라 전했다. 박아름 기자

"명상·토론 등 다양한 불교 즐기자"

美블루밍턴 불자들, 불교 열풍 속 다양한 신행생활

불교에 대한 관심 고조되며
신행 관련 다양한 수요 발생
철학·토론·명상·수행 등 '다채'
"불교의 자유로움이 큰 매력"

서구에서 불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일이다. 미국만 보아도 참선 수행이나 위빠사나, 요가 수행을 하는 사람이 1,500만 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스스로를 불교도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약 600만 명 정도라고 한다.

미국 인터넷 언론 '인디아나퍼블릭미디어'는 4월 16일(현지시간) 미국 인디애나주 블루밍턴에 불고 있는 불교 열풍에 대해 조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블루밍턴에 거주하는 불자들은 여러 종류의 불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찰과 문화센터의 영향으로 다양한 신행활동을 누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티베트몽골불교문화센터는 명상을 비롯한 다양한 불교 강좌를 매주 열고 있으며, 2014년에 문을 연 '게이든 카초싱 불교 수행 연구센터'는 정기적으로 불교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와 포럼을 개최하고 불교 유물 전시도 열고 있다.

'인디아나퍼블릭미디어'는 "블루밍턴에 이처럼 여러 종류의 불교문화 센터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불자들의 수요층이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어떤 사람들은 불교를 신앙으로, 어떤 사람은 하나의 철학으로 간주한다"고 보도했다.

특히 '인디아나퍼블릭미디어'는 대표적인 예로 브루스 허와 던 밀러 부부를 소개했다. 브루스는 불교를 신앙으로, 그의 부인인 던 밀러는 불교를 철학으로 공부해 왔다.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브루스는 성인이 되면서 불교를 접하기 시작했다. 그는 블루밍턴 불교센터의 수행 프로그램에 매주 참여하며, 꾸준히 명상을 하고 있다. 브루스는 "나는 불교를 수행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신앙적으로 생각한다"며 "때문에 수행할 때는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그의 아내 던 밀러는 불교를 철학적으로 접근 한다. 밀러는 "나는 불교 강의를 듣고 불교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한다"며 "하지만 불교 의식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부부는 서로 다른 방식의 신행생활을 지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자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불교의 자율성이 미국인들을 불교로 이끌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릭 낸스 인디아나대학 남아시아불교학과 교수는 "달라이 라마를 추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진정한 종교인이라면 어떤 일이 중요한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다"며 "불교가 권위적인 모습보다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미국인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카든 카초싱 불교문화센터의 잠양라마 스님은 "미국 불교는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생활 속 가르침을 주고 있다"며 "이에 서구인들은 불교적인 생각과 가르침, 철학에 매료되어 있으며 그 안에서 어떻게 행복과 평화를 찾는지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퓨 리서치'에 따르면 북미에서 불자 수는 2050년까지 250만 명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불자수가 줄어들 때 반대로 미국에서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다.

이에 대해 릭 낸스 교수는 "많은 젊은이들은 더 이상 그들이 어렸을 때 믿었던 종교에 안주하지 않는다. 그들은 불교가 주는 유연성에 매료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만약 당신이 달라이 라마를 만난다면 그는 '당신은 불자가 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이 불교인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라'고 말할 것"이라며 "학생들은 이런 가르침을 통해 편안함을 느끼고 불자로서의 의무감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점에서 더 편하게 불교를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브루스 허(사진 왼쪽)와 던 밀러 부부가 신행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사진출처=인디아나퍼블릭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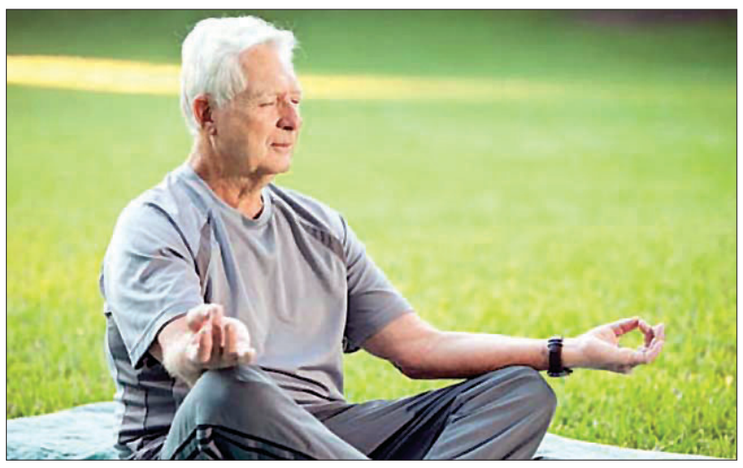
"멀티태스커 명상효과, 일반인보다 높아"

미국 위스콘신대 매디슨 캠퍼스 연구결과 '주목'

대부분의 사람들은 '멀티 태스커(multi-tasker; 한 사람이 한 대의 컴퓨터로 2가지 이상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거나,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실행시키는 것)'가 주의가 산만해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생각과는 달리 마음챙김명상을 통해 멀티 태스커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위스콘신대 매디슨 캠퍼스 연구원들은 "TV, 음악,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동시에 사용하는 '헤비 미디어 멀티 태스커(heavy media multi-tasker)'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명상 후 주의력이 더 높아진다"고 밝혔다.

연구 논문의 저자인 토마스 골만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마음챙김 명상 후 집중력 테스트에서 더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며 "특히 헤비 미디어 멀티 테스커들은 한 번에 하나의 매체만 사용하는 '라이트 미디어 멀티 태스커'보다 명상 후 집중력 테스트에서 더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동시에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는 '멀티 태스커'들이 명상 후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더 주의력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진출처=NDTV

참가자들은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2부류로 구성돼 이틀 동안 집중도 테스트에 참여했다. 첫째 날 참가자들은 웹 서핑을 하는 중간에 집중도 테스트를 했으며, 둘째 날에는 10분 동안 호흡의 들숨 · 날숨을 새는 마음챙김 연습을 한 뒤 집중도 테스트를 진행했다.

실험결과 첫째날에는 헤비 미디어 멀티태스커는 라이트 미디어 멀티태스커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호흡 연습을 하고 난 뒤에는 모두 향상된 점수를 받았다. 특히 헤비 미디어 멀티태스커 그룹은 마음챙김명상 후 진행한 집중도 테스트에서 월등히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번 연구는 "한 번에 여러 매체를 접하는 사람은 주의력이 낮아 순간에 집중할 수 없다"는 기존의 통념을 뒤엎는 것이라 주목할 만하다.

연구 논문에 공동 참여한 숀 그린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에 많은 매체들을 처리 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한 번에 하나의 매체를 처리하는 것보다 집중을 분산 시킨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멀티테스킹에 능한 사람들이 명상 후에는 집중력이 더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
불기 2560(2016)년 부처님오신날
형형色色 달구벌 관등놀이

※ 차량통제 안내
4월 30일 토요일
19:30 ~ 23:00
두류공원네거리 ~ 두류네거리 ~ 반월당네거리 구간 교통통제 됩니다.
시민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Colorful DAEGU 대구불교총연합회

연등회·연등행렬
4월 30일(토) 13:00 ~
두류공원 야구장 일대 및 달구벌대로
13:00 ~ · 문화공연
18:00 ~ · 연등회 법요식 및 소원풍등날리기
20:00 ~ · 연등행렬
· 축하공연
남상일 권미희

달구벌 관등놀이 5월 5일(수) ~ 8일(일) • 전야제 5월 4일 • 개막식 5월 5일 • 중동교 신천 둔치
장엄등(燈)전시
5월 5일 · 개막 점등식
백세인생 이애란
5월 6일 · 달구벌연등합창제
5월 7일 · 한빛댄스경연대회
달샤벳 아이스
5월 8일 · 어버이날 '효(孝)' 한마당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공양합니다
· 연등들고 다함께
※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사단법인 대구불교총연합회 TEL 053)623-6388 WEB www.gwandeung.or.kr FACEBOOK www.facebook.com/gwandeung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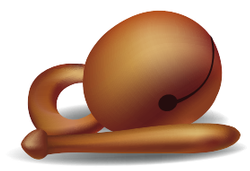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믿음이 참사람의 최상이 되고, 바른 법을 생각하면 편안히 머무르며, 진실하면 그 뜻이 뛰어나게 되고, 수명중에 지혜 수명이 제일이니라.

– 출요경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수강후 법사증, 승려증 발급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고치는법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천도재,사십구재
(호적,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17-1242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 · 구병시식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역학,구궁,오행, 당사주,신살
배워서 상담 하실
분들 전화주세요
010-4234-2536

영험한 퇴마, 기치료
상기병. 빙의. 퇴마. 이유없는 두려움수행에 진도가 없거나 공부에 있어 새로운 스승을 만나고자 할때. 첫발을 내딛는 제자나 재발심한 수행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010-8880-8911

정원불교무용단
- 사찰의식에 필요한 작법을 정성껏 해드립니다.
- 바라작법,살풀이,극락무, 연화무,비천무,회심곡
- 49재,천도재,산사음악회 참여
- 배우면서 행사 함께 참여 하실 분 (대구)모집
010-8674-1149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불사용 달마도
40cm×62cm 한폭 6천원
불사용 선물용 달마도가 필요하신 스님들을 위하여 청암달마도를 친필로 그려 드립니다
051-202-8770 / 010-2953-8770
농협 919-02-137213
청 암 달 마 원
10장 이상은 절 이름과 스님 법명 넣어드립니다

초능력 기공
수련생 모집
3개월이면 나도 초능력 기공사가 된다.
단기 수련생 10강 / 특수수련 20회
에 너 지 힐 링
(뭐든지 다 치유)
약손 빛힐링,초염력,주열요법
(네이버 카페 묘심기공 참조)
자연전인치유 건강관리연구소
010-4611-1296

관상 손금
- 질병을 전문으로 강의함
- 스님특별 책임 개인지도
- 암, 질병, 재판, 묘터, 교통사고 운을 한눈에 알 수 있다
- 성명학+사주+백초귀장술 (출장가능)
- 천기누설강의, 무속인, 철학관, 일반인
010-4014-8822

아무도 가르쳐 주지 못하는,신경성 질환,불면증 화병, 기(氣)치유법
사찰,개인,대학병원,증세 심한분, 배울 분 출장, 최고의 치유법 자신함
저작권등록 심리철학 제C-2015-023718호
(한의학과 철학의 공통점)
다음 카페 몸과 마음 건강법 철학과 심신건강법
(심리철학, 건강철학, 부부철학)
경력 : 심리철학(관) , 결혼상담 1945년 11월생 혜천
010-4078-7810

여래사 여수불교대학
주지 및 학감스님
모십니다. 전라도 불교포교에 관심있는 비구, 비구니 스님
010-9351-6330

기도하시면서 함께지낼
비구니 스님이나
보살님 모십니다
(대구 팔공산, 비구니 도량)
010-4314-7895

비구니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세이하, 충북 음성)
010-5883-2255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가평)
010-3774-409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세 이상, 진주)
010-4450-250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이천)
031-641-6311

신통력과 특수한 비법 33가지를 스님에게만 전수
☎ 032)664-0048 / 011-741-0867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북부역 소명사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구성학 강의
신비의 점성술
● 매주 : 화,목 강의 / 2시~ 4시 (교재무료)
● 수강료 월 20만
구성역리학회
010-4876-5353 / 051-245-535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울산 / 60세 이상, 부부 가능, 교포도 가능)
010-3034-211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8916-04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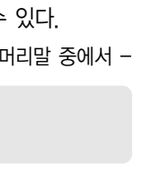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2016년도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강의!
– 목,금요일 오전반, 화요일 저녁반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이근원통 관음수행
(수능엄경)
단전호흡, 수식관호흡, 관음수행
도제식 지도
010-2069-8918

신비의 령산 마이산 탑사 행자모집
▶ 나이 : 만 40세이하
▶ 학력 : 고졸 이상
최고 수준의 승가 교육보장
문의 : 063)433-0012

귀접/귀신들림/알콜중독/게임중독/도박/상습폭행등
모두 빙의현상일 수 있으며, 귀신을 확인 시키고, 책임치유, 사후관리까지... 원인을 알면 처방이 있다!
빙의치료의 대가 화엄스님 010-4293-7075
고민, 고통 해결사 060-900-8181

빙의치료 화엄선원 명리교육관
원격상담문의 010-4293-7075 부천 상동역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마포구 도심포교당)
010-3618-6061

增補 易理作名法

(당신도 作名大家가 될 수 있다)



이름을 한번 잘못 지으면 평생 후회하게 되고 다시 개명(改名)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시중(市中)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작명서(作名書)들이 한결같이 수리(數理)와 오행(五行)에 맞추어 이름을 짓고 있는데, 만약 두 사람의 이름이 똑같은 수리(數理)와 오행(五行)이라면, 두 사람은 똑 같은 이름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논리(論理)가 성립된다. 이에 저자(著者)는 이러한 모순을 제거하고 본인의 사주(四柱)와 "띠"에 맞추어 짓게 한 것이다. 30여 년간 연구한 저자의 역리작명법(易理作名法)으로는 두 사람의 이름이 똑 같아도 "띠"가 다르면 운명이 다른 괘상(卦象)이 나온다. 좋은 이름은 수리(數理)와 오행(五行)은 물론이고, 주역팔괘(周易八卦)에 맞추어 지어야 한다. 주역(周易)을 전혀 모르는 일반 독자들도 누구나 이 책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해설(解說)을 하였기 때문에 이 책을 만나는 순간 눈이 활짝 열릴 것이다. 그 사람의 이름이 길명(吉名)인지 혹은 흉명(凶名)이지 그 자리에서 바로 판단할 수 있다.

– 머리말 중에서 –

※ 2015년 1월 1일부터 새로 발표한 大法院 선정
人名用 漢字 8,142자 전부 수록

易理作名法 : 503쪽 (40,000원)
■ 입금계좌 : 기업은행 530-002326-01-014 손상용

學術團體 韓國陰陽學會中央會
053)324-2468 / 010-9391-5699

도무지 잠이 안와 ! 자다깨다 좀더 자고 싶은데
잠이 안와 ! 푹자지 못해 ! 쉽게 잠들지 못해!

휴~힐링베개

미국 FDA 3009241067 승인

~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

♣반듯이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딱 맞는 IQ 가장 높은 천재 베개
♣베개를 베지 않은 것 같은 완벽한 높이라야 쾌면, 숙면, 꿀잠
♣베개 높이가 딱 맞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언제나 그자리!
♣뒤척임 잘되어야 냉병 이기는 진짜 베개
♣푹신, 물렁, 꼬불 너무 높은, 낮은 베개는 버려라
나쁜 베개는 오래 자면 더 피곤, 건강 NO
♣1000명이 3년간 사용한 결론, 여행갈 때 100% 가지고 다니는 베개
♣스트레스 겹겹이 쌓여 못자고, 못쉬고, 못풀고
침대에 쓰러지면 뭐해 밤새 불면증과 전쟁 고생 뿐!
베개 높이 안맞아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바른 빠른 치유
♣어린이는 조금만 자라도 베개 높이 조절해야 한다(중요)
♣베개, 침대 아무리 좋아도 입벌리고 자면 끝짱
(입안 건조, 침마름, 눈, 코, 얼굴 건조 원인)

※ 템플스테이에서 와선 삼매를 100% 체험 할 수 있는 유일한 베개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 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진실로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나쁜 짓을 하지 마라. 나쁜 짓을 멀리하고 선행을 쌓으면 그 마음이 항상 편안하다.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국경을 잘 지키듯 자기를 잘 지켜야 한다.

- 잡아함경 -



사찰전문 30년 전통 (전국 2,000여 사찰보유)

▶ 아름다운 사찰 ◀
- 위치 : 청도(대구에서 20분거리)
- 총부지 : 400여평
- 건물 : 목조법당(25여평), 요사채(3동 50평) 목조삼성각(7평), 극락전, 황토방
- 양도가 : 4억(금융대출 2억 5천 별도)

051-863-6622/ 010-3560-8522

▶ 장인이 지은 전통목조 2층 와가(신축) ◀
- 할수 있는 직종 : 사찰,명상센터,사찰음식점
- 위치 : 사천 골프장입구 아름다운 바다전망
- 총부지 : 1,400여평, 관광버스 20대 주차가능
- 건물 : 와가 약 90평, 미등기건물 40평
- 양도가 : 12억 2천(금융대출 6억 8천별도)

연산공인중개사
제 26320-2015-00027호
주소: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1, 504호(만덕동 302 다산타워)

순창 추천사찰 급 안내 (www.이박사.com)

- 내장산 부근 사찰
- 법당 90㎡, 요사채 110㎡
- 공양간, 지장전 등, 토지 5,500㎡
- 면소재지 부근, 토지값 정도로 인수 가능함
- 양가액 : 4억원, 조정가능(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위치 : 경기
◎ 대지 : 100평 ◎ 대지 : 200평
◎ 법당 : 50평 ◎ 법당 : 40평
◎ 요사 : 60평 ◎ 요사 : 40평
◎ 양도 : 19억 5천 ◎ 양도 : 7억 5천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온천동(옛 금강공원입구)
- 총부지 : 203평
- 1건물 : 법당(30평), 요사채(2동), 주차장
- 2건물 : 사찰에 딸린 원룸 1동 (룸12개), 점포(2개) 전세 2억 월 400만원 나옴
- 가액 : 은행대출안고 6억 5천인수

010-2595-7752
부산 만덕 부동산
제 26320-2015-00027호

제천시 (급) 사찰

제천시 중심가 사찰
- 토지 250㎡, 법당 45㎡
- 요사채 59㎡
- 제천시장 부근 사찰
- 유동인구 많으며 포교사찰로 좋음
- 가액 : 1억 5천만원(융자가능함)

(원주이박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규철)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 버스종점 100m 거리
- 상가 3층, 포교원 총 83평
- 주불(석가모니불), (지장), (관세음), (소불 170)
- 법당 약30평이상,방3,공양실1
- 가액 : 5,000만원, 월 90만원 양도도 가능

010-9376-563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화 3길 41
- 대지 157평, 법당 25평(목조)
- 요사채: 공양간1, 방2개
- 가액 : 2억 8천(전세가)

010-3508-7710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인천시 서구 가정동 인천 지하철 2호선 정서진역 1분거리
- 평수 : 80여평
- 3층 건물내 3층 전체 사용
- 독립 계단, 주차장 완비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 시설비 : 3,500만원
- 급안내 : 스님 불사 이전 관계임

010-2793-6199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광덕시장 앞 대로변
- 4층 건물중 4층, 화장실 및 옥상단독 사용
- 총 45평 중 법당 20평, 공양간, 주지실, 다용도실
- 즉시법회 가능
- 가액 : 3,0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2,500만원 집기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3468-3928

사 찰 안 내

- 위치 :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 법당 1, 요사채 1, 주차장 완비
- 2층 건물 각 75평,
- 건평 149평, 대지 136평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 가액 : 20억(절충가능)

010-3752-2601
031-217-2633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 법당 : 30평 목조 건물, 문화재급 보유
- 요사채 및 식당 : 40평
- 대지총면적 : 450평
- 즉시 법회가능
- 총양도가액 : 4억 7천만원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주세요 (가격조절가능)

010-4725-5907

사찰(급)안내

- 위치 : 포항 도심속 전통양식
- 아담한 사찰
- 인법당 30평, 2층 방 한 칸, 칠성각, 용왕단, 독성각
- 문수동자 200불, 소불 1,200불
- 공양간, 사무실, 주지방, 화장실 3개
- 가액 : 2억 9천만원

010-4606-7253

포교원(급) 안내

- 위치: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대로변 법당(아차산역 5분)
- 2층 50평
- 방3, 법당1, 화장실2, 거실, 주방
- 가액: 2,500만원 월 160만원 시설비 추후 결정

010-2333-3005

암자 임대 안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역 앞) 대문앞 차도(버스)
- 대지 약 112평, 건(2동) 약 30평
- 법당2, 방2, 거실, 공양간, 마당
- 가액 : 보증금1,0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1,300만원
- 부산에서 이런 법당 찾기 힘듬

010-7138-1141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 토지 : 총650평 (대지 410, 임192, 전48) 5필지
- 법당:30평, 산신각, 조립식방,
- 전부강판기와, 산업용 보일러 시설됨
- 요사 46평(심야보일러, 창고포함) 옥외화장실, 정자, 창고
- 산세좋고, 조용하고, 깨끗하고, 주차장완비, 즉시법회가능
- 가액 : 7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9190-589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
- 부지 종교용지 1,700평, 산 4,130평 합계 5,830평
- 대웅전 35평, 요사채 2층 100평, 지장전 45평
- 양평시내(남한강이 보이는 전망 양호) (매수, 전세, 월세) 매수 시 계약 후 분할 납부가능

010-4225-0012

멋진 2층 전원주택 사찰

- 위치 : 경북 김천시내
- 평수 : 대지 217평 (아래층 방 5개, 법당, 주방, 해우소) (2층 방3개 거실, 주방, 해우소)
- 마당 잔디 황토방 조경 좋음
- 가액 : 대출 1억 포함 2억 8천 5백만원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8008-678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 법당 1, 요사채 1
- 대지 341㎡, 건물 72㎡
- 가액 : 1억 5천만원

010-3050-2637

암자(급)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상운면
- 대지 200평 + 전 1,300평
- 법당 15평, 요사체 25평
- 산속 조용히 기도수행하기 아주 좋은곳
- 가액 : 1억 4천

010-3305-4559
010-9004-7212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지역 문막 IC에서 5분거리
- 평수 300평, 대지 200평
- 법당:목조로된 황토 건물 임법당 30평 요사채 15평
- 특징: 마을 끝 산 밑에 위치함 (전원 주택가능)
- 가액 : 3억 2천(가격조절가능) (원주시내 10분거리)

010-9070-9380

사 찰 안 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3년
- 대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가액 : 7억 8천(1억8천 융자)

010-6898-9114

암 자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20분거리
- 설산, 적송숲 가람조성 5년!
- 종교부지 650평, 삼존불, 노천약사석불, 조립식건물 3동
- 가액 : 2억 2천만원
- 산 1만3천평 사용가능함
- 전세 가능함

011-677-8525

소원성취 포교원

- 위치 : 서울시 중랑구에 3개산이 내려다보는 법당
- 5층 건물 5층 약 90평(옥상사용) 전철 5분
- 법당 30평(삼존불), 삼성각 10평, 영가단 20평
- 공양간 20평, 방 3개, 해우소 2개, 연등 3천개
- 바닥 전체 도시가스, 각단에 탱화를 비롯해서 모든시설 완벽하며 원하는대로 이루어지는 터로서 6년째 운영중인 복된 자리이지만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부득이 내려놓고자 합니다.
- 가액 : 5천만원, 월 155만원(관리비 포함)
- 시설비는 인연따라 형편따라 드리겠습니다.

010-2127-4755

포교원 안내

- 위치 : 창원시 마산중심가
- 평수 60평 정도
- 삼존불, 후불, 신중탱화 등
- 시설완비, 즉시법회, 난방비 무
- 가액 : 2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조정

010-6208-5555
055-242-6555

사찰안내 (국유지)

- 위치: 서울 성북구 정릉동
- 대지 734, 인법당 10평 정도
- 방8개,화장실3개,시설완비
- 주차, 마당에 10대 가능 연못, 방가로 시설
- 가액 : 6억 2천(절충가능)

010-4918-2597

사 찰 안 내

- 위치: 경주시 불국역 부근
- 최고입지 조건 갖춘 암자임
- 정남향, 대지 200평, 건평40평 대웅전, 요사채, 방 3개, 친견실, 공양간, 화장실3개, 삼성각 12평, 집기일체
- 가액 : 2억 8천(조절가능)

010-5427-3699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강촌 IC 옆
- 총평수 : 1,250평
- 건물 : 법당 30평, 요사 3동, 70평
- 가액 : 2억

011-370-5904
033-263-590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 536-9 문경세재, 이화령고개길 150m 접
- 종교시설, 사찰로 등기 되어 있는땅
- 계획관리지역 220평, 관리지역 1,920평 <도로접> 합계 1,520평
- 가액 : 1억 7천5백만원

010-9336-1150

사 찰 안 내

- 위치 : 팔공산 갓바위 와촌
- 대지 220평, 건평 60평, 삼성각 8평
- 용왕당, 1㎞ 내외 경제특구지역, 현재 공사중
- 위치 조건 최상, 투자가치 100% 보장
- 가액 : 3억 5천(융자 1억 5천)

010-5419-7622

법당 포교원 임대

- 위치: 해운대 마린시티 중심가
- 시설비포함 3500 / 월세 60, 실평수 23평
- 지하철, 홈플러스 걸어서5분. 초역세권. 입지조건 최고 갤러리아백화점 신축확정, 아파트 학교 회사밀집지역
- 법당 상담실 겸 스님방 주방 다용도실
- 법당시설 완비(불,탱,CCTV, 전기조명,기타) 풀리모델링
- 주차장편리. 단골신도 포교에 유리. 민원없음

총무 010-5967-3689
010-8532-8918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 광역시 중구 복산동 소재 (아파트 단지 내)
- 4층건물 중 1층 16평
- 법당, 방1개(친견실), 주방, 화장실, 별도공간 5평
- 시설 : 신설 삼존불, 신장, 영가단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25만원 시설비 상담후 가격 결정

052-291-3379
010-4576-2281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금마면
- 불사 및 노후보장 좋은절
- 대지 536㎡, 주차장 텃밭 661㎡
- 법당, 주방 및 종무소1, 요사2동 삼존동불, 인등 300등
- 15년 기도수행도량
- 가액 : 1억 5천 또는 전세 1억 2천 가능
- 좋은인연(공찰 주지로 떠남)

1899-1042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동대문구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60-1번지
- 재래시장옆, 법당40평, 3층건물중 2층
- 주불, 아미타 각 위 5존불, 각 탱화완비, 소불 300불
- 가액 : 1,000만원 월 50만원 (최고, 최상의 시설) 시설비 1,500만원(조절가능)

010-3101-1151
051-782-0110

도심속의 기도터

- 포교원
- 위치 : 마산시외버스 아랫길
- 평수 : 약 35평(2층)
- 위치 좋음
- 몸만오시면 생활가능 즉시 입주가
- 가액 : 3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700만원

010-2400-4237
010-2831-0114

전통 찻집 임대

- 위치: 부산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 종점
- 숙식가능, 싱글 강추
- 가액 : 전세 2천만원 월세 40만원
- 권리금 유

010-9394-1480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금산군 군산읍 족실길 52
- 진악산 등산길 옆 선공암 절
- 조용하고 금산 전경이 다 보임
- 대지 454평, 법당 27평 요사 2동(방 4), 거실 大
- 가액 : 3억 5천(절충가)

010-4355-6356
010-3401-6356

대형포교원(도심사찰) 안내

새로운 신도 포교하기 제일 쉬운곳
- 위치 : 울산 중구 학성동 432-206
- 규모: 3층 건물, 2,3층(약 130평) 옥상활용 가능
- 2층: 공양실, 종무소, 대중방3, 스님 친견실, 스님 처소, 화장실2
- 3층: 대법당, 지장특별기도실, 산신각, 화장실
- 가액 : 5천만원, 월 90만원 시설비 4,000만원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6429-507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소재 김천시 황금시장교통 10분대 김천혁신도시 15분대
- 건물: 단층독채, 벽돌조 104.54㎡(32평) 자기소유등기필(소유권이전), 사찰등재
- 대지 : 도지료 1년 35만
- 내용 : 법당(넓음), 거실주방, 방2개, 세면장 면중심가 2차선 큰길변 남향(교통좋음)
- 가액 : 6,400만원(절충가)

010-7295-1259
054)435-1259

사 찰 임 대

- 여기는 진주시 유곡죽전길 9-5번지 연화빌리지 4층 절을 임대합니다
- 4층 건물 전체 100평 정도 됩니다
- 전세 금액은 1억이고 스님만 오시면 됩니다
- 비구니스님이면 좋겠습니다

010-9892-3435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부산 산사 새벽시장 뒤 (서감초등부근)
- 4층 건물에 2층
- 건 60평 포교원
- 법당 완전 구비 즉시 입주
- 가액 : 1,8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300만원

010-7570-2051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단양군 가곡면
- 대지 400평(주차장완비)
- 건평 50평 1동, 20평 1동
- 대웅전(요사채), 산신각, 용궁
- 가액 : 1억 7천 5백 즉시입주

010-3796-485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마산리 563번지, 553번지는 대지, 산은 110-6번지
- 하우스법당과 하우스산신각, 요사채1, 처사방1, 황토방1, 하우스 창고1, 자재창고 4개
- 563번지 대지 147평, 553번지 대지 230평
- 임야 산 2,007평 110-6번지
- 전기 개인전기 정화조 산에 내려온 식수
- 절충 가격

010-5348-2002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시장입구 시내
- 버스 승강장, 장소 최적
- 3층 건물 중 2층 삼존불 108소불, 주방, 욕실, 방1, 창고, 에어컨1, 냉장고1, 즉시 법회가능
- 가액 : 1,0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1,000만원 주차

010-7583-1235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서원시장내
- 4층건물 중 2층 40평
- 삼존불 시설완비,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2,000만원, 월40만 시설비 1,500만원

010-8758-1313

암 자 안 내

부처님 잘 모실분 찾습니다.
- 위치 : 경북 김천시 황금동 시장앞
- 2층, 방2칸, 거실, 주방, 욕실 1층, 방3칸, 거실, 주방, 욕실
- 임법당, 마당사용, 토지, 건물 50평, 삼존불, 약사불
- 위치 좋습니다.
- 스님 법사님 보살님 인연
- 가액 : 1억 3,000만원

010-9375-2747

도심숲속 공원內 사찰

- 위치 : 부산 범일동 공원 內
- 교통부 R위 10m 버스도로 옆 계단 있음
- 대지 98평 (건 100평)
- 2층 법당 35평, 1층 법당30평 1층 요사채(방2개, 거실 별도 대문) 화장실 5, 방 8
- 가액 : 3억 5,000만원

010-5511-7000

토 굴 안 내

- 위치 : 문경읍 관음리 (문경온천에서 13km)
- 건물 : 10,5평 (목조강판기와 부지 : 82평)
- 농지 : 전 221평 (귀틀집 농막 6평 포함)
- 가액 : 1억 2천만원
- 기타 : 시원한 계곡물이 있고 구거부지도 사용 중

010-8555-4480

포교원 안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 법당 : 30평 목조 건물, 문화재급 보유
- 요사채 및 식당 : 40평
- 대지총면적 : 450평
- 즉시 법회가능
- 총양도가액 : 4억 7천만원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주세요 (가격조절가능)

010-4725-5907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곤명면 연평리
- 평수 : 대지 350평
- 목재건물 4칸 17평. 동향 안채 슬라브 28평 남향
- 가액: 2억 7천만원 (부동산 사절)

010-5838-4478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연봉산 자락
- 대지400평, 법당40평, 창고30평
- 불상 및 비품시설 일체완비
- 주차 시설 좋음
- 아득하고 조용한 남향터
- 가액 : 1억 4천만원

010-3937-3020
010-3123-3113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목천읍
- 대지 173평
- 법당 25평
- 요사채 28평
- 가액 : 2억 5천만원

010-2376-5411
041-557-7786

암 자 안 내

- 위치: 경주시 충효동 981-3번지 구미산, 대지 64평
- 아담하고 깨끗한 절
-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약사불, 지장보살, 신중(산신)
- 법사님 또는 타종단 환영
- 가액 : 6천 5백만원(건물포함)

폰 010-4040-3588
집 054-742-8780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동작구 사당시장 부근 7호선 약 3분거리
- 2층 전체 약 35평(도시가스)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
- 주방,욕실,주차2대
- 아주 깨끗함, 관리비 없음
- 가액: 1,000만원 월 110만원 3,500만원(답사후 조정 가능)
- 즉시법회가능

010-4646-3638

생각 바꾸기

김정호(심리학 박사)

〈3〉 어떻게 생각을 바꿀까 ㊦

"그렇구나, 그렇겠지, 그래도 다행이다"

논리로 스트레스 깨부수기: ABCDE 법

ABCDE 기법은 인지재구조화(cognitive restructuring)의 대표적인 기법이다. 인지재구조화는 비합리적이거나 비적응적인 생각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변화시키는 것으로, 인지치료 혹은 인지행동치료의 주요한 치료기법이다.

인지행동치료에서 인지재구조화는 비합리적인 혹은 부적응적인 생각을 파악하고 이러한 생각을 논리적 논박, 소크라테스 문답법, 이득-손실 분석, 행동실험 등을 통해 변화시키는 기법을 말한다. 인지재구조화는 다양한 임상 현장에서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인지재구조화는 특정 대상에 대한 공포증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 실험실에서 특정 대상에 대한 공포를 형성한 후 인지재구조화로 공포를 감소시킨 연구 결과가 있다. 먼저 거미나 뱀 사진을 보여주며 손목에 약한 전기자극을 주어 거미나 뱀에 대해 공포반응을 일으키도록 조건형성을 했다. 그 후 생각과 감정 간의 관계에 대해 토론 교육을 하고, 조건자극을 덜 부정적으로 보는 방법에 대해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등 조건자극을 다르게 생각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조건자극을 다시 제시했을 때 조건자극에 대한 주관적 공포뿐만 아니라 피부전기반응도 감소하였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몸의 통증도 그 의미를 긍정적으로 바꾸면 통증의 강도를 줄일 수 있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생각의 변화가 뇌의 아편계(opioid system)와 카나비노이드계(cannabinoid system)를 함께 활성화시킴으로써 통증 감소 효과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생각을 변화시키면 뇌의 물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인지재구조화의 대표적인 기법인 ABCDE 기법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그 스트레스를 만드는 데 관여한 비합리적 인지를 파악하고 논박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없애거나 줄이는 방법이다.

ABCDE 기법의 ABCDE는 스트레스를 분석하고 논박하여 스트레스를 없애거나 줄이는 다섯 단계 각각의 영어 명칭 첫 자들을 딴 것이다. 각 단계는 다음과 같다.

A(선행 사건; Activating event):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는 주요한 자극 또는 사건, 즉 사실에 해당함

B(믿음; Belief): 선행 사건에 대한 비합리적인 믿음, 즉 사실에 대한 판단에 해당함

C(결과; Consequences): 선행 사건에 대한 비합리적인 믿음의 부정적 결과로서 인지 · 정서적, 신체적 및 행동적 효과로 구성됨

D(논박; Dispute): 각각의 비합리적인 믿음을 논박하여 더욱 합리적인 믿음과 자기대화로 대체하는 과정

E(효과; Effects): 논박에 따른 결과로서 인지 · 정서적, 신체적 및 행동적 효과로 구성됨

ABCDE 기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효과적인 논박이다. 논박은 논리적 논박, 경험적 논박, 실용적 논박으로 나눌 수 있다.

논리적 논박은 자신이 가진 비합리적 생각의 비논리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상대방이 나를 ' 인정해주면 좋겠지만 '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누구나 나를 ' 인정해주어야 하는 '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경험적 논박은 비합리적 생각의 현실성을 질문하는 것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 요구가 거의 항상 현실과 일치하지는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실용적 논박은 비합리적 생각이 야기하는 정서적 · 행동적 결과를 통해 그 생각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질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무엇인지 질문해본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경우 자기 내면의 요구보다는 타인을 의식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 행동을 남이 어떻게 평가할지 걱정하며 불안을 느낄 수 있음을 알게 된다. 또 불안하다 보면 행동이 부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고, 긴장하여 실수라도 하면 자기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임도 예상 가능하다. 이처럼 비합리적 생각이 유발하는 부정적인 측면을 인식하고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하는 노력을 통해 스트레스 감소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구나-겠지-감사: 나-지-사 기법

나-지-사 기법은 우리나라의 용타 스님이 개발한 '동사섭' 프로그램에서 교육하는 기법의 하나다. '나-지-사'는 '구나-겠지' 감사의 약자로서 자신의 스트레스에 대해 '…하는구나' '…겠지' '…해서 감사하다'의 순서로 스트레스 사건을 재해석하는 방법이다.



동기인지행동치료의 관점에서 보면, 나-지-사 기법은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여전히 존재하는 동기충족을 찾아 활성화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줄이고 웰빙을 늘린다.

현재 상담이나 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심리기법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것임에 반해, 나-지-사 기법은 국내에서 개발됐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다만 아쉬운 점은 나-지-사 기법을 적용한 실증적 연구가 적다는 것이다.

나-지=-사 명상이라고도 하고 지족(知足) 명상이라고도 하는 나-지-사 기법은 스트레스를 아래의 순서로 재구성한다.

1)구나: 스트레스 사건을 멀리 놓고 바라본다. 스트레스 사건의 원인 제공자로 꼽은 사람을 두고 '○○가 …을 하는구나'라고 알아차리며 바라본다. 용타 스님은 '구나'를 할 때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고요해지는 것을 느껴보라고 한다.

2)겠지: 상대에게 '그럴만한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한다. 이때도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고요해짐을 느껴보라.

3) 감사: 그만하니 감사하다고 생각한다.

용타 스님은 반복해서 연습할 것을 강조한다. 기억 속의 모든 것을 하나씩 노트에 적고서, 그 상황을 떠올리며 나-지-사 연습을 하도록 권장한다.

'그래야 한다'는 강박서 벗어나
합리적으로 생각 전환하려 노력
스트레스를 '자비 눈'으로 볼 것
자기연민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

'구나'는 일종의 마음챙김으로 볼 수 있다. 사건 자체에 매몰되지 않고 그것을 떨어져서 바라보기 때문이다. 또 일반적으로 나-지-사 기법의 '구나'에서 대상은 다른 사람이지만, 마음챙김 명상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도 대상으로 삼아 '…하는 구나'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자기자비 명상의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대상이 다른 사람이든 자기든 혹은 어떤 상황이든, 있는 그대로 떨어져서 봄으로써 대상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구나'에서는 자기 자신과 상황을 마음챙김하듯이 가능한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도 좋겠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이 화가 났다면 '화가 났구나', 불안하다면 '불안해하는구나' 하고 알아준다. 관련해서 어떤 생각이나 동기가 탐지된다면 그것들을 앞의 마음챙김 부분에서 설명한 것처럼 명명해준다. 상황과 관련된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도 가급적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판단을 배제하고 사실적 기술을 한다.

'겠지'는 스트레스 상황을 다르게 보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인지전략을 사용했다면 그것을 멈추고 대안적인 생각을 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과 마음에 대한 긍정적 해석(어떤 의미에서는 긍정적 독심술사고)을 한다.

'겠지'는 자기중심의 (정보처리) 관점에서 타자 중심의 관점으로 전환하기라고도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안-조건(동기, 인지, 정서, 감각)에 대해 가급적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

'구나'에서처럼 '겠지'에서도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겠지'를 적용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엄격하고 매몰차게 비판하기 보다는 따뜻한 자비의 눈으로 바라본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따뜻하게 대하다 보면 자기발전이 없을 수 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한 현대 사회에서는 자기를 엄하게 대하기가 쉬우므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자기를 균형 있게 대하는 길이 될 것이다.

'겠지'에서 과거나 현재의 상태만이 아니라 미래의 상태에 대한 추론도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동기좌절예상을 동기충족예상으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된다.

'감사'는 동기인지 행동치료의 관점에서 볼 때 감사한 점을 찾겠다는 동기의 확립을 전제로 한다. 감사의 동기를 통해 외부든 자기 자신이든 주어진 조건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감사한 점을 찾는다.

'감사'는 잠재된 동기충족의 동기 상태를 활성화시켜 웰빙을 늘리고 스트레스를 줄인다. 좌절되었거나 좌절이 예상되는 동기는 내려놓고 새로운 동기의 활성화에 정신자원을 부여한다. 감사를 찾겠다는 동기는 감사한 점에 주의를 기울이는 새로운 긍정적 정보처리를 가능하게 해준다.

인지행동치료에서 주로 사용하는 ABCDE 기법이나 소크라테스 문답법처럼 문제가 되는 생각을 논박하여 생각을 고치려는 방법과는 달리, 나-지-사 기법은 처음부터 긍정적인 측면에 주의를 주고 웰빙을 구성하는 방법이다.

'나-지-사'로 이렇게 달라졌다!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나-지-사 기법을 적용하면 평소에 적응하던 부정적 대처 방법이 멈춰져서 스트레스의 지속과 증폭 역시 멈춘다. 또 평소와는 상황을 다르게 보게 되어 동기충족과 동기충족 예상을 가져오는 인지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

특히 '겠지'를 하면서 자기 입장이 아니라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보게 된다. 상대가 공감되는 자기의 유사한 사례가 떠올라 상대의 입장이 좀 더 이해되기도 한다. 예의 없게 행동하거나 사소한 것에 고집을 부리고 화를 내는 사람에 대해서, 그가 내면에 자격지심이나 열등감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스트레스 상태에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

- 인간의 보편적 현실에 대한 이해

특히 자기자비의 형태로 나-지-사 기법을 연습하면 '구나'를 하면서 있는 그대로 자신을 볼 수 있게 된다. 나를 객관적으로 조망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불안, 분노, 우울 등의 고통을 경험함을 이해하게 되고, 그 결과 나 자신뿐 아니라 타인도 따뜻하게 감싸 안게 된다. 나만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어진 고통이나 자기 자신의 부족한 점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정적인 반추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자기자비에서 잘못하면 자칫 자기연민에 빠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나-지-사 기법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때, 이 기법이 단순히 자기 위로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타인에게 적용할 때 지나친 관대함은 오히려 관계를 망칠 수도 있음을 유념하는 것도 좋다. 적절한 자기주장은 건강한 관계에 중요한 요소다. 이러한 점만 유념한다면 꾸준한 적용은 사고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정리=박아름 기자

이 글은 〈생각 바꾸기〉(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영남범패학인모집

본 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서울 및 경기지역에 교육원을 개설하였습니다.
영남범패를 탁마할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아 래

■ 개강일시 : 2016년 5월 26일〈목요일〉 오후 3시
■ 교육장소 : 길지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 1로 49 506호)
■ 수 강 일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 ① 상용의식 및 재의식
② 사물다루는 법
③ 바라 및 승무작법, 화청 등
■ 수강자격 : 삭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 수 강 료 : 월 10만원〈교재비 별도〉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문의전화 : 031)483-5528 (길지사 석문스님)

사)대한불교불음원
경기교육원

漢文 한글 겸용 불교상용의식집

"漢文/한글 겸용 불교상용의식집"은
漢文念佛 한글염불 경전공부까지 스님들과 불자님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불교 상용의식집입니다.



● 제1권(예경/각청) ● 제2권(천도/시식) ● 제5권(점안)
● 제6권(독송집) ● 제3권(수계/방생) ● 제7권(토속의식 모음집)
● 제4권(장의) 각권 20,000원

발행인 : 금불 장엄사 주지 성묵 스님
(경북 칠곡군 기산면 봉산4길-54)
주문처 : 054)974-1345(장엄사)
010-7144-7339(총 무)
010-5277-8024(스 님)
계좌번호 : 농협 735091-52-058288 박명덕
(전국 불교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4월을 보내며



며칠, 세상은 온통 화사한 꽃들로 시간을 보냈다. 곡우(穀雨)가 지나간 자리엔 풀들도 일어나기 시작했다. 눈과 귀를 가진 것들은 모두 더 멀리에 있는 세상을 보겠다고 분주하다.

바야흐로 모든 것들이 윤을 내고 속도를 내는 시간이다. 그러고 보니 숨을 쉬는 것들은 모두 앞을 다투며 산다. 앞을 다투어 피어난 꽃들과 풀들만 들여다봐도 생사의 비밀 하나 쯤은 들을 수 있을 것도 같다.

하지만 이 세상 모든 자리가 다 같은 모습일 수 없는 것이, 볕이 드는 곳 다음엔 볕이 적은 곳이 있어 더딘 꽃도 있고, 더딘 풀도 있기 마련이다. 더딜 수밖에 없는 곳에서 더딜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 앞서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다.

어느 산골, 조금 더딘 풍경 속에도 생사의 비밀은 한 가지로 들었을 것이다.

글 · 사진=박재완 사진작가



승한 스님의 좋아좋아 행복코칭

'하지 않아도 될 일' 행복하게 누려라

삶의 5가지 원리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은 무엇일까? 말할 것도 없이 '자신의 삶'이다. 삶이 없다면 자신도 없고, 자식도 없고, 부귀영화도 없고, 행복도 없을 것이다.

그토록 소중하고 값진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이 물어올 때 나는 삶의 5대 원리를 제시한다. 정체(正體), 대원(大願), 수심(修心), 화합(和合), 작선(作善). 이 5가지 원리다. (출가하기 전 내게 고난이 닥쳤을 때 스승이신 동사섭 행복마을 용타 큰스님께서 가르쳐주신 원리다.)

정체의 원리란 자신에 대한 바람직한 정체관, 즉 바람직한 자아관을 갖는 것을 말한다.

평소 '나는 그저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저 그럭저럭한 사람이야'라는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은 항상 그저 그런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는 아주 착한 사람이야', '나는 매사에 훌륭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야'라는 믿음과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항상 착하고 훌륭하게 살아간다.

사람에 따라 자아관은 각기 다르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통용될 수 있는 4가지 차원의 자아관이 있다. 보편적 자아관이다.

첫째, 부정적 자아관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나는 그저 그런 사람이야' '항상 별 볼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왜 키가 160센티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영어를 잘 못할까?' 하고 자기를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자아관이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런 사람은 열릴 운세도 열리지 않는다.

운세가 열리는 법은 간단하다. 부정적인 자아관이 인식되는 순간, 바로 그 뒤에 '그러나'를 붙여버리면 된다. '그러나'가 바로 묘약이다. 예를 들어 "나는 왜 영어를 못할까? '그러나' 굿모닝은 할 수 있잖아", "나는 하는 일마다 왜 이 모양이야. '그러나' 커피 하나는 잘 타잖아"라며 부정적인 인식이 드는 순간 바로 그 뒤에 '그러나'를 붙여버리면 부정적인 자아관은 순식간에 긍정적인 자아관으로 바뀌어버린다.

긍정적 자아관은 '나는 없다', '실체로서의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허공이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삼법인' 가운데 제행무상과 제법무아가 여기에 해당한다.

묘유적 자아관은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할 때의 그 산과 물과 같은 자아관을 말한다.

산시산 수시수(山是山 水是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더라)

산시비산 수시비수(山是非山 水是非水,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더라)

산산수수(山山水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더라)

마지막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처럼 아무리 부정해도 끝내는 묘하게 현존하고 있음, 그때의 자아가 바로 묘유적 자아관이다. 반야심경에서는 그것을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색'이 바로 묘유적 자아관이다.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진공묘유적 자아관까지는 못가더라도 최소한 긍정적 자아관은 갖고 살아야 한다.

대원의 원리는 커다란 소원, 즉 원대한 바람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삶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다. 그러나 나 혼자만의 행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마음 만으로라도 우리 사회, 우리 국가, 우리 민족, 전 세계 인류, 파리, 모기, 아메바, 잡초 등 전 우주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유정 무정물들의 행복까지 위해서 산다는 커다란 바람을 갖고 살 때, 우리들의 행복 수준은 그 어떤 자로도 잴 수 없고, 그 어떤 저울로도 달 수 없을 만큼 넓고 깊고 숭고해질 것이다.

부정적 생각 들면 '그러나' 떠올리면
긍정적 결론, 마음 지배하게 돼
우주만물 행복 '원대 소망' 품어야
행복의 질, 마음먹기 달린 것

수심의 원리는 이기적인 마음을 잘 닦고 관리하며 살아야 한다는 원리다. 서양 격언에 '나도 살고 남도 살자'는 말이 있다. 내가 먼저 행복하게 잘 살아야 남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수심'이다. 자기 마음을 잘 닦고 관리하는 것이다. 수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행복을 창출할 수 없다. 질료가 없는데 어떻게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평소에 우리가 보시를 많이 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다니고, 계를 잘 지키고, 참선과 명상을 많이 하고, 바쁜 시간을 쪼개 절에 다니고 법회에 참석하는 것도 바로 수심을 위해서다.

화합의 원리는 내 가족은 물론 모든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화목하게 잘 사는 것을 말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아무리 행복해도 혼자서는 살 수 없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온다. 우리가 이웃들과 더불어 화합을 잘 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내 가족, 내 이웃, 내 국가, 내 민족, 우리 지구촌이 행복하지 않으면 내 행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가장 먼저 화합하고 살 곳은 가정이다. 가족 간에 화합도 못하고 사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고 잘 살 리 만무하다. 설혹, 다른 사람들과는 화합을 잘 하고 산다고 해도 집에만 들어오면 가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는가?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말도 그래서 나왔다.

화합의 첫 단추는 상대방의 행복을 진정으로 빌어주는 것이다.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 매일 매일 일터와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 순서대로 상대방의 행복을 기쁘게 빌어주며 화합과 친교를 잘 해나가면 행복과 평화는 절로 넘쳐난다. 행복과 평화가 넘쳐나는데 삶이 기쁘고 즐겁지 않을 리 없다.

작선의 원리는 착하고 바람직한 행동, 즉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매사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 즉, 소임과 비소임의 일까지 더 잘하고 살아야 한다는 원리다.

소임(所任)의 일은 무슨 일을 할 때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는 일이다. 비소임(非所任: 비소임의 소임)의 일은 봉사활동이나 취미생활처럼 꼭 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행복한 인생을 위해 다양하게 하고 사는 일체의 일을 말한다.

어떻게 보면 행복의 질은 비소임의 일에 달려 있다. 소임의 일이야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지만, 비소임의 일은 먹고 사는 것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하는 일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소임의 일을 잘 하고 사는 것은 자신의 행복지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비결 중에 비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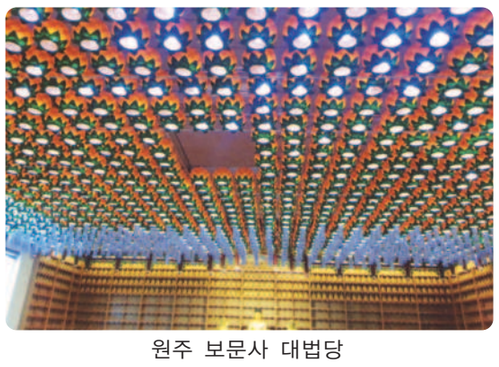
이처럼 "이 우주에서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나는(정체),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대원), 마음을 잘 닦고 관리해서(수심), 내 가정은 물론 모든 이웃들과 더불어 서로 화합하고 친목하며(화합), 착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겠습니다(작선)"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음속으로 세 번만 명상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행복은 넝쿨째 굴러 들어올 것이다.

사찰불사! 정우불교예술원이 함께합니다

20년의 경력

연등 자동 승강장치

원주 보문사 대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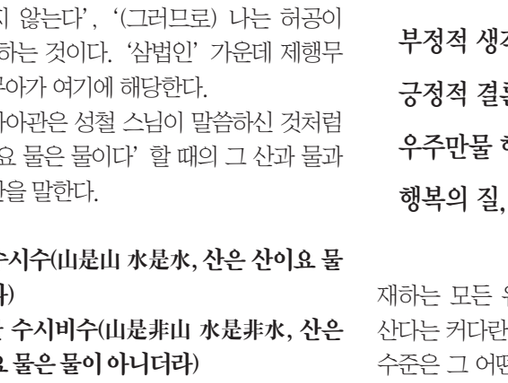


월출산 무위사 대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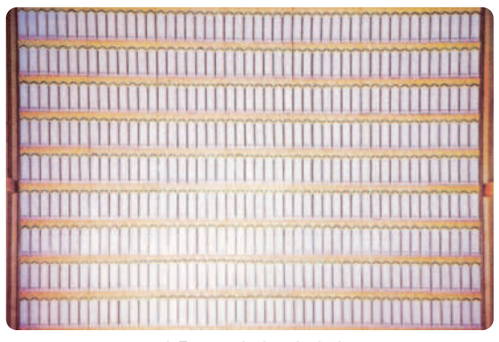


영가 위패단

(실용신안 제20-0439285 / 디자인등록 제30-0477206)



제주 월성사 위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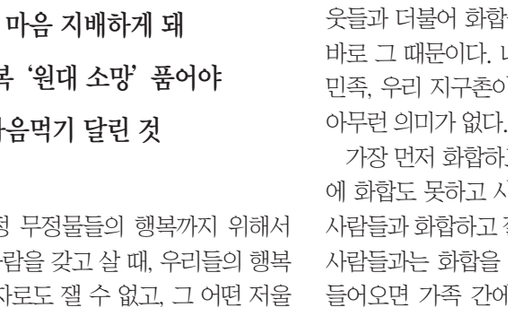


장흥 보림사 위패단

인 등

(실용신안 제20-0439286 / 디자인등록 제30-0477201)

안정성, 편리성, 디자인, 경제성 등 모든 면에서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 월성사 인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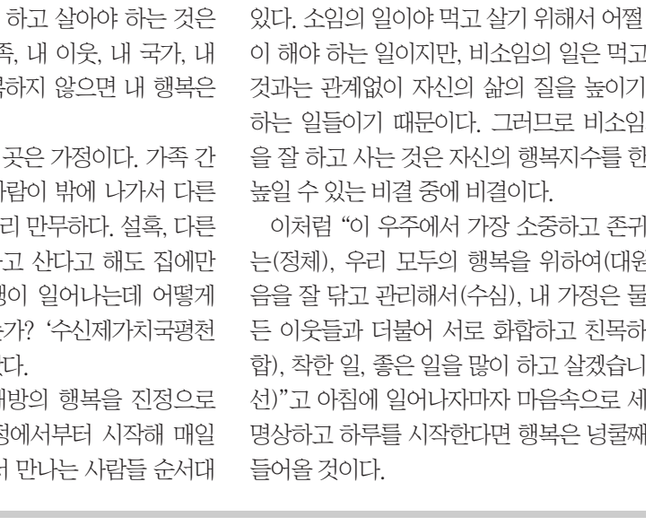
각종 인등 견본



대나무 숯 부처님
(동불, 특수불, 각종 불상)

연 등

※ 공단연등 특별 할인 판매 합니다.



노랑 진분홍 영가등

금등 바림등 만월등

* 전문 기술진이 완벽하게 시공해 드립니다. *

정우불교예술원 www.jeongwoo.info
전화 : 010-3724-0455, 031)969-631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을로 100번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094호 현대불교
2016년 4월 27일 (3월 21일) 수요일 / 불기 2560년

모든 걸 다 맡겨서 아무 생각이 없을 때 한생각을 내라!

무의 세계로 넘어가려면

질문 현대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물질을 쪼개 보는 기술도 자꾸 높아져서 이제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쪼개고 쪼개다 보니까 질량이 이제 거의 없고 수명이 지극히 짧은 입자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 인간은 유(有)의 세계의 궁극에 이르러 무(無)의 세계로 넘어가는 문을 발견할 수 있게 될는지요.

답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마음의 공부를 이렇게 하고 가는 거죠. 지금뿐만 아니라 부처님 당시서부터, 그분만 깨달아서 한 게 아니라 단군할아버지도 그 사는 법을 가르쳤고, 또 사대 성인들이 다 가르쳤어요, 부처님만 가르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문은 아주 간단해요. 지금 내가 말하듯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교차로에 있으니까. '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거와 같은 그 교차로에 죽음과 삶이 있다.' 이러듯이, 우리 지금 세상이 이게 물질세계로서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문화 문명이 아주 고도로 발전이 됐지만, 지금은 거꾸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그 교차로를 넘어서야 된다, 정신세계로. 그것은 우리가 지금 마음공부 하는데 있어서 그 교차로를 넘어서야 하는 것과 같죠. 그것도 들이고 내는 그 교차로, 거기 한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물질세계로 지금 팽창될 수 있다면, 정신세계로 진화돼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면 정말이지 우리가 한마당 한식구가 되죠. 세계평화가 온다 이 소립니다. 그러한 것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아, 여기 여러분이 공부하고 계신데 뭐 걱정입니까, 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내고도 못 믿죠? 여러분이 한번 마음을 내서 지켜보라고요, 어떤가? 의심하지 말아요. 지금 물어보듯이, '내가 이 공부를 하면 성사가 될까, 안 될까?' '그것이 진짜 그렇게 될까, 안 될까?' 이런다면 되겠소? 네? 내가 목말라서 죽겠는데 물을 들고, '이 물을 먹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런다면 그 목마른 게 다 없어지오? 물을 먹을 수 있겠소? 그러니까 목마를 땐 그냥 무조건 먹는 것이 장땡이에요. 그리고 물이 먹기 싫을 때는 안 먹고 놓는 게 또 장땡이거든. 그러니까 어쭙게 내가 조금 알아 가지고는 그냥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이런 시기에는 이것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 하고 막 생각 내지 말고, 모든 걸 다 맡겨서 아무 생각이 없을 때에 한생각을 내라 이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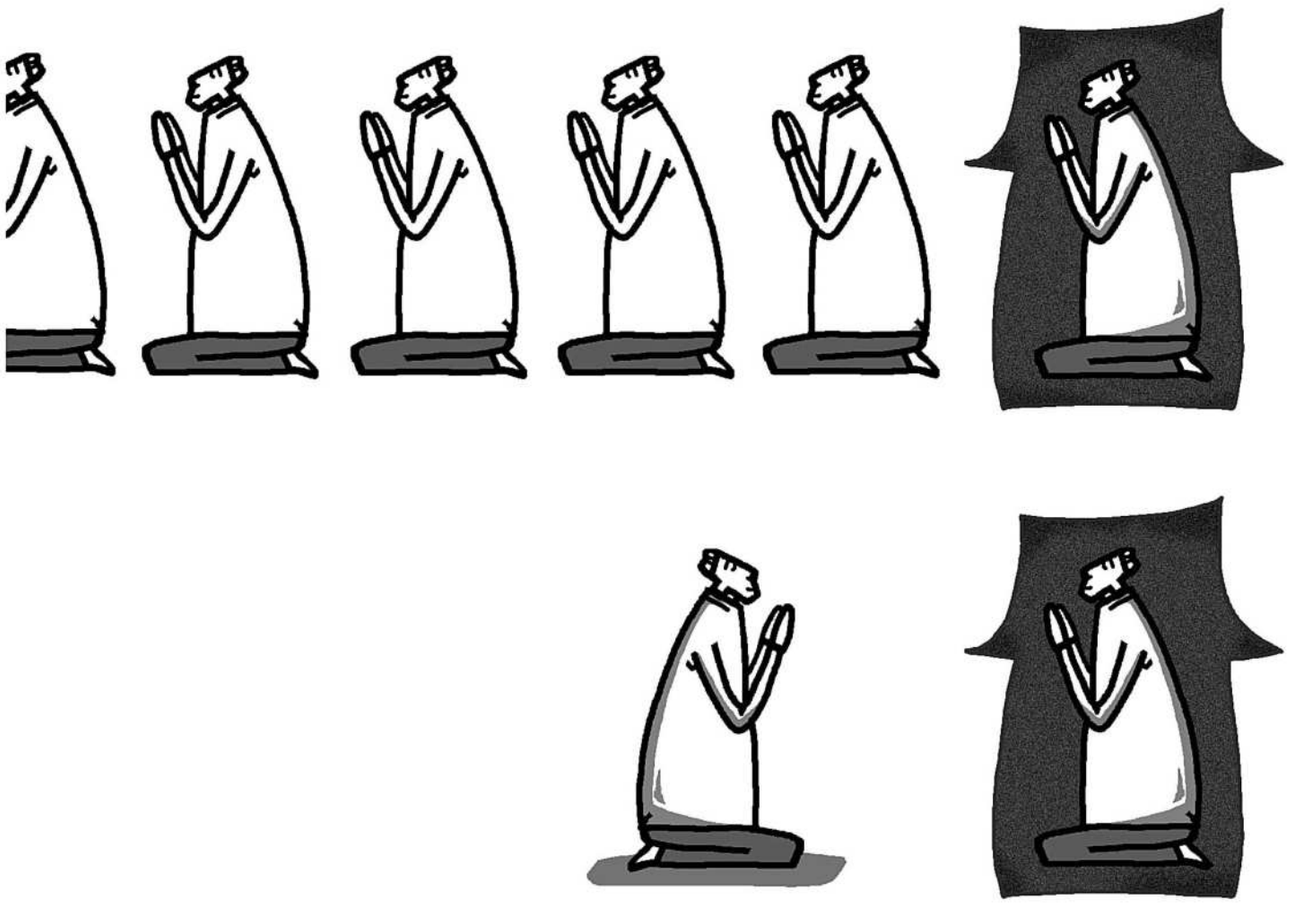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모든 것을 망상이라고 끊어야 한다고 할 게 아니죠. 생각나고 생각나고 생각나고 생각나는 것은 망상이 아니라, 그것은 순리적으로 공해서 돌아가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순리적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소. 이 생각 하고 저 생각 하고 또 딴 생각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자꾸 자꾸자꾸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그게 망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돌아가니까 '내 몸, 나온 거 들어간 거, 사는 거, 보고 듣는 거, 몽땅 그놈이 하는 거다.' 하고 맡기세요. 그놈이 하는 거지 딴 놈이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놈, 자기 주인공한테다 모든 것을 맡기세요. 주인공 죽는 법은 없습니다. 맡겨 놓고 그놈이 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방황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금방 죽는대도 방황할 게 없어요. 그게 바로 힘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늘려 놓으려면 늘려 놓고 줄이려면 줄이지, 뭐 걱정이냐 이겁니다.

이 무심 도리(無心道理)가 지금 시쳇말로 정신세계의 한마당에, 그 한자리에, 그 만봉(萬峰)에, 만봉! 만봉 봉(峰)에 연꽃이 피어서 이 세상을 두루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멋진 도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한마당이 있는데 왜, 왜 그걸 마음대로 못해? 안 그런감요? 왜 그걸 마음대로 못해요? 허이, 참 내. 올려놓는 것도 법, 내려놓는 것도 법인데, 자유스럽게 삽시다, 자유스럽게. 이 자유스럽게 사는 방법을 배우려면 마음공부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없이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거고, 보지 않고 보는 능력을 배우는 거며, 듣지 않고 듣는 방법을 배우는 거며,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방법을 배우는 거며, 지금 결정적인 문제를 결정하지 않으면서도 결정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배우는 공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을 너무 남용하면, 예를 들어서 말을 함이 없이 해야지 내가 그 도리도 모르고선, 함이 없이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설법을 했지.' '내가 이런 말을 이렇게 했지.' 하는, '내가 했지.' 하는 그 마음만 들어간다면 그것이 바로 남용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미(迷)해지는 그런 마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함이 없이 해야죠. 그 말이 안 나오고 하는 것은 아직 배추 무만 사다 놨지, 양념을 해서 맛있게 버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댁이 지금 사다 놓은 무, 배추에다가 양념을 버무려서 요리를 만드는 방법을 지금 수련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로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나를 깨달아 가지고도 무의 세계에서의 둘이 아닌 방법을 알기 위해서 또 놓고 공부한 거예요. 육조 스님도 그렇고, 다. 또 놓고 공부해 가지고 자꾸자꾸 보임(保任)을 해서 들어가죠.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는 부처님처럼 야, 요만한 것에는 나도 요만하게 응해서 한마음이 되어 주고, 또 조만하면 조만한 대로 한마음이 되어 응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바로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면서 내가 돼 줄 수 있게 되죠. 크나 작으나 다 내가 돼 줄 수 있고 한마음이 돼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열반이라고 하거든요. 살아서 열반이 아니라면 죽는 것이 열반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죽어야 열반이죠. 허허허. 옛날에 어떤 큰스님이 말씀하셨듯이 "3년을 눈 뜨고 푹 쉬면 된다. 그러면 둘이 아닌, 차차 열반경지로 그냥 곧장 들어가는 길이 나오느니라." 그러셨듯이 말입니다.

누가 낫게 해 주는 것인지

질문 경기도에 어떤 기도원이 있는데 현대의학으로써 나을 수 없는 암이라든지 백혈병이라든지 다른 기타의 병들도 거기 기도원에 가면 낫게 해 준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는 우리 마음에서 찾는 주인공이 낫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낫게 해 준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 맡기면 예수님이 알아서 다 낫게 해 주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주인공에 믿고 맡겨서 병고액난을 해결해 나가는 것과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믿고 낫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요? 누가 낫게 해 주는 것인지요?

답변 항상 그러면 바깥의 노예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항상 빌어야 하고, 항상 낫게 해 달라고 빌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불교에선 그렇질 않아요. 이 마음의 도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즉 깨달음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 세세생생에 벗어나려 하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 마음은 체가 없어서 너와 내가 말을 할 때, 벌써 이 전기가 전자와 전자가 한데 합해지는 순간이에요. 합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한쪽에서 '네가 불이 들어오게 했다. 내가 불이 들어오게 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단 얘기죠. 알아듣겠어요? 양쪽 전자와 전자가 한데 합쳐야 불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쪽 놈이 했다고 할 수도 없고

☞ 26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여러분 자체가 없는데 병 붙을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 25면에서 계속

저쪽 놈이 했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하하하. 그러니까 말을 하는 순간에 이 마음과 마음은 전기와 같이 탁 붙어서 불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랬으니 어떤 놈이 낫게 해 줬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네 마음, 내 마음이 둘이 아닌 데서 불이 번쩍 켜진 거죠.

그러니 그거를 가지고 부처님께서 낫게 해 주셨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게끔 되는 거지요. 그런데 왜 부처님이 낫게 해 주셨다고 안 하고 '당신네들이 할 수 있다. 당신네들이 낫게 했다.'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한 열매가 열려서 익어서 만 가지 맛을 내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기가, 자기 자신이 아니었더라면 상대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낫게 했지요. 안 그런가요? 업보도 자기가 짓는 거요, 선보도 자기가 짓는 거요, 바로 애고도 자기가 지어서 받는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너뜨리는 것이니 자기가 하는 것이지요.

사랑도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지 받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생각을 할 때 때리든지 안 때리든지, 욕을 하든지 욕을 안 하든지 부모는 자식을 무조건 사랑을 해요. 그거를 자비라고 해요. 무조건 하는 것이 자비예요. 거기 이유가 붙어서 사랑을 한다, 뭘 한다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자비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업보가 붙을 자리가 없다는 걸 강조하고 있지요. 병이 붙을 자리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여러분 자체가 없는데 병 붙을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다는 그 자체는 너무 고정되게 있지 않고,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고, 걸어온 자체가 없고, 말한 자체가 없고, 이름을 부른 자체가 없어요. 자체가 없이 돌아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말이에요. 그러고 돌아가니, 비유한다면 비행기 프로펠러가 돌아갈 때 아주 보이지도 않지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간다면 먼지 앉을 게 있나요? 우리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의식이 그런 거를 몰라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사니까 그렇지, 이거 하나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물컵을 가리키시고) 지수화풍을 통해서 바로 우주개공이 여기에도 있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밖으로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이시여!"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깥으로 끄달리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바깥의 이름 하나를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니까요. 그런다면 병은 더러 낫는다고 하지만 자기를 깨달을 수는 없어요. 자기를 깨달아서 자기가 벗어날 수는 없다 이 소리예요. 세세생생에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를테면 자기 영혼을 건질 수 없다는 거지요.

저항 없이 그냥 따라가야 하는지

질문 우리는 착한 행을 하면 복이 온다 해서 항상 착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뜻이나 나의 성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일이 거꾸로 돌아가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인연법에 따라서, 이것이 인연이니 하고 나 스스로 나의 본성을 죽이고 저항 없이 그냥 따라가야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저항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답변 하여튼 방향이 제대로 나가지 않는 것은 이렇게…, 맷돌축 있죠? 축을 갖다가 제대로 꽂지 않았으면 물건을 넣고 갈아도 제대로 갈려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딴 방향으로 나갑니다, 마구 그냥 쏟아집니다. 그와 같습니다. 똑바로 끼워야죠. (손가락을 하나 세워 보이시고) 아래 위가 똑바로 심봉이 끼워져야 제대로 일하며, 전자와 전자줄이 한데 제대로 이어져야 불이 들어옵니다.

맷돌축은 본래 그대로 끼워져 있는 거니까 그대로,
저 나무 뿌리가 있으니까 나무가 있듯이,
그대로 돼 있으니 그대로 철저하게 믿어라!

그렇지만 맷돌축은 본래 그대로 끼워져 있는 거니까 그대로, 저 나무 뿌리가 있으니까 나무가 있듯이, 그대로 돼 있으니 그대로 철저하게 믿어라 이겁니다. 왜 자기 뿌리를 안 믿어요? 그렇다면 형상을 믿을 겁니까? 그래, 형상도 내 몸과 저 형상이 둘이 아니다, 부처님 형상이 내 형상과 둘이 아니요,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과 둘이 아니요, 또는 부처님의 생명이 내 생명과 둘이 아니니 그저 둥글게, 모나게 하지 말고 둥글게, 일정례(一頂禮)를 하더라도 둥글려서 일심(一心)으로 진실하게 일배를 올려도 올려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딴 데로 나가는 거는 잘못 끼웠기 때문입니다. 즉 말하자면 마음 내기 이전의, 내 마음의 선장을 올바로 투시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욕심대로 나가는 생각이 80%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건 3%밖에 안 되니까, 비중이 더 큰 데로 돌아가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뿌리에서 그 싹을, 전체를 살리고 있으니까 '너밖에 할 수 없다.' 하고 다 맡기고 심부름꾼으로만 사세요. 시자, 관리인! 사실 따지고 보면 관리인입니다, 심부름꾼이고! 따지고 보면 속의 생명들의 심부름꾼이기도 합니다. 또 이 사람 전체 몸뚱이의 심부름꾼이기도 합니다, 여러 생명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또한 둘이 아니죠.

그러니 마음쓰기에 달려 있으므로 이 몸뚱이 속의 모든 의식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아주 고정적으로 입력이 돼 있는 의식들이 마음 씀씀이에 의해서 바로 화(化)해서 달라진단 말입니다. 자기 마음을 따라 주게 해야 업보성, 인과성, 유전성, 영계성, 세균성 이 모두가 무너져서 내 마음 하나로 돌아가게끔 돼서 딴 데로 흩어지질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부처님이 되지 못한 사람이지만 다 같이, 이름해서 부처죠. 나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날까지…, 그래서 내가 그랬죠? 분수를 알아서, 내가 얼마만한 그릇이란 거를 알고 해라 이겁니다. 내가 내 그릇에 이만한 걸 담아도 손색이 없을까 하는 걸 미리 알아차려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분수도 모르고 요만한 그릇에다가 (컵을 가리키시며) 드럼통으로 하나를 갖다가 집어넣는다면 이게 담겨집니까? 그러니까 첫째 분수를 알고 진짜로 믿는다면, 그냥 믿는다 안 믿는다도 없이 진짜로 믿는다면…. 나는 내가 하려고 한 것에서 벗어난 예가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지요? 처음에 여기 왔던 해에 김장할 다라가 없어서 '다라가 없으니 어떡하나. 김치를 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모두 나눠 줘야 할 텐데….' 하니까, 그 이튿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다라가 열 개가 들어왔어요. 왜냐? 그게 이심전심이죠. 이 모두가 이심전심으로 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내 마음 내기 이전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난처하게 생각 마시고요, '왜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번연히 알고도 이렇게 딴 데로 가나.' 이러지 마시고 죽든지 살든지 진짜로 믿으세요. 아니, 더 잘 살려고 아무리 해 봐도 그렇다면 차라리 아예 '이젠 너 알아서 해!' 하고, '나는 부지런히 뛰어줄게, 너 알아서 해!' 하고 거기다가 맡겨 놓는 게 더 상책이 아닐까요? 더 살기가 편안하고요. 이거는 내가 한다, 내가 짊어지고 내가 산다, 내거다, 내가 망했다 이런다면 어휴! 그거 사람이 한 생 사는 데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푹 쉬고 저 세 살 먹은 애, 다섯 살 먹은 애가, 학교에 다니는 애들도 그렇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믿고 그냥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 보세요. 그리고 책이 없어도 '아, 아버지가 사 줄 테지.' 하고 말이에요. 공책이 없다면 "공책이 없어, 아버지!" 그러면 사 주듯이, 이렇게 편리하게 사세요. 그러면 딴 방향으로 안 갈 겁니다.

상대방을 부처님으로 보려면

질문 어떻게 해야 상대방을 부처님으로 볼 수 있습니까? 내가 부처님이 되어야 상대도 부처님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공부하는 과정에서 분별심이 없어지지 않고 잠재의식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대인관계에서 큰 손해를 보고, 급기야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우리는 지금 태어난 것이 시발점이 돼서 종교를 믿고 이렇게 가는데, 여기까지 (염주의 매듭 부분을 가리키시며) 와 가지고 여기를 한번 뛰어넘어서…, 이게 말하자면 생사에 관한 건입니다. 물질세계에서 이리로 와서 여기를 다시 뛰어넘으면 이제 피안의 세계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넘어간다 이런 소리와 같습니다. 이것이 살아서 열반이라고 하는 경계입니다. 죽어서 열반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모든 거를 놔서 죽은 세상까지 돌아야, 살아 있는 세상과 죽어 있는 세상이 동시에 같이 있는데 거기를 찰나찰나 이렇게 한 바퀴 돌 줄 알아야, 모가 나지 않게 돌아갈 줄 알아야, 50%와 50%를 합쳐서 100%를 같이 굴릴 줄 알아야 이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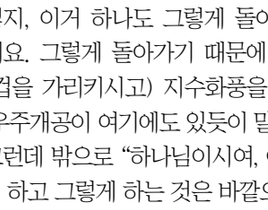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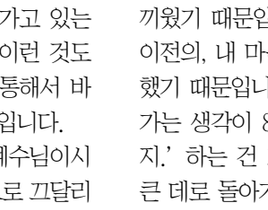
그래서 한 바퀴 돌아와야 그 둘이 아닌 도리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자식이 됐다가 부모가 됩니다. 부모가 됐다가 또 한 번 옷을 벗고 한 번 돌아요. 돌아서 다시 탄생을 해 보니까 딴 부모한테 또 태어났어요, 인연에 따라서. 그러니까 또 딴 부모의 자식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딴 모습으로다가,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서 짐승의 자식이 돼서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돌고 돌다 보니까 내 자식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내 부모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내 형제 아닌 게 하나도 없더라. 공동묘지에 가 보니까 남녀노소도 없고 그대로 늙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 또한 깨쳐야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줄과 염주알이 둘이 아니다, 뿌리와 싹이 둘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뿌리의 세계를 알아야 뿌리의 세계에서 현실의 세계로 나오면서 자꾸 화(化)해서 모습이 바뀌어서 나오는 거, 인연이 바뀌어서 나오는 거, 그런 거를 다 이렇게, 50%만 아는 게 아니라 100% 돌아가면서 알아야 '아! 모두가 둘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진실하게 알지, 내가 직접적인 행을 해 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먹어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둘이 아닌 줄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죽었다 깨어나고, 깨어났다가 죽고 이러는 도리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도리를 알게 됩니다. 내 과거에 살던 나와 현실에 살던 자기와 둘이 아니게 상봉을 해야 진짜로 그런 도리를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알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너 나가 없이 자비를 베풀 수가 있고, 네 부모 내 부모 아님이 없이 자비를 베풀 수가 있고 마음을 낼 수가 있지,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너 나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이고, 둘이 아니다!'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모습이 둘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둘이 아니다, 영혼이 둘이 아니다 이겁니다. 영혼이 둘이 아니라면 진짜로 자비를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습은 따로따로 각각 있을지언정 한 줄에 꿰였다 이겁니다, 한 줄에. 이 염주알은 따로따로 있으나 한 줄에 꿰여 있으니까 '너 나가 둘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려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도 또한 발견을 해야 아시겠죠, 확실하게.

그러나 발견을 못했어도 '진짜로 뿌리의 세계는 그렇게 둘이 아니구나. 영과 영이 만개가 한데 합쳐도 영은 영이고 바로 둘이 아니구나.' 이런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두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남을 증오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이렇게 항상 하신다면 자식의 업보도, 남편의 업보도, 아내의 업보도, 부모의 업보도 다 사라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도님들 중에 실천을 아주 잘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면서도 실제로 체험하고 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자기가 그만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는 알고 있을 거예요. 컴퓨터에 입력하는 거와 비교를 해서 얘기해 드렸으니까요. 한 찰나에 없어지는 것은 그거와 같다 이겁니다. 입력이 돼서 나오는 데다가 다시 입력을 한다면 앞서의 입력은 없어진다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해 드렸으니까요.

내가 대답을 서투르게 해 드리더라도 여러분은 좀 지혜롭게, 너그럽고 둥글게, 이렇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난 배우지 못해서 그런지 그 용어를 방편으로 빨리빨리 대치를 해서 얘길 할 줄 모르지 않습니까?

개복숭아, 구지뽕
묘목 분양 (3년, 5년생)
무노동으로 (2,000평) 연봉 5천이상 가능!!
● 최고 소득 작물로써 자연산은 한번 심어 놓으면 200년이상 사찰자립에 꼭 필요한 나무입니다.
● 무농약, 무비료, 무퇴비로 키워야 더 좋음으로 사찰자립, 귀농귀촌, 은퇴 후 생활에 최적의 고소득 효도나무입니다.
• 강원도 350고지 이상의 토종 자연산 씨앗으로만 발아
• 무농약, 무비료, 노동력 無
• 열매솎기, 밭매기가 전혀 필요 無
• 꽃이 황홀해서 관상수로도 최고!


고혈압, 당뇨, 항암, 기관지, 폐에 좋다고 소문난
건조된 구지뽕 열매 1kg 시중에
10만원 → 5만원 판매
구입문의 010-5114-7588
입금계좌 : 농협 123-02-311652 (이상국)


■ 3칸 겹집 목조건물 : 11,000×6,000×4,800㎜ ■ 가격 : 평당 1,500,000
다그라스 목재기둥 : 180×180×2,700㎜ 다그라스 대들보 : 180×240㎜
다그라스 목재도리 : 108×180㎜ 다그라스 목재서까래 : 100×100㎜
목재판매 : 120×18㎜ 전통강판기와 주춧돌 : 300×300×300㎜
원하는 평수가능 토목공사 부가세별도
황토흙 ALC블럭 내화벽돌 판넬 자유선택

■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조립식 평상 : 1,800×1,030×400㎜
~~가격 : 290,000~~ → 할인가 : 190,000 부가세, 운송비 별도
폴리프로필렌자재기둥 : 110×90×400 도리 : 80×35 중간대 : 80×35 마루판 210×12
연결이동 사용할 수 있으며 보관 설치가 간단한 평상
지구산업
www.지구산업.com
TEL (063)323-3011~2 / FAX (063)323-3010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안계의 자가 면역력이 놀라운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불자 세상보기

참스승이 나와야 교권도 회복



선업 스님
통담아카데미아 원장

최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매 맞는 교사'나 학생으로부터 폭언 등을 당하는 등 교권 침해를 본 교원들을 돕기 위한 교원치유지원센터가 대전과 부산, 대구, 제주에 설치되어 시범 운영된다고 한다.

센터가 설치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된 교권 침해 건수는 2012년 7천971건을 비롯하여, 2013년 5천562건, 2014년 4천409건 발생하는 등 지난해까지 2만944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 중 95%가 폭행과 폭언, 성희롱, 수업진행방해 등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였다.

〈육방예경〉에 의하면 당시 인도의 학생들은 "선생님을 예배 공양하며 존경하고 우러러 받들고, 가르침이 있을 때는 순종하여 어기지 않으며 들은 법은 잘 지녀 잊지 않았던" 모양이다. 특히 제자가 선생을 공경하고 받들어 선생은 편안하여 아무 걱정이 없었다고 한다. 이런 전통은 동아시아도 마찬가지여서 '스승의 그림자' 조차도 선생의 영역에 들어가 학생들의 예배 공경의 대상이었다.

물론 제자들의 공경의 대상인 선생은 몇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먼저, 법에 어긋남 없이 학생을 다루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며, 묻는 것에 대답하여 잘 이해하도록 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법에 어긋남이

교권 침해 95% 학생이 유발
스승 공경의식 사라짐이 원인
학생 인격 성장 위한 대안 필요

없다'는 대목이다. 바른 의도와 바른 말 그리고 바른 행동이 결합된 청정한 삼업(三業)의 실천가로 학생과 만나는 선생은 참스승 그 자체이자 누구나 따를 수밖에 없는 '법'적인 존재인 것이다. 그런 스승의 가르침은 학생들의 인생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다.

또한 좋은 선생은 "좋은 벗을 알선해주며 아는 것은 아끼지 않고 모두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특히 평생의 동반자가 되는 좋은 친구 관계를 맺어주는 것도 선생의 역할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우관계의 매개체로 선생이 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학생의 일생은 선생의 영향력과 동반하게 된다.

〈육방예경〉에서는 큰 스승으로 스님들을 등장시키고 있다. 사문은 "그들을 보호하여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게 하고, 좋은 것을 가르쳐 착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며, 이미 들은 것은 잘 이해하게 하고, 천상에 나는 길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학생 제자들의 나쁜 의도의 발생을 막아 좋지 않은 말과 행동이 튀어 나오지 못하게 예방하고 천상으로 비유되는 최상의 행복감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스승의 역할인 것이다.

이렇듯 주도적으로 학생들의 심성을 함양하고 인격을 성장시킨다면 폭행과 폭언, 수업진행방해 등 학생들에 의한 교권 침해는 발생하기 어려워진다.

이번 교육부의 조치는 이미 피해를 입은 교원들의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런 연유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될 교육청은 의사 · 상담심리사 · 변호사 등을 연계해 피해 교원에게 진단과 심리상담, 법률 자문 등을 할 계획이다. 더불어 피해 교원이 교단에 복귀한 뒤에도 상담을 통해 적응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로도 힐링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계속 관리할 예정이라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다.

앞으로 기대하고 싶은 소식은 교권 침해의 악습이 사라져 교원치유지원센터가 교원에 의한 학생들의 치유 도우미 교실로 바뀌는 것이다. 그 전제 조건은 영향권 안에만 들어가도 내면의 혁명이 일어나는 참스승들의 출현이다. 마치 못 그릇 속에 자석을 넣어두면 시간의 흐름을 타고 저절로 못들이 자성을 띄듯이 세상의 어둠 속 빛나는 스승의 존재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 등장할 학생들의 마중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바닥 친 교권으로 인한 안타까운 개소식이 아닌 참스승들이 운영하는 행복나침반센터의 등장 소식을 듣고 싶다.

기자 칼럼

공연장에선 눈·귀만 열어두세요



김주일
취재부 부장

4월 17일 KBS홀서 열린 니르바나 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봉축음악회 공연장서 벌어진 일련의 풍경들은 공연장 예절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다.

물론 무조건 그것이 점잖은 클래식 공연장을 찾는 사람의 예의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일방적인 전통과 편협한 형식에만 매달리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비싼 돈 주고 산 티켓이니 '이 좌석은 내 것'이라는 이기심이 아니더라도 편안한 차림으로 즐겁게 내 방식대로 공연을 즐기겠다는 관객을 규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공연은 혼자 보는 것이 아니다. 주변에 같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공연장을 찾은 관객이 있다. 무대엔 최고의 연주를 보여주기 위해 땀 흘리는 연주자가 있다. 상대를 배려하는 '최소한의 갖춤'이 예의라면, 모자의 들린 앞 챙이 뒷자리 객석의 시야를 가리고 뜬금없는 시점에 일어나 연주의 여운을 음미하는 다른 관객들의 감상을 방해하는 행동은 명백한 무례가 아닐까.

객석 2층은 상대적으로 무대와 멀리 떨어져 관객들의 관람예절에 대한 사각지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날 2층 객석에서는 이런 지리적 단점을 십분 활용한 관객들이 눈에 띄

휴대폰 촬영 관객 눈에 거슬려
예절 준수, 불교음악 발전 주춧돌

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일부 관객은 자신들과 인연 깊은 출연자가 나올때마다 객석 앞으로 슬며시 나아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했다.

공연 중엔 휴대폰을 꺼달라는 공연 전 안내 방송을 금방 기억속에서 지운 것일까? 공연장 내에서 촬영 금지는 '공연장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기본 예의'다. 좌석이 어디든 미세한 숨소리마저 느껴지는 엄숙한 공연장에선 휴대폰 울림이나 카메라 전원의 빨간 불빛은 연주에 방해가 되고 관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음악 공연 시 이러한 행위는 자칫 연주자의 실수를 유발시킬 수 있다. 사진 촬영 금지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저작권이다. 특히 요즘같이 지적재산권이 법적으로 보호 받을 때에는 주의를 해야 한다. 휴대폰 촬영이라도 해도 예외는 아니다.

불교음악은 그동안 꾸준히 발전해 왔다. 특히 이번 공연은 한국의 범패와 서양의 클래식 오케스트라가 함께 펼치는 크로스오버 공연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일부 관객들은 그런 음악 콘텐츠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기념 사진과 촬영인 잿밥에만 눈이 어두운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출연자들의 음악적 수준과 열정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즐기는 관객들의 수준도 하나의 공연을 완성케 하는 중요한 척도다. 불교음악 공연에서 왕왕 볼 수 있는 이러한 관객들의 수준 미달 태도는 이제 사라져야만 된다. 만일 다른 종교 관객들이 혹시 레퍼토리가 좋아 공연장에 와서 이 광경을 목격한다면 우리 불교음악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 지 우려가 된다.

또 하나 짚을 것이 있다. 협주곡이든 교향곡이든 합창곡이든 악장마다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곡 연주가 끝나야 박수를 치는 것이 매너라는 것도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감상의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다. 그런데 일부 지휘자는 곡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박수를 흥에 겨워 유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지휘자는 연주가 끝날때까지 냉정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연주자들도 흐름이 끊기질 않고 관객도 평정심을 유지한 상태로 예절을 준수하며 감상할 수 있다.

공연장에 들어서는 순간 만큼은 반짝이는 것은 눈이면 되고 열어 놓을 것은 귀면 된다. 그리고 떨리는 것은 가슴이면 충분하다. 더 이상 불교음악 공연장에서는 예의없는 관객들이 사라지길 기대한다. 그것이 불교음악을 발전시키는 또하나의 지름길인 것이다.

社說

불교 잡지 발전위한 돌파구 찾자

불교계 대표 전법지 월간 〈불광〉이 6월 불교잡지 사상 최초로 지령 500호를 맞는다. 하지만 불교계 잡지가 처한 현실은 어둡기만하다. 한국 잡지산업 전체 매출은 2012년을 기점으로 매년 줄고 있다. 잡지사의 평균매출액은 2013년 반토막이 났으며 최근에는 1/3 수준까지 떨어졌다. 판매가 예전 같지 않고 반품률이 높아 아예 서점에서 철수하는 잡지사도 부지기수라고 한다. 일반 잡지들은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판매나 디지털 유료화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하지만 불교계 잡지는 대부분이 비영리인 사찰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까닭에, 또는 주요독자층이 고령이기에 이런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환경 변화에 2015년 전통의 불교 문학잡지 〈유심〉이 종간되기도 했다. 현재 불교계에서는 시대흐름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했던 일반잡지 성격의 불교잡지들이 하나 둘씩 회원지와 사보 등으로 성격을 바꾸고 있다. 물론 운영주체인 사찰이나 불교계 기관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일반인이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하게 하는 전법지가 없어지는 것이 문제다.

그렇다면 그 돌파구는 무엇일까. 관계자들은 '불교'를 새롭게 가공해내는 역량을 지키고 키우는 것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비록 불교계 잡지들이 처한 환경 때문에 사보나 회원지로 전환되고 역할이 국한되더라도 일반인들에게 전법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가공하는 역량만은 지속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불교잡지계가 처한 상황은 힘들다. 하지만 그로 인해 '불교'를 새롭게 가공하고, 시대 흐름에 맞는 콘텐츠 제공 등을 등한시 하면 미래는 없을 것이다. 이는 불교잡지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불자들의 화두가 아닐까 싶다.

출가 이미지 변화가 필요하다

일반 대중이 가지는 출가 수행에 대한 이미지는 '어렵다. 고되다. 폐쇄적이다' 정도로 정리된다. 대중문화에서도 출가는 마치 사연이 있어서 속세를 떠나 불가에 귀의한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와 같은 이미지로 소비된다.

그래서 출가 이미지를 개선하고 현대적 출가 수행자상을 알리기 위해 조계종 교육원이 오는 5월 26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개최하는 출가콘서트는 여러모로 기대가 된다. 출가콘서트는 올해를 '출가 진흥의 해로' 선포한 조계종 교육원의 역점 사업이다. '출가'라는 주제로 대형 행사를 마련한 것은 종단 사상 처음있는 일이기도 하다.

출연진들도 대중적이다. 국민 멘토 법륜 스님, BBS 불교방송 '아침풍경' 진행자 원영 스님, 나란다 교리 경시대회에서 수상하며 출가 원력을 세운 고우 스님, 김민지 마인드디자인 대표 등이 참여해 20~30대의 고민을 듣고 대안적 삶으로서의 출가를 이야기할 예정이다. 문화공연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출가콘서트가 당장 출가자를 늘릴 수는 없는 일이다. 고착화된 출가의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출가는 만인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한 과정이며, 적극적인 삶의 자세임을 알려야 한다. 결국, 불교가 최종적으로 맞닥뜨려야 할 것은 일반 대중이다.

장기적으로는 출가는 젊고 유능한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유도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현대적이고 시대에 맞는 출가수행자상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출가 콘서트가 이 같은 길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고 기대해 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우)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2층(수송동)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불자와 사찰간의
다양한 소식, 뉴스, 혜택 등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사찰의 다양한 소식을
절로에서 받아보세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다운로드
Google Play (안드로이드용)
App Store (아이폰용)
"절로" 검색 후 다운로드

절로 문의전화
불자/신도 무료이용 사찰/단체 이용문의
1644 - 9108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HD

www.btn.co.kr



뮤직에세이 편지

방송시간 매주 화 11:20, 토 13:50, 일 21:50

1부 불교계 최강의 DJ 성전스님과 함께..
2부 어라?지찬스님과 차차!효산스님의 환상콤비토크

사연접수 메일 : post@btn.co.kr
전화 : 1부) 02-3270-3438
2부) 02-3270-3429

skylife 171번 KT olleh 233번 SK Btv 555번 LG U+TV 185번 ▮케이블채널안내 | 02.3270.3300 ▮방송포교후원ARS | 060.800.7000

20년경험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 여행사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여정
YESGOOD.CO.LTD
[문의전화] 02-365-7747
오시는 길 : 서울 종로구 조계사앞 대불광빌딩2층
www.mahayeon.com

성지순례

인연이 닿아야 갈수있는 곳
천불천탑의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마하연투어만의 특전
1.직영운영으로 중간마진을 뺀 가격
2.오랜경험으로 현지불교행사 진행
3.호텔-행사-식사(탁사비교 필수)

미얀마 6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미얀마 7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삔따야]
미얀마 7일 (3대 성지)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미얀마 5일 [양곤-바간-헤호]

남방불교의 진수 인도/스리랑카
하늘과 맞닿은 불교성지 티벳/부탄/네팔

KOREAN AIR
부탄순례지 NO경유! 인천->네팔,부탄

인도 11일 (8대성지)
스리랑카 6일
스리랑카 완전일주 8일
인도/네팔 15일

티벳(하늘열차) 8일
동티벳 9일
성도-문천-마얼킹-오명불학원-야칭스-깐딩
티벳6일
성도-라싸-얌드록쵸-간체-시가체
부탄/네팔 8일

마하연투어 강력 추천 순례지

대만/라오스/베트남 캄보디아

대만5일 대만3대 사찰순례
대만/홍콩5일 홍콩(2)-대만(2)-화련
태국5일 방콕-아유타야-파타야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6일
하롱베이-루앙프라방
베트남/캄보디아6일 하롱베이-씨엠립

4대불산 중국[China]
990,000원부터~
[지장도량]구화산-[관음도량]보타산6일
[문수도량]오대산/북경/ 5일
[보현도량]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지장도량]구화산/황산/항주 5일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태항산-천계산-요산(208m중원대불)
공중도시 면산-태항대협곡 5일
청도/곡부/태산6일(훼리크루즈)


연등속지 백색 1묶음
판매가 6cm 3,500원
판매가 8cm 5,000원
판매가 10.5cm 6,000원
판매가 12cm 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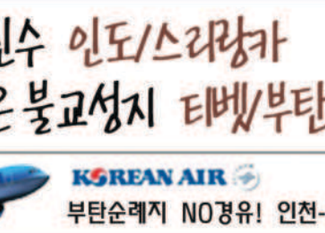

한지 칼라등지
판매가 8cm 27,000원
판매가 10.5cm 38,000원



PVC등표(100매)
내지 12,000원
집게부착 20,000원
• 크기 : 8.5cm×2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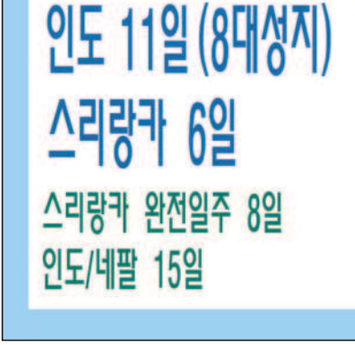

봉축연꽃리본(100개)
일 반 18,000원
고 급 27,000원


일반연잎 6,000


바림연잎 7,000


한지바림연잎 8,000


국산 LED전구(50개)
85,000원


방수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
• 22cm (50구) @65,000
• 25cm (50구) @65,000
• 30cm (50구) @65,000
• 35cm (50구) @70,000
• 40cm (50구) @73,000
• 50cm (50구) @75,000
• 1 m (50구) @90,000
• 2 m (25구) @80,000

믿음과 정직의 산실!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연 등 할인가

• 바림·공단등(6cm) @2,500원 (60개이상)
• 바림·공단등(8cm) @3,000원 (30개이상)
• 바림·공단등(10.5cm) @6,000원 (16개이상)
• 바림·공단등(13cm) @13,000원 (6개이상)
• 바림·공단등(20cm) @35,000원 (2개이상)
• 바림·공단등(30cm) @90,000원 (1개이상)
• 황 금 등(6cm) @2,700원 (60개이상)
• 황 금 등(8cm) @3,300원 (30개이상)
• 황 금 등(10.5cm) @6,500원 (16개이상)
• 황 금 등(13cm) @15,000원 (6개이상)

• 청도비닐만월등(100개) 160,000원
• 국산비닐만월등(100개) 170,000원
• 청도연화만월등(100개) 220,000원
• 국산장만월등(100개) 220,000원
• 팔각만월등(100개) 180,000원
• 비닐오색청사초롱(100개) 240,000원
• 청도비단접등(12cm)(100개) 350,000원


금띠지 등표
판매가 800원 할인가 600원 (200개)
• 종류 : 만사대길, 소원성취, 학업성취, 사업성취, 삼재소멸 中 선택.
• 하단부분은 생 · 이름을 적을 수 있습니다. 〈3.5cm×70cm〉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54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0-3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356-0976-5320-43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